



저작자표시-비영리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순진이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음악치료 연구에 나타난
노래의 치료적 활용 분석

:국내 석사학위논문을 중심으로

2021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음악치료학과
임경선

음악치료 연구에 나타난
노래의 치료적 활용 분석
:국내 석사학위논문들을 중심으로

순진이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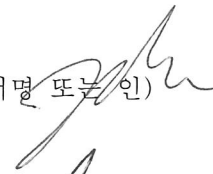
2021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음악치료학과
임경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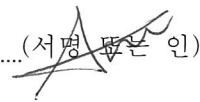
인 준 서

임경선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21년 5월

심사위원장 박정미 (서명 또는 인) 

심사위원 김경선 (서명 또는 인) 

심사위원 윤진미 (서명 또는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본 연구는 음악치료 연구에 나타난 노래의 치료적 활용을 분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1999년 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발표된 국내 음악치료 석사학위 논문 중 노래를 치료적으로 활용한 연구 250편을 선정하고, 연구의 전반적인 특성 및 활용된 노래자료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한 분석틀을 고안하여 전문가의 내용 타당도 검증은 마친 후 각 항목에 따라 분류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래를 치료적으로 활용한 음악치료 연구의 연구대상은 성인초기, 성인후기, 성인중기, 아동, 청소년, 유아, 영아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구 유형은 양적 연구, 혼합 연구, 질적 연구의 순으로, 중재목적은 정서, 언어, 사회, 인지, 신체, 음악 영역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중재 회기의 경우 세션 형태는 중간그룹, 전체 회기 수는 1-10회기, 주당 회기 수는 주2회, 회기 시간은 40-60분 미만의 형식이 가장 높은 빈도로 구성되었다.

둘째, 음악치료 연구에서 활용된 노래자료의 장르는 가요, 창작곡, 동요, 종교음악, 민요, 외국곡, 가곡, 클래식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가사주제는 생활, 비애정관계, 애정관계, 사회 주제의 순으로 자주 활용되었다. 노래 활동은 작곡 활동, 수용적 노래활동, 재창조 노래활동, 결합 노래활동, 즉흥 노래활동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셋째, 연구대상의 연령별로 활용된 노래자료를 살펴보았을 때, 유아와 아동은 동요, 청소년은 가요, 영아와 성인에게는 치료사가 만든 곡이 자주 활용되었으며, 영아는 신체/동작, 유아는 동식물/자연, 아동과 청소년은 자기표현, 성인에게는 일상생활 주제의 가사가 많이 활용되었다. 노래활동의 경우 유아는 노래 부르기, 아동과 청소년, 성인초기, 성인중기의 대상자에게는 노래 개사하기, 성인후기의 대상자에게는 노래 부르기와 노래 개사하기 활동

이 자주 활용되었다.

대상자의 임상적 특성별로 활용된 노래자료를 살펴보았을 때, 장애군은 동요, 비장애군은 가요, 환자군에게는 치료사가 만든 곡이 가장 많이 활용되었으며, 장애군과 비장애군은 자기표현, 환자군은 일상생활 주제의 가사가 많이 활용되었다. 노래활동의 경우 장애군과 비장애군은 노래 개사하기, 환자군은 노래 부르기 활동이 자주 활용되었다.

중재목적별로 활용된 노래자료를 살펴보았을 때, 언어와 인지영역은 치료사의 창작곡, 정서와 사회, 신체영역은 가요, 음악영역에서는 동요 장르가 자주 활용되었으며, 인지와 언어영역은 일상생활, 정서와 사회영역은 자기표현, 신체영역은 종교, 음악영역에서는 신체/동작 주제의 가사가 자주 활용되었다. 노래활동의 경우 언어와 음악영역은 노래 부르기, 정서와 사회영역은 노래 개사하기, 인지영역은 노래 회상하기와 노래 부르기, 신체영역에서는 노래 감상과 노래 연주하기 활동이 자주 활용되었다.

본 연구는 음악치료 연구에 나타난 노래의 치료적 활용을 분석하여 노래가 활용된 연구 및 노래의 전반적인 특성을 다양한 항목별로 살펴보고, 노래의 치료적 적용을 학문적, 임상적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 음악치료 연구에서 노래가 폭넓은 치료적 활용 범위를 가지며, 음악치료 현장에서 다양한 내담자들을 위해 활용되고 있음을 밝힘으로써 노래가 지니는 임상적 가치를 규명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8
3. 용어정의	10
II. 이론적 배경	12
1. 노래의 특성	12
1) 노래의 정의	12
2) 노래의 치료적 특성	14
2. 음악치료에서 노래의 치료적 활용	17
1) 노래의 치료적 활용	17
2) 음악치료 선행연구	20
3. 노래의 치료적 활용 분석	22
III. 연구방법	24
1. 연구대상 논문의 선정 및 수집	24
2. 자료 분석 절차	28
1) 분석틀 고안	28
2) 분석기준 선정	28
3) 전문가 내용 타당도 검증	38
3. 분석항목	46
4. 자료 처리	57

IV. 연구 결과	58
1. 음악치료 연구의 전반적 특성	58
1) 연구대상	58
2) 연구유형	59
3) 중재목적	60
4) 중재 회기구성	61
2. 노래자료의 전반적 특성	63
1) 노래장르	63
2) 가사주제	65
3) 노래활동	67
3. 임상적 적용에 따른 노래자료의 전반적 특성	69
1) 연구대상의 연령에 따른 노래자료의 전반적 특성	69
2) 연구대상의 임상적 특성에 따른 노래자료의 전반적 특성	77
3) 중재목적에 따른 노래자료의 전반적 특성	83
V. 결론 및 제언	90
1. 결론	90
2. 제언	98

참 고 문 헌

ABSTRACT

부 록

표 목 차

<표 III-1> 연구대상군의 연령 평가	39
<표 III-2> 연구대상군의 진단적 특성 평가	40
<표 III-3> 연구유형 평가	41
<표 III-4> 중재목적 평가	42
<표 III-5> 중재 회기구성 평가	43
<표 III-6> 노래장르 평가	44
<표 III-7> 가사주제 평가	45
<표 III-8> 노래활동 평가	46
<표 III-9> 연구대상군의 연령별 분류기준	47
<표 III-10> 연구대상군의 진단 특성별 분류기준	47
<표 III-11> 장애 대상군의 진단 특성 분류기준	48
<표 III-12> 연구유형 분류기준	49
<표 III-13> 중재목적 분류기준	50
<표 III-14> 중재 회기구성 분류기준	51
<표 III-15> 노래장르 분류기준	52
<표 III-16> 가사주제 분류기준	53
<표 III-17> 노래활동 분류기준	56
<표 IV-1> 노래를 활용한 음악치료 연구의 연구대상	58
<표 IV-2> 노래를 활용한 음악치료 연구의 연구유형	59

<표 IV-3> 노래를 활용한 음악치료 연구의 중재목적	60
<표 IV-4> 노래를 활용한 음악치료 연구의 중재 회기구성	62
<표 IV-5> 노래장르의 전반적 특성	64
<표 IV-6> 가사주제의 전반적 특성	65
<표 IV-7> 노래활동의 전반적 특성	68
<표 IV-8> 연령에 따른 노래장르의 특성	70
<표 IV-9> 연령에 따른 가사주제의 특성	73
<표 IV-10> 연령에 따른 노래활동의 특성	76
<표 IV-11> 임상적 특성에 따른 노래장르의 특성	78
<표 IV-12> 임상적 특성에 따른 가사주제의 특성	79
<표 IV-13> 임상적 특성에 따른 노래활동의 특성	82
<표 IV-14> 중재목적에 따른 노래장르의 특성	84
<표 IV-15> 중재목적에 따른 가사주제의 특성	86
<표 IV-16> 중재목적에 따른 노래활동의 특성	89

그림 목 차

[그림 Ⅲ-1] 자료수집 및 분석 자료의 선정절차	26
-----------------------------------	----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간은 세상에 태어나 영아기에 자장가를 들으며 잠이 들고, 유아기에는 동요를 들으며 놀이와 학습에 참여한다. 아동기에는 노래를 부르며 의사소통 기술을 습득하고(유지수, 김수지, 2019) 자라며 친구들과 관계를 형성한다. 청소년기에 인간은 좋아하는 장르의 노래를 들으며 감정을 표현하고 정신적 위안과 위로를 얻는다(황은영, 2016). 성인기에도 인간은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나마 휴식을 얻고, 노년기에도 트로트, 민요를 들으며 과거를 회상하고 삶을 되돌아본다(박정희, 이드보라, 2013). 이처럼 인간은 출생에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음악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노래는 가사가 있다는 점에서 다른 음악 장르와 구분된다. 인간이 고전음악, 뉴에이지(new age) 등 음악의 여러 장르 가운데 노래를 특히 선호하고 가까이하는 이유 또한 가사 때문이다(김혜진, 김은주, 2017; 황은영, 2016). 인간은 사랑과 이별, 우정, 미래에 대한 불안 등을 표현하는 노래 속 가사에 개인의 경험을 반영하고 공감하며 이를 통해 위로를 얻는다. 노래 가사는 청자로 하여금 과거를 연상하거나 미래를 위한 꿈을 표현하게 하고(Bruscia, 1998a), 사랑과 절망, 소망을 드러내는 등(Baker & Wigram, 2005) 감정표현과 자기표출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음악치료에서 노래는 감상과 가창 외에도 연주하기, 노래 만들기, 다른 예술매체와 결합해 사용하기 등의 방식으로 다양하게 활용된다. 연주하기는 노래에 맞춰 악기를 연주하는 것이고, 노래 만들기는 노래를 개사하거나 선율을 작곡하는 것이다(Bruscia, 1998b). 다른 예술매체와 결합해 사용하기는

노래에 맞춰 몸을 움직이는 신체활동이나 노래로 이야기를 전달하는 음악극, 음악을 감상하며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는 것 등이다(Grocke & Wigram, 2006).

음악치료에서 노래의 치료적 활용은 심리치료적 접근과 재활치료적 접근으로 나눌 수 있다. 대표적인 심리치료적 접근은 노래심리치료이며, 기법으로는 노래 부르기, 노래 대화하기, 노래 개사하기, 노래 회상하기, 노래 만들기 등이 사용된다. 노래의 심리치료적 접근은 연구자에 따라 치료적 노래 만들기(Baker, 2015; Baker & MacDonald, 2013; Baker, & Yeates, 2018), 노래심리치료(순진이, 2002; 윤선영, 강경선, 2016; Bruscia, 1998b), 노래 중심 음악치료(오선화, 김은영, 정진아, 전정민, 남민, 2016; 정의용, 문지영, 2019; 차미림, 강경선, 2017), 노래 활용 음악치료(어진, 2017; Bailey, 1984) 등 다양한 이름으로 지칭된다.

노래심리치료는 노래자료(song material)를 이용한 음악심리치료의 방법으로, 노래의 가사 또는 음악적 특징들을 이용하여 내담자의 의식과 무의식, 내·외적 갈등에 접근하는 것을 의미한다(순진이, 2002). 노래심리치료는 수용적 활동, 재창조 활동, 즉흥 활동, 작곡 활동으로 구분된다(Bruscia, 1998a). 노래심리치료에서 수용적 활동은 치료 과정 중 나타난 특별한 주제나 이슈와 관련하여 떠오르는 노래를 감상하는 유도된 노래 회상하기(Bruscia, 1998b), 미리 선곡된 노래를 듣고 노래가 전달한 내용을 탐색하는 노래 대화하기(song communication), 가사의 의미를 살펴보며 내담자의 삶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이야기를 나누는 노래 토의하기(song discussion)로 나눌 수 있다(Bruscia, 1998a). 재창조 활동은 내담자와 치료사의 내적 감정과 생각을 탐구하기 위해 미리 작곡된 노래를 부르는 노래 연주하기(song performance)가 있으며, 즉흥 활동은 치료사와 내담자가 즉석에서 선율을 만들어 부르는 노래 즉흥연주(song improvisation)가 있다. 마지막으로 작곡

활동은 내담자의 치료적 이슈에 적합한 노래를 만드는 노래 만들기(song writing), 치료 이슈와 관련된 기존 곡의 일부 마디를 선택하여 배열하는 노래 콜라주(song collage)등의 기법(Bruscia, 1998a)으로 나눌 수 있다.

노래의 재활치료적 접근으로는 선율억양치료(Melodic Intonation Therapy; MIT), 음악적 말하기 자극(Musical Speech Stimulation; MUSTIM), 치료적 노래 부르기(Therapeutic Singing; TS) 등의 신경학적 음악치료 기법이 있다 (Thaut, 2005). 선율억양치료는 브로카 실어증 환자의 의사소통을 촉진하기 위한 치료기법으로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짧은 문장의 억양 패턴을 음악의 운율 체계로 변환시켜 노래로 부르는 활동을 말한다(이난복, 2000; Sparks, Helm, & Albert, 1974; Thaut, 2005). 음악적 말하기 자극은 환자에게 익숙한 노래 가사를 이용하여 인지기능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발화를 촉진하는 기법으로 주로 실어증 환자를 대상으로 활용된다(김태연, 강경선, 2012; 공성현, 박정미, 2017; Thaut, 2005). 치료적 노래 부르는 것은 환자의 발음, 호흡을 향상하기 위해 음악의 구조, 악센트, 템포, 리듬 등의 음악적 요소를 치료 목적에 맞게 집중적으로 사용하여 노래를 부르는 기법이다(김주희, 김수지, 2018; Stegemöller, Hibbing, Radig, & Wingate, 2017).

임상 현장에서 노래의 심리치료적 접근은 주로 자아존중감(윤선영, 강경선, 2016; 홍한나, 순진이, 2018)이나 자기표현(박세미, 문지영, 2019; 윤예은, 2018), 우울(박정희, 이드보라, 2013)과 같은 심리정서 영역, 사회적 상호작용(오선화, 김은영, 정진아, 전정민, 남민, 2016)과 같은 사회영역의 긍정적 변화를 목적으로 내담자에게 활용되었다. 노래의 재활치료적 접근 중 선율억양치료나 음악적 말하기 자극은 실어증 환자의 언어 재활(이난복, 2000; Sparks, Helm, & Albert, 1974)이나 발화 음절수 변화(김태연, 강경선, 2012; 홍도경, 2005; Laughlin, Naeser, & Gordon, 1979), 문장 구사력(공성현, 박정미, 2017)을 위해 활용되었으며, 치료적 노래 부르는 것은 말산출 기능 향상

(김주희, 김수지, 2018)이나 연하곤란 감소(Stegemöller, Hibbing, Radig, & Wingate, 2017) 등 언어와 신체기능의 재활을 위해 내담자에게 활용되어 그 효과를 입증한 바 있다.

노래의 치료적 활용은 성별과 연령에 관계없이 다양한 목적과 방법으로 시행될 뿐 아니라 다양한 내담자에게 가능하다. 전영신(2004)은 치과 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노래 감상을 시행한 결과 환자의 통증과 불안이 유의하게 감소했음을 보고했고, 허고은과 문소영(2016)은 뇌졸중 노인을 대상으로 재 창조 활동을 실시하여 노래 부르기가 음성 질 향상에 효과적임을 밝혔다. 이한나와 양은아(2015)는 시설노인을 대상으로 회고적 노래 만들기를 시행하여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이 향상되었음을 보고하였다. 황은영과 김영신(2009)은 고전음악과 악기연주, 동작 활동을 결합하여 시행한 결과, 유아의 주제선을 인식과 음악적 창의성이 유의미하게 증가함을 밝혔다.

국내에서는 음악치료 석사학위 논문이 처음 발표된 1999년부터 노래를 치료적으로 활용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현수경(1999)의 노래 만들기 연구와 노래 부르기 중재를 활용한 연구(노혜선, 1999)를 시작으로 2000년대에는 순진이(2002)가 석사학위 논문에서 처음으로 노래심리치료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심리치료적 접근을 위한 기초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이후 노래 중심 음악치료(서동욱, 2009; 이명선, 2009; 이미아, 2007)나 치료적 노래 만들기(고난영, 2008; 장승희, 2007)와 같이 노래의 심리치료적 접근을 각기 다른 용어로 지칭한 연구들이 등장했다. 또한 감상을 활용한 연구(전영신, 2004; 정진희, 2004; 조진희, 2009)와 노래와 연극을 결합한 음악극에 대한 연구(박소영, 2004)도 수행되었다. 2010년대에는 동요(김성이, 2016), 민요(권서령, 2013; 김효선, 2018; 이연옥, 2012), 창작판소리(김민지, 2015; 김천사, 2010), 교회음악(신상헌, 2014; 최유란, 2013), 랩(김지연, 2015; 서종현, 2018) 등 다양한 노래장르를 활용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노래 콜라

주(서아름, 2012; 이지수, 2019)와 노래 자서전(이은정, 2010; 장지애, 2013), 가사토의(정용라, 2014) 등 다양한 노래심리치료 기법을 도입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국내에서 노래의 재활치료적 접근은 이난복(2000)과 홍도경(2005)을 시작으로 선율억양치료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으나 심리치료적 접근에 비해 수행된 연구의 수가 적다. 2010년대에는 치료적 노래 부르기(김주희, 김수지, 2018; 여명선, 김수지, 2018), 음악적 말하기 자극(공성현, 박정미, 2017)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 2000년대에 비해 다양한 기법을 활용한 재활치료적 접근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국외에서는 1970년대 노래 부르기를 활용한 연구(Keith & Aronson, 1975)와 록 음악 감상을 활용한 음악치료(Wilson, 1976), 선율억양치료(Goldfarb & Bader, 1979; Miler & Toca, 1979; Sparks, Helm, & Albert, 1974)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1980년대에는 노래 만들기를 치료적으로 활용한 연구(Freed, 1987)와 음악치료에서의 노래 활용(Use of Songs in music therapy)에 대한 연구(Bailey, 1984; Wexler, 1989)가 등장했으며, 노래 부르기(Anshel, & Kipper, 1988; Olderog Millard, & Smith, 1989)에 대한 연구도 꾸준히 수행되었다. 1990년대에는 노래 부르기(Carruth, 1997; Cohen, 1992; Cohen & Masse, 1993) 외에도 즉흥 노래 부르기(improvised song)연구(Amir, 1990)가 수행되었으며, 2000년대에는 치료적 노래 만들기(Baker, Wigram, Stott, & McFerran, 2009; Hatcher, 2007)와 노래 콜라주(Tamplin, 2006)를 활용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2010년대에는 치료적 노래 부르기 연구(Goodridge, Nicol, Horvey, & Butcher, 2013; Stegemöller, Hibbing, Radig, & Wingate, 2017; Stegemöller et al. 2017)가 활발하게 수행되었으며, 이외에도 다양한 기법으로 노래를 활용한 음악치료 연구는 꾸준히 이루어졌다(Ettenberger, & Ardila, 2018; Silverman, 2011).

노래의 치료적 활용에 대한 분석연구들을 살펴보면, 임단비(2017)는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음악치료 연구의 전반적인 특성과 노래자료의 활용을 분석하여 보고하였다. 이찬미(2018)는 발달장애 아동의 언어발달을 위한 노래 부르기 활동 중재를 분석한 결과 대상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창작한 노래와 개사한 곡이 많이 사용되었음을 밝혔다. 정혜원(2014)은 국악을 사용한 음악치료 연구를 음악경험과 음악 외적변화에 따라 분석하여 리듬, 구조, 음색 등 국악이 가진 특징적 음악 요소가 대상자의 음악 외적변화를 이끌어내는데 치료적 효과가 있음을 보고했다.

Barnish, Atkinson, Barran과 Barnish(2016)는 파킨슨 환자에 대한 노래 중재가 대부분 단일대상연구로 수행되며, 기능적인 의사소통 향상보다 삶의 질과 같은 심리사회적 측면의 향상에 초점을 두고 활용됨을 밝혔다. Daykin 등(2018)은 성인의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의 변화를 목적으로 시행된 음악과 노래 부르기 연구를 분석한 결과 음악 감상과 정기적인 그룹 노래 부르기 활동이 중재로 자주 사용되며, 음악과 노래 부르기가 노년층의 우울증 위험을 줄이고 자신감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이라고 보고했다. Lewis 등(2016)은 호흡기 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노래 중재를 활용한 연구를 분석하여 노래 부르기 활동이 신체적 건강의 질과 불안 감소에 영향을 주며, 환자들에게 즐거운 경험이 될 수 있음을 밝혔다.

노래를 활용한 음악치료 중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허고은, 문소영, 2016; 홍한나, 순진이, 2018, Silverman, 2011) 노래의 활용을 분석한 연구(이찬미, 2018; 임단비, 2017; 정혜원, 2014)가 꾸준히 수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적으로 활용된 노래자료의 특성 및 활용 범위를 전반적으로 분석한 국내 음악치료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비한 실정이다. 다양한 방법으로 수행된 노래 활용 연구 중 실질적으로 중재를 수행하여 결과를 도출한 연구를 대상으로 치료적 활용을 분석하는 것은 노래의 치료적 적용에 대한 학문적, 임상

적 근거를 견고히 하므로 매우 중요하다.

국외의 연구들은 학술지 게재 연구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한 것이 다수였으나(Barnish, Atkinson, Barran, & Barnish, 2016), 국내의 경우 음악치료 학술지인 한국음악치료학회지와 인간행동과 음악(구 음악치료교육연구)에 게재되는 연구는 대다수가 석사학위 논문을 기초로 한 것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가진 연구들이 많이 발표된다는 제한점을 지닌다(문수정, 2021). 또한 학술 단체가 추구하는 방향에 따라 게재되는 논문의 색채가 편향되는 학술지 논문 특유의 출판 편향(Easterbrook, Gopalan, Berlin, & Matthews, 1991) 이슈를 고려할 때 국내 음악치료계의 현실을 반영하고, 현장에 대한 실천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연구대상의 범위를 학위논문으로 설정하여 분석하는 것은 의미 있는 시도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 음악치료 학제화 이후 처음으로 석사학위 논문이 발표된 1999년 2월부터 2021년 2월까지의 음악치료 석사학위 논문에 나타난 노래의 치료적 활용을 분석하여 노래가 활용된 연구 및 노래자료의 전반적인 특성을 살펴보고, 노래의 치료적 적용을 학문적, 임상적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음악치료 연구에서 치료적으로 활용된 노래의 실질적 활용 범위를 확인하고 노래의 치료적 활용에 대한 임상적 가치를 규명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음악치료 연구에 나타난 노래의 치료적 활용을 분석하기 위해 노래가 활용된 음악치료 연구 및 노래자료의 전반적인 특성을 살펴보고, 노래의 치료적 적용을 학문적, 임상적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노래를 활용한 음악치료 연구의 전반적인 특성은 어떠한가?

- 1) 노래를 활용한 음악치료 연구의 연구대상은 어떠한가?
- 2) 노래를 활용한 음악치료 연구의 연구유형은 어떠한가?
- 3) 노래를 활용한 음악치료 연구의 중재목적은 어떠한가?
- 4) 노래를 활용한 음악치료 연구의 중재 회기구성은 어떠한가?

2. 노래를 활용한 음악치료 연구에 나타난 노래자료의 전반적인 특성은 어떠한가?

- 1) 노래를 활용한 음악치료 연구에 나타난 노래장르는 어떠한가?
- 2) 노래를 활용한 음악치료 연구에 나타난 가사주제는 어떠한가?
- 3) 노래를 활용한 음악치료 연구에 나타난 노래활동은 어떠한가?

3. 노래를 활용한 음악치료 연구에 나타난 노래자료의 전반적인 특성은 임상적 적용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1) 노래를 활용한 음악치료 연구에 나타난 노래자료의 전반적인 특성은 연구대상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1-1) 노래를 활용한 음악치료 연구에 나타난 노래장르는 연구대상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1-2) 노래를 활용한 음악치료 연구에 나타난 가사주제는 연구대상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1-3) 노래를 활용한 음악치료 연구에 나타난 노래활동은 연구대상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2) 노래를 활용한 음악치료 연구에 나타난 노래자료의 전반적인 특성은 연구대상의 임상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2-1) 노래를 활용한 음악치료 연구에 나타난 노래장르는 연구대상의 임상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2-2) 노래를 활용한 음악치료 연구에 나타난 가사주제는 연구대상의 임상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2-3) 노래를 활용한 음악치료 연구에 나타난 노래활동은 연구대상의 임상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3) 노래를 활용한 음악치료 연구에 나타난 노래자료의 전반적인 특성은 중재목적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3-1) 노래를 활용한 음악치료 연구에 나타난 노래장르는 중재목적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3-2) 노래를 활용한 음악치료 연구에 나타난 가사주제는 중재목적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3-3) 노래를 활용한 음악치료 연구에 나타난 노래활동은 중재목적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3. 용어정의

1) 노래자료(Song Material)

노래자료란 음악치료에서 치료적 목적을 가지고 사용되는 노래를 의미한다. 노래자료는 기존의 곡을 활용하거나 치료사와 내담자가 함께 만들 수 있으며 감상이나 노래 부르기, 연주하기 등의 활동에서 사용된다(순진이, 2002). 본 연구에서는 노래를 활용한 음악치료 연구에서 사용된 여러 장르의 음악 중 가사가 있는 음악을 노래자료로 정의한다.

2) 노래의 치료적 활용

본 연구에서 노래의 치료적 활용이란 노래를 활용한 음악치료 연구에서 치료 목적을 위해 노래자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노래를 활용한 음악치료 연구는 노래의 심리치료적 접근인 치료적 노래 만들기, 노래심리치료, 노래 중심 음악치료, 노래 활용 음악치료와 재활치료적 접근인 선율역양 치료, 음악적 말하기 자극, 치료적 노래 부르기 등을 활용하여 수행된 연구를 의미한다. 그 외에도 가창, 합창, 중창과 랩, 민요, 동요 등의 여러 장르와 연극과 노래를 결합한 음악극, 뮤직비디오 만들기 등이 노래의 치료적 활용에 포함된다.

3) 성인기

성인기는 보통 만 25세에서 64세의 성인을 의미하며(장희숙, 2013), 만 65세 이상은 노년기로 정의된다(김춘경, 이수연, 이윤주, 정종진, 최웅용,

2016).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장휘숙(2013)의 분류에 따라 성인기를 성인초기, 성인중기, 성인후기로 구분하고, 성인초기는 만19-44세, 성인중기는 만45세-64세, 성인후기는 일반적으로 노년기라 불리는 만65세 이상 성인으로 정의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노래의 특성

1) 노래의 정의

노래는 한 사람의 목소리나 여러 명의 목소리를 위한 곡으로 반주가 있거나 무반주의 음악, 노래하는 행위 또는 예술로 정의된다(Sadie & Tyrrell, 2001). Bruscia(2012)는 선율, 리듬 또는 시적인 텍스트의 발성을 특징으로 하는 모든 음악을 노래로 정의하고, 콧노래, 랩, 즉흥연주, 작곡 등 다양한 발성의 결과물이 노래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노래의 대표적인 구성요소는 리듬, 화성, 선율, 가사이다(이성천, 1971). 이러한 음악적 요소가 함께 작용하여 노래는 언어보다 풍부한 감정표현을 가능하게 한다(오선화, 김은영, 정진아, 전정민, 남민, 2016).

리듬은 음의 질서있는 흐름 또는 지속적인 흐름을 의미한다(남덕순, 2009). 어떤 음악에나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리듬은 개인과 그룹을 활성화시키고 통합하여 안정감을 준다(Boxill, 1994). 리듬은 사람들에게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움직임 주며 역동적인 에너지를 부여하기 때문에(Radocy & Boyle, 2012), 개인이나 그룹이 지각-운동 활동과 협응적인 대·소 근육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운동반응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Boxill, 1994). 특히, 규칙적인 리듬은 인간의 망상척수로(reticular-spinal track)에 영향을 주어 리듬자극과 근육의 움직임에 동조화를 유도하여 신체 움직임을 돕기 때문에(김수지, 조성래, 오수진, 박은미, 2010) 재활치료적 접근에서 빈번히 사용된다.

화성은 화음이 연결되어 독자적인 모양을 갖춘 것으로(양소영, 윤해린, 김나영, 김명숙, 김동영, 2010), 음악을 더 깊고 풍부하게 만든다(이성천, 197

1). 이 요소는 협화음, 불협화음, 한 화음과 다른 화음과의 관계, 화음과 선율 간의 관계 등을 통해 음악에 짜임새를 제공한다(Boxill, 1994). 화성은 내담자가 노래 부르기와 악기연주를 할 때 즐거운 음악적 경험을 갖게 하고, 표현의 폭을 넓히는 역할을 한다. 뿐만 아니라 불협화음에서 협화음으로 진행되는 화성은 주의집중이 어려운 내담자가 각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Boxill, 1994).

선율은 시간에 음을 위치시킨 것으로(Radocy & Boyle, 2012), 노래에서 선율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의 정서를 표현하는 역할을 한다(윤주리, 정현주, 2019). 선율의 리듬패턴은 기분, 감정, 느낌을 형성하거나 반영하기 때문에(Boxill, 1994) 선율의 특성에 따라 인간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 큰 폭으로 진행되는 선율이나 빠른 진동수의 음으로 연결된 선율에서 인간은 대체로 긴장감과 자극을 경험하고, 느린 진동이나 선율의 폭이 좁고 순차적 일수록 이완을 경험한다(문서란, 2014). 음고의 변화와 선율의 흐름은 인간의 감정뿐만 아니라 신체 움직임의 흐름에 영향을 주고 협응된 방식으로 움직이도록 돕는다. 이는 재활치료적 접근에서 신체가 경직되어 동작 협응이 어려운 뇌성마비 환자를 대상으로 선율을 사용할 때 중요하게 사용된다(Boxill, 1994).

음악과 노래를 구분하는 특징인 가사는 언어와 음악이 결합된 것으로, 언어인 가사의 인지적 특성은 분위기나 정서적 깊이를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비언어적인 음악을 보완한다(Baker, 2015). 노래에서 가사의 인지적인 메시지는 의미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유현정, 2018), 내담자의 심리적 역량에 대한 인지적, 정서적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김지원, 2018). 가사는 주로 사랑, 이별, 행복, 외로움 등과 같이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주제가 사용되며, 이는 시대적 특성을 반영하기도 한다(유현정, 2018). 인간은 때로 자신의 경험에 따라 노래 가사를 다양하게 해석하고, 그 안에서 위

로를 얻으며(Ter Bogt, Vieno, Doornwaard, Pastore, & Eijnden, 2017), 가사를 통해 새로운 시각으로 자신의 상황을 돌아볼 수 있다(Ahmadi, 2011). 음악치료에서 노래 가사는 노래나 찬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목적이나 순간적인 필요에 따라 치료사나 내담자가 즉흥적으로 만들 수 있다(Boxill, 1994).

2) 노래의 치료적 특성

모든 연령대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음악치료에서 노래는 유용한 도구로 사용된다(Baker & Wigram, 2005). 노래는 사람들의 집착을 돕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의사소통을 위한 틀을 제공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사람들은 자신과 삶 사이에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순진이, 2002). 음악치료에서 사용되는 노래는 일반적으로 반복적이고 예측 가능하며 뚜렷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내담자에게 안전함을 느끼도록 하여(김수지, 곽은미, 2009; Kolar-Borsky & Holck, 2014) 음악에 반응하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한다(김수지, 곽은미, 2009). 노래에서 내담자가 선택한 가사는 종종 중요한 소망이나 기억을 반영하므로 치료사는 노래 안에 있는 언어적 메시지를 사용하여 내면의 생각과 감정의 탐구를 증진할 수 있다(Bailey, 1984). 심리치료적 접근에서 노래는 사람들의 감정이나 생각, 가치, 태도, 행동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치료적 변화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자 도구로서 기능한다(Bailey, 1984; Bruscia, 2012). 인간은 자신의 문제, 과거, 현재의 욕망이나 행복, 외로움 등의 감정을 노래로 전달하고, 통찰할 수 있다(Bailey, 1984). 음악심리치료에서 노래를 사용하는 일반적인 목표는 자기이해와 수

용, 자기표현과 감정의 적절한 방출, 삶의 더 큰 의미와 성취, 타인과의 관계개선이다(Bruscia, 2012). 인간은 노래에 담긴 사람, 장소, 감정, 사건, 욕망에 대한 언어적 메시지를 통해 치료 이슈에 접근할 수 있으며, 이때 노래는 문제를 해결하는 매체로 사용되고 치료과정 전체를 통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Bailey, 1984; Bruscia, 2012).

노래는 가사를 표현할 매체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음악과 다른 고유성을 가진다. 가사를 표현하는 매체는 주로 인간의 목소리이다(Bailey, 1984). 인간은 아기 때부터 엄마의 자장가를 듣기에 엄마의 손길과 목소리로 엄마의 존재를 인식하며, 이를 통해 자신이 사랑하는 엄마가 곁에 존재함을 알게 되고 점차 엄마의 목소리를 엄마의 손길 대신으로 인정한다(Montagu, 1986). 목소리를 통해 유아는 엄마의 손길과 같은 따뜻함이나 안정감을 느끼는데 이는 유아가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확장하는데 도움을 준다. 시간이 흘러도 인간은 노래를 통해 따뜻함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으며,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의사소통을 위한 틀로 노래를 활용할 수 있다(Bailey, 1984).

재활치료적 접근에서 노래는 언어 기능 손상의 회복을 돕는 역할을 한다. 노래는 언어와 관련된 생리학적 기제를 공유하기 때문에 매우 유사한 특징을 가진다. 노래의 리듬, 셈여림, 템포, 발음과 같은 음악의 요소가 말하기의 운율적 특성과 유사하여(김주희, 김수지, 2018), 호흡, 발음, 발성, 공명과 관련된 근육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므로 노래를 사용하지 않고 치료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다(Wan, Rüber, Hohmann, & Schlaug, 2010).

말하기와 음악의 신경 회로는 특히 노래하기와 관련하여 부분적으로 중복되거나 분리된다. 노래의 리듬은 좌반구 기능에 의해 통제되고, 노래 부르기에서 음조와 선율패턴은 주로 우반구의 활성화를 보인다(Thaut, 2005). 언어

기능에 손상을 입은 환자는 일반적으로 좌반구 손상을 나타내나, 비교적 우반구의 기능은 보존되어 있다(정옥란, 1993). 언어기능에 손상을 입은 환자를 대상으로 노래의 선율이나 가사를 따라 부르는 활동을 적용하여 우반구를 활성화시키고, 좌반구의 손상을 일부 회복시킬 수 있다. 이를 뇌의 가소성원리에 의한 뇌의 재구조화 현상이라고 하며, 뇌의 재구조화 현상은 뇌손상 환자들이 언어적·신체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공성현, 박정미, 2017).

2. 음악치료에서 노래의 치료적 활용

1) 노래의 치료적 활용

음악치료에서 사용되는 활동은 크게 즉흥적인(improvisational), 재창조적인(re-creative), 작곡(compositional), 수용적인(receptive) 활동 네 가지로 분류되며(Bruscia, 1998a), 그 외 다른 예술매체와 노래를 결합한 활동이 있다(이영혜, 박혜영, 2020; 이현진, 2015; 허혜진, 2010). 즉흥연주는 내담자가 목소리나 악기를 사용하여 즉흥적으로 선율, 리듬, 노래나 악곡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의미한다(Bruscia, 1998a). 개별 치료 상황에서 내담자는 혼자 또는 치료사와 함께 연주하며, 그룹 치료에서는 다른 내담자와 함께 연주하기도 한다(Wheeler, 2016). 즉흥연주는 내담자가 자신을 표현하도록 돕고 타인과의 의사소통을 증진시키며 대인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된다(Bruscia, 1998a).

즉흥 활동에서 노래의 치료적 활용은 토닝(toning), 보컬홀딩(vocal holding), 자유즉흥노래로 나눌 수 있다(Austin, 2008). 토닝 기법은 치료적 의도를 가지고 호흡을 내뿜으며 개방형 모음소리를 흥얼거리듯 내는 활동을 의미하며, 이 기법은 정해진 선율이나 리듬을 사용하지 않고 자유롭게 즉흥적으로 이루어진다(Snow, Bernardi, Sabet-Kassouf, Moran, & Lehmann, 2018). 보컬홀딩 기법은 두 개의 화음으로 이루어진 반주 안에서 치료사와 내담자가 즉흥적으로 노래 부르는 것을 의미한다. 보컬홀딩 기법은 즉흥연주를 두려워하거나 주저하는 내담자에게 반복적인 오스티나토 형식의 반주를 사용하여 지속적이고 안전한 구조를 제공한다. 이는 내담자의 노래 부르기 촉진하고 내담자와 치료사의 관계를 잇는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Austin, 2001). 자유즉흥노래는 Freud의 자유연상 기법에 근거를 두고 시작

되었으며, 내담자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무엇이든지 노래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노래를 통해 떠오르는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며 내담자는 무의식적 심상이나 기억, 연상된 느낌과 접촉하게 된다(Austin, 2008).

재창조 활동은 내담자가 기존의 노래를 배우거나 연주하거나 모델로 삼아 일종의 음악 형태를 재생하는 것을 의미하며(Bruscia, 1998a), 미리 작곡된 노래를 개인의 필요에 맞게 수정하는 활동이 포함된다(Dieringer, Poretta, & Gumm, 2013). 재창조 활동은 감각운동기술을 발달시키고 기억력과 주의 집중력과 같은 인지기능 개선 및 타인과의 교류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된다(Bruscia, 1998a). 재창조 활동에서 노래의 치료적 활용은 노래 연주하기, 노래 부르기로 나눌 수 있다. 노래 연주하기는 노래에 맞춰 악기를 연주하는 것을 의미하며, 노래 부르기는 독창, 중창, 합창 등 기존의 노래를 목소리로 재현하는 것으로 정의된다(Bruscia, 1998a). 재창조 활동은 재활치료적 접근인 치료적 노래 부르기의 기법에서 언어기능에 손상을 입은 환자의 언어 재활을 위해 자주 활용된다.

작곡은 내담자가 노래, 가사나 악곡 등의 음악적 산물(product)을 만드는 일을 돕는 것을 의미한다. 작곡 활동은 내담자의 책임감을 증진시키고 문제 해결 기술 발달과 통찰 능력 향상(Bruscia, 1998a),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된다(O'Callaghan, 1997). Bruscia(1998a)는 작곡을 노래 개사하기, 노래 만들기, 노래 콜라주로 분류하고, 기존 노래의 가사를 부분 또는 전체적으로 바꾸는 것을 노래 개사하기, 치료사의 기술적인 지원을 받아 독창적인 노래나 노래의 일부를 만드는 것을 노래 만들기로 정의했다. 노래 콜라주 기법은 자신의 감정을 확인하거나 분명하게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내담자에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기법으로 내담자가 기존에 있는 노래에서 자신에게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는 단어, 문장을 선택하는 기법이다(Baker & Wigram, 2005).

수용적 활동은 내담자가 음악을 듣고 그 경험을 침묵, 말, 기타 양식으로 반응하는 것을 의미한다(Bruscia, 1998a). 이 활동에서 내담자는 음악을 능동적으로 만들지 않으나 감상한 음악에 관한 대화를 나누거나 박자를 맞추는 등 관찰이 가능한 외적 반응이나 신체적 이완, 떠오르는 기억과 같은 관찰이 어려운 내적 반응을 보이는 감상자의 역할을 맡게 된다(Wheeler, 2016). 사용된 음악은 내담자나 치료사의 라이브 음악이거나 녹음된 즉흥곡, 자작곡, 여러 장르의 음악일 수 있다. 감상 활동은 특히 음악의 지적, 물리적, 미학적, 영적 측면을 강조할 수 있으며 노래 감상에 대한 내담자의 반응은 내담자의 경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감상 활동은 긴장을 이완시키고 정서적 경험을 유발하며 기억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용된다(Bruscia, 1998a).

수용적 활동에서 노래의 치료적 활용은 노래 토의, 노래 감상, 노래 대화, 유도된 노래 회상, 노래 회상 기법으로 나눌 수 있다(Bruscia, 1998a). 노래 토의는 치료적으로 연관되어 토의할 수 있는 노래를 내담자가 선곡하고, 감상한 후 가사의 의미를 살펴보는 활동이다. 노래 토의는 가사의 의미가 자신의 삶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검토하는 질문을 치료사 또는 다른 그룹 구성원과 나누며 삶에 대한 통찰을 발견할 수 있다(Bruscia, 1998a). 노래 감상은 노래를 듣는 것을 의미하며, 노래 대화는 자신을 가장 잘 표현하고 나타낼 수 있는 노래를 선택하여 노래를 듣고, 내담자의 삶이나 치료적 이슈에 대해 노래가 전달한 것이 무엇인지 내담자와 탐색하는 것을 의미한다(Bruscia, 1998a; Bruscia, 1998b). 유도된 노래 회상은 치료 과정 중 특별한 주제나 이슈와 관련하여 떠오르는 노래에 대해 회상하는 것으로 정의된다(Bruscia, 1998b). 노래 회상은 내담자의 지나간 삶의 사건이나 경험을 재경험 하기 위해 음악을 감상하는 것이다(Bruscia, 1998a).

다른 예술매체와 노래를 결합한 활동에서 노래는 주로 연극, 영상, 미술과

결합된다. 음악극은 연극과 노래를 결합한 것으로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노래활동을 의미하며(이영혜, 박혜영, 2020), 치료적 뮤직비디오 만들기는 영상과 노래를 결합한 것으로 치료사와 내담자가 노래를 만들고 뮤직비디오를 제작하는 활동을 의미한다(Robb & Ebberts, 2003). 노래 그림 그리기는 미술과 노래를 결합한 것으로 말로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내담자에게 효과적으로 사용된다(양지혜, 2014).

2) 음악치료 선행연구

지금까지 수행된 연구에 나타난 노래의 치료적 활용은 심리치료적 접근과 재활치료적 접근으로 구분할 수 있다. 노래 연주하기, 노래 즉흥연주, 유도된 노래 회상 등의 심리치료적 접근과 선율억양치료, 음악적 말하기 자극, 치료적 노래 부르기 등의 재활치료적 접근은 대상자의 필요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되었으며 결과를 통해 노래의 치료적 활용 효과를 입증하였다.

심리치료적 접근에서 즉흥 활동은 음대생의 연주불안 감소(송지애, 2009)와 음악치료 전공생의 자기역량(정우진, 2013)에 긍정적 효과가 있음이 보고되었다. 재창조 활동은 장애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기술(황선경, 2017), 작곡 활동은 고등학교 특수학급 청소년(윤다솔, 순진이, 2016)과 인공와우 이식 청소년의 자기표현(윤예은, 2018), 학교 부적응 청소년의 적응유연성(김지원, 2018) 향상에 효과가 있음을 입증되었다. 감상 활동은 뇌졸중 환자의 우울 감소와 재활동기(정용라, 2015)를 향상시키고, 입원아동의 주사불안을 감소시켜 심리적 안정에 효과적임이 보고되었다(정진희, 2004).

재활치료적 접근에서는 김주희와 김수지(2018)가 치료적 노래 부르기가

두경부암 환자의 음성기능 및 조음기관 운동성 향상에 효과적임을 보고하여 재창조 활동의 효과를 입증하였다. 작곡 활동은 홍도경(2005)이 실어증을 가진 뇌졸중 노인의 언어적 재활에 선율억양치료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밝혔다. 또한 공성현과 박정미(2017)는 음악적 말하기 자극이 비유창성 실어증환자의 문장 구사력 향상에 효과적이며, 뇌의 잔존영역을 활성화시키는데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여 재활치료적 접근에서 작곡 활동의 치료적 효과를 입증하였다.

연극, 영상, 미술 등 다른 예술매체와 노래를 결합한 중재도 다양한 목적으로 대상자에게 활용된다. 노래와 예술 활동을 결합한 중재는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또래 관계기술(허혜진, 2010)이나 자아존중감, 자기표현과 사회성(배성진, 김경숙, 2020), 장애아동의 비장애 형제자매의 자아존중감(이현진, 2015) 향상에도 효과적임이 보고되어 다른 예술매체와 노래를 결합한 중재의 치료적 효과가 입증되었다.

3. 노래의 치료적 활용 분석

선행연구를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이전의 연구를 요약하고, 전반적인 결론을 도출하며, 현존하는 문헌에서 아직 다루지 않은 문제를 강조함으로써 미래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하기에 중요하다(Cooper, 1998). 이론과 임상 실제, 연구의 3요소가 중요하게 강조되는 음악치료(Bruscia, 1998a)에서 선행연구의 체계적 검토는 연구자이자 임상가로서 음악치료사에게 좋은 자원으로 기능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음악치료의 분석연구는 동향분석(김영신, 박지은, 2011; 김영신, 고명한, 박지은, 2011; 조현아, 2013)과 특정 목적이나 대상을 위해 실시된 연구에 대한 분석(조아람, 김영신, 2015; 조연진, 2013)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음악치료 연구에서 음악의 치료적 활용에 대한 분석은 주로 중재목적(이성경, 김지혜, 2018; 이승인, 2018)이나 대상(김지현, 2019; 이성경, 김지혜, 2018; 이예빛나, 김수지, 2016)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승인(2018)은 국내·외 호흡재활을 위한 음악치료 연구에서 활용된 음악활동을 노래 부르기, 감상, 연주, 복합 활동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노래 부르기 활동이 호흡재활을 위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성경과 김지혜(2018)는 학술지에 게재된 국내 여성을 대상으로 심리정서 지원을 위한 음악치료 연구를 분석하여 노래 중심 활동, 연주, 감상, 창작 활동 중 노래 중심 활동이 가장 높은 비중(74%)을 차지한다고 보고하였다. 이예빛나와 김수지(2016)는 국내·외 노인을 대상으로 음악의 치료적 활용에 대해 분석한 결과 국내 연구에서는 민요와 대중가요를 활용한 노래 부르기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을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음악의 장르나 악기연주, 노래 부르기, 음악 감상과 같은 음악활동이 이루어지는 현황만을 다루고 있어 음악이 아닌 노래의 치료적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는 어려운 실

정이다.

노래의 치료적 활용을 분석한 음악치료 연구는 특정 음악장르를 활용한 연구(박소영, 황은영, 2013; 정혜원, 2014)나 특정 대상에게 사용된 활동에 대한 분석(이찬미, 2018)연구가 주로 이루어져 전반적인 대상의 연령 및 임상적 특성, 중재목적에 따른 노래의 치료적 활용을 파악하기 어렵다. 박소영과 황은영(2013)은 국내 전통음악을 활용한 음악연구를 분석하여 전래동요가 가장 많이 활용되었음을 밝혔다. 정혜원(2014)은 국악을 활용한 음악치료 연구에 대해 분석하여 국악이 재창조 음악경험에 가장 많이 사용(65%)되었으며, 중재목적으로는 행동, 정서, 사회성 등의 행동주의적 외적변화를 목적으로 활용한 연구가 높은 비중(62%)을 차지함을 밝혔다. 이찬미(2018)는 국내 발달장애 아동의 언어기능 향상을 목적으로 한 노래 부르기 활동 연구를 분석한 결과 노래 부르며 몸동작하기 활동이 수용언어 향상을 목적으로 많이 사용되었으며, 문답형 노래 부르기 활동은 표현언어 향상을 목적으로 자주 사용되었다고 보고했다.

연구대상 및 중재목적에 따른 노래 활용의 특징과 노래 활용 형태에 관한 노래의 활용 분석연구도 이루어졌다. 임단비(2017)는 국내 전문 학술지에 게재된 노래의 치료적 활용에 대해 분석한 결과 노래는 성인을 대상으로 가장 많이 활용(28%)되었으며, 노래 부르거나 노래 연주와 같은 표현적 노래활동이 높은 비중을 차지함을 밝혔다. 그러나, 임단비(2017)의 연구는 연구대상과 연구 목적별 노래활동의 전반적인 특성을 분석하였으나 분석기준의 내용 타당도를 검증하지 않고, 자료 분석의 신뢰도를 확보하지 않았다는 제한점을 가진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논문의 선정 및 수집

본 연구는 음악치료 연구에 나타난 노래의 치료적 활용을 분석하기 위해 노래를 활용한 연구의 연구대상과 연구유형을 알아보고, 연구를 위해 시행된 음악치료의 중재목적, 중재 회기구성, 노래활동을 살펴보는 동시에 활용된 노래자료의 노래장르, 가사주제를 분석하였다. 분석 자료는 대학교 학위 과정에 준하는 교육을 제공하는 국내 20여개의 교육기관 중 (사)전국음악치료사협회가 교과과정을 검증하고 협약을 맺은 가천대학교, 고신대학교, 대구예술대학교, 동아대학교, 명지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수원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인제대학교, 전주대학교, 침례신학대학교, 평택대학교, 한세대학교, 한양대학교 대학원 등 총 15개의 학교에서 1999년 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발표된 음악치료 전공 석사학위 논문에서 수집하였다. 이 가운데 학사과정만 설치되어 있는 대구예술대학교, 침례신학대학교와 2019년 학과 개설로 아직 졸업생이 배출되지 않은 한양대학교를 제외하였으며, 한 학교에 여러 전공이 개설된 경우에는 하나의 소속으로 간주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을 위해 온라인 검색 데이터베이스인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와 국회도서관 온라인사이트에 석사학위 논문으로 등록된 자료들을 대상으로 '음악치료'를 입력한 후 '노래', '가창', '합창', '밴드', '음악극', '동요', '랩', 'CCM', '찬송가', '기독교음악', '종교음악', '불교음악', '찬불가', '민요', '대중음악', '클래식', '판소리', '찬트', '회상', '자서전', '놀이극'의 검색어를 조합하여 1차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후, 다양한 연구를 포함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노래 부르기', '노래심리치료', '성악심리치료', '목소리즉흥', '노래 만들기', '송라이팅', '감상', '음악콜라주', '음악적 말하기 자극', '선

음악치료’를 국문과 영문으로 검색하였다. 초기 검색을 통해 총 2,956개의 음악치료 석사학위 논문이 검색되었으며, 그 중에서 음악치료 전공이 아닌 연구 1,042편, 검색어가 중복되어 검색된 연구 572편, 원문을 볼 수 없는 연구 64편 등 총 1,678편을 제외하였다.

1차 선별 결과 1,278편의 석사학위 논문이 해당되었으나, 2차 검토를 통하여 선별기준에 맞지 않는 논문 총 1,028편이 제외되었다. 그 결과 음악치료 석사학위 논문 총 250편이 최종 분석 자료에 해당되었다. 본 연구의 선별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자료수집 및 분석대상 논문의 선정절차는 [그림Ⅲ-1]과 같다.

- (1) 음악치료 전공자의 석사학위 논문일 것(석사학위 과제 제외)
- (2) 검색어가 중복되지 않는 논문일 것
- (3) RISS나 국회도서관에서 원문을 볼 수 있을 것
- (4) 실제 중재가 이루어졌으며, 사용된 노래자료가 명시되어 있을 것.
- (5) 제목에 ‘노래’, ‘노래 부르기’, ‘찬트’, ‘민요’, ‘랩’, ‘음악극’ 등 노래를 활용했음을 알 수 있는 키워드가 명시된 논문일 것.
- (6) 감상이나 회상, 음악극, 놀이극의 경우 가사가 있는 노래가 포함될 것.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이용
: RISS, 국회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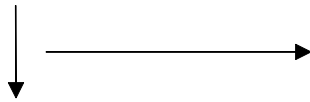
키워드: 음악치료, 노래, 가창, 합창, 밴드, 음악극, 동요, 랩, CCM, 찬송가, 기독교음악, 종교음악, 불교음악, 찬불가, 민요, 대중음악, 클래식, 판소리, 찬트, 회상, 자서전, 노래 부르기, 노래심리치료, 성악심리치료, 목소리즉흥, 노래 만들기, 송라이팅, 감상, 음악콜라주, 음악적 말하기 자극, 선율억양치료, 놀이극



검색 결과

석사학위 논문 총 2,956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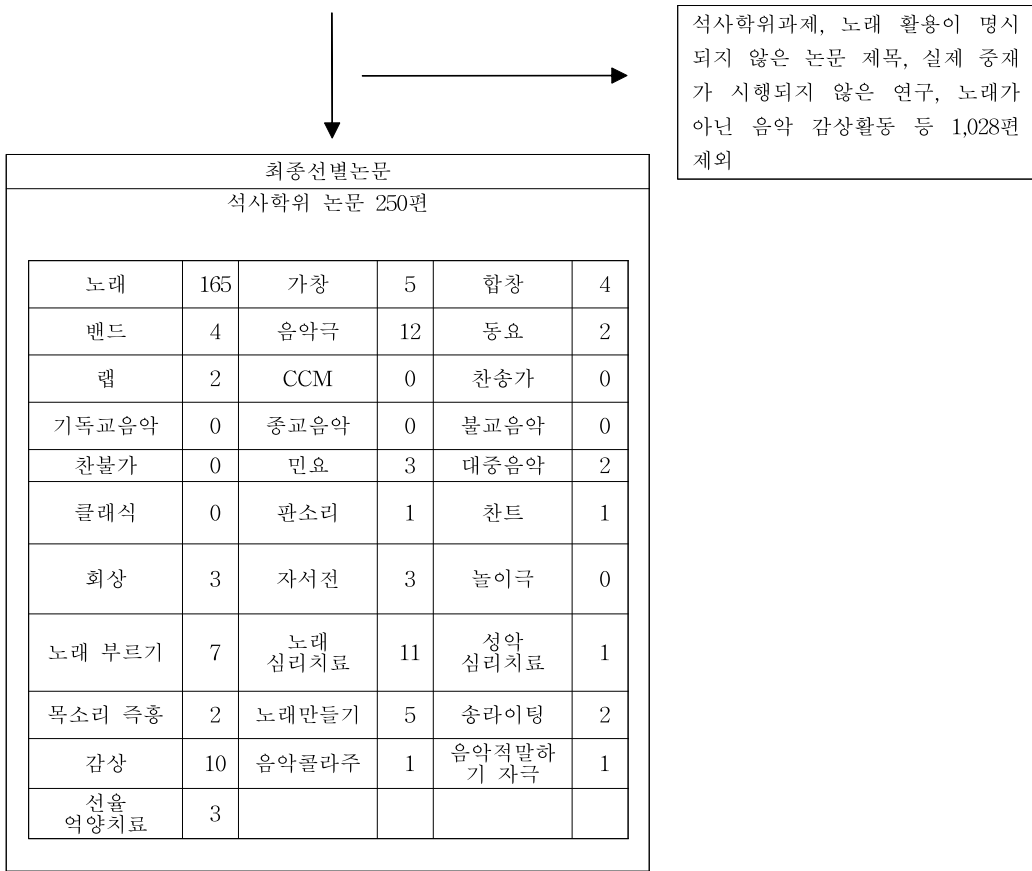
비전공/검색어 중복 자료
원문 없음
1,678편



1차 분류

석사학위 논문 1,278편

노래	494	가창	37	합창	12
밴드	9	음악극	135	동요	25
랩	5	CCM	3	찬송가	2
기독교음악	2	종교음악	8	불교음악	0
찬불가	0	민요	11	대중음악	42
클래식	2	판소리	2	찬트	4
회상	31	자서전	5	놀이극	2
노래 부르기	136	노래 심리치료	104	성악 심리치료	8
목소리 즉흥	6	노래 만들기	61	송라이팅	39
감상	80	음악콜라주	3	음악적 말하기 자극	3
선율 억양치료	7				



[그림 III-1] 자료수집 및 분석 자료의 선정절차

2. 자료 분석 절차

본 연구는 음악치료 연구에 나타난 노래의 치료적 활용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1) 분석틀 고안

연구자는 선행된 음악치료 분석연구에서 사용된 분석항목과 분류기준에 대한 이론적 기반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 적절한 분석항목과 분류기준을 고안하였다. 이어 분석 자료에서 도출된 연구대상, 연구유형, 연구 내용, 중재 방법을 연구대상, 연구유형, 중재목적, 중재 회기구성, 노래장르, 가사주제, 노래활동으로 범주화하여 분류하였다. 분석항목의 선정 및 분류의 기준은 국내 음악치료 관련 분석연구(김경숙, 이상은, 2016; 황은영, 박소연, 2012)에서 사용한 분석틀을 바탕으로 고안하였으며, 음악치료 전문가에게 내용 타당도를 검증받아 분석틀을 완성하였다.

2) 분석기준 선정

(1) 연구대상

연구대상군은 보통 대상의 특성과 연령, 진단명에 따라 분석된다. 연구대상의 연령별 분류는 일반적으로 영유아기(1-4세), 아동기(5-12세), 청소년기(13-24세), 성인기(25-60세), 노년기(61세 이상)로 구분되고 있으며(정은, 2010), 연구에 따라 기준 연령은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장휘숙(2013)은 대상군의 연령 및 발달단계별 분류를 영아(만0-2세), 유아(만3-6세), 아동(만7-12세), 청소년(만13-18세), 청년(만19-24세), 성인(만25-64세), 노인(만65세 이상)으로 분류하였

으며, 하위범주로 성인기를 다시 성인초기(만25-44세), 성인중기(만45-64세), 성인후기(만65-84세), 성인후기의 후기(만85세 이후)로 연령별 분류를 세부적으로 범주화하였다. 음악치료 분석연구의 연령별 분석은 대체로 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으로 범주화하여(조현아, 2013; 황은영, 박소연, 2012)수행되고 있으며, 김경숙과 이상은(2016)은 영아와 유아를 아동에 포함시켜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으로 범주화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음악치료 선행연구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비중이 높음을 확인하고(김경숙, 이상은, 2016; 임진석, 2007; 조현아, 2013), 보다 세부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장휘숙(2013)의 분류를 참고하여 영아(만0-2세), 유아(만3-6세), 아동(만7-12세), 청소년(만13-18세), 성인초기(만19-44세), 성인중기(만45-64세), 성인후기(만65세 이상)로 연구대상을 연령별로 범주화하여 분석하였다.

음악치료 분석연구에서 연구대상군은 연령과 더불어 진단명 또는 임상적 특성에 대한 분석도 시행된다. 황은영과 박소연(2012)은 연구대상군의 진단 특성을 진단 및 통계편람을 기준으로 장애 진단을 받은 장애군, 의학적 진단을 받지 않은 비장애군, 입원환자들과 암환자, 말기환자와 같은 환자군으로 분류하였다. 송혜나(2018)는 음악치료 연구의 대상군을 장애 대상, 비장애 대상, 의학적 진단 대상군으로 범주화하고 장애 대상은 미국정신의학회(2013)의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편람(DSM-V)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기준으로 신경발달장애, 정신장애, 정서행동장애, 신체장애, 신경인지장애, 중독 장애로 범주화하여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군의 진단특성을 선행연구에서 보편적으로 분류하는 기준인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편람(DSM-5)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021. 04. 21. 법률 제17494호)을 기준으로 장애 진단을 받은 장애군, 의학적 진단을 받지 않은 비장애군, 의료 서비스 이용대상자인 환자군으로 분류하고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연구대상군의 임상적 특성을 분류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2) 연구유형

연구유형은 일반적으로 양적 연구, 질적 연구 외에도 실용적 관점에서 출발한 비교적 새로운 연구인 혼합 연구로 분류된다(Wheeler, 2016). 음악치료 분석연구(김경숙, 이상은, 2016; 이성경, 김지혜, 2018) 뿐만 아니라 음악 외 예술치료 영역(김미경, 이에스더, 2016; 이영은, 박은선, 2019)이나 상담영역(김계원, 정종진, 권희영, 이윤주, 김춘경, 2011)에서도 연구유형은 크게 양적 연구, 질적 연구, 혼합 연구로 분류된다.

음악치료 분석연구에서 연구유형을 분류하는 기준은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차이가 있다. 김경숙과 이상은(2016)은 음악치료 전문 학술지의 동향을 분석하는 연구에서 연구유형을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혼합 연구로 분류하고, 양적 연구를 다시 실험연구와 기술연구로 분류하였다. 실험연구에는 집단실험연구와 단일대상연구를 포함시켰으며, 기술연구에는 조사연구, 문헌연구, 개발연구를 포함시켰다. 질적 연구는 현상학, 근거이론, 사례연구와 역사연구, 철학연구로 분류하였으며, 혼합 연구는 양적·질적 연구가 이루어진 연구로 범주화하였다. 조현아(2013)는 국내 음악치료 전문 학술지 동향 분석연구에서 연구방법을 양적 연구, 질적 연구, 통합적 연구로 분류하였으며, 연구유형을 실험연구, 기술연구, 역사연구, 철학연구, 개발연구로 분류하여 음악치료 전문 학술지 간 연구유형 현황 및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보편적으로 분류하는 유형에 따라 연구유형을 양적 연구, 질적 연구, 혼합 연구로 분류하고자 하며 분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양적 연구

양적 연구는 크게 기술연구와 실험연구로 분류된다(Wheeler, 2016). 기술연구는 관계나 연관성을 조사하기보다는 서술에 중점을 둔 연구로 상황, 문제, 현상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며(Kumar, 2010), 상관연구, 개발

연구, 조사연구 등으로 분류되고(Williams, 2007), 실험연구는 비교집단 유무에 따라 단일대상연구와 집단실험연구로 분류될 수 있다(국립특수교육원, 2009). 단일대상연구는 집단실험연구와 마찬가지로 대상자의 반응 변화가 개입된 중재의 결과임을 확인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으나 집단실험연구와 달리 각 개인에게 일어난 일을 구체적으로 기술함으로써 결과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Neuman & McCormick, 1995).

본 연구에서는 현장에서 직접 노래를 활용한 음악치료 중재 연구가 분석대상이므로 음악치료 중재를 시행하지 않고 현상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목적을 가진 기술연구는 분류대상에서 제외하고, 비교집단 유무에 따라 실험연구를 단일대상과 집단비교로 분류하였다. 단일대상 실험연구는 비교집단 없이 단일 집단의 중재 후 사후 결과만을 분석하거나 사전·사후 결과를 비교 분석한 연구로 정의하고,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나누어 진행된 연구 중 사후결과만을 분석하거나 사전·사후 차이를 분석한 연구를 집단비교 실험연구로 분류하였다.

② 질적 연구

질적 연구는 사례연구, 현상학 연구, 민족학 연구, 근거이론 연구, 질적 내용 분석 등 크게 5가지로 분류된다(Williams, 2007). 본 연구에서는 음악치료 연구에서 아직 수행되지 않은 민족학 연구를 제외하고 질적 연구를 질적 사례연구, 현상학 연구, 근거이론 연구, 질적 내용분석연구로 분류하고자 한다. 질적 사례연구는 관찰, 면담, 문서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개인을 심층적으로 탐구하고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연구로 교육, 심리학, 정치학, 지역사회 계획 및 경제 분야에서 널리 사용된다(Ellinger, Watkins & Marsick, 2005). 사례연구는 보통 질적 자료만을 사용한 경우가 대부분이나 연구에 따라 양적 자료를 함께 혼합하여 사용하기도 하므로(Yin, 2003), 본 연구에서는 질적 자료만을

사용한 경우를 질적 사례연구로 정의하여 분류하고자 한다.

③ 혼합 연구

혼합 연구는 음악치료에서 자료가 부족하여 연구 문제를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연구자가 결과와 함께 과정이나 경험을 조사하기를 원할 때 주로 사용된다. 혼합 연구는 한 가지 연구만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연구문제를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장점을 결합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시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Bradt, Burns, & Creswell, 2013). 김영신, 고명환과 박지은(2011)은 음악치료 사례연구의 동향을 분석한 연구에서 질적 분석과 양적 분석을 동반한 혼합 분석이 국내 음악치료 연구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을 밝혔다. 또한 김영신과 박지은(2011)은 음악치료 질적 연구의 동향을 분석한 연구에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통합한 연구가 가장 많이 수행된 것으로 보고했으며, 질적 연구가 수행된 초기에는 통합연구가 주로 사용되었으나 2004년 이후부터 점차 다양한 연구 설계가 시도되고 있음을 보고했다. 본 연구에서는 혼합 방법을 사용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다양한 연구 설계가 시도된다는 선행연구(김영신, 박지은, 2011)의 결과에 따라 질적 사례연구와 혼합 사례연구를 구분하여 양적 자료와 질적 자료가 모두 포함된 음악치료 혼합 사례연구를 혼합 연구로 정의하여 분류하였다.

(3) 중재목적

중재목적은 일반적으로 인간의 발달영역에 따라 신체, 언어, 정서, 사회, 인지 영역으로 분류되나(김지현, 2019; Davis, Gfeller & Thaut, 2008), 음악치료 연구에서는 음악을 중재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에 음악적 기술을 중재목적의 하위 영역으로 포함시켜 분류하고 있다(이상은, 김경숙, 2015; Baxter, 2007; Boxill, 1994). 이상은과 김경숙(2015)은 중재목적 분석하기 위해 Davis, Gfeller와 Thaut(2008)가 제시한 중재목적 영역에 음악 영역과 아동의 전반적 발달 진단에 대한 영역을 포함하여 사회, 심리·정서, 인지, 신체, 의사소통, 음악, 전반적 발달진단 영역 총 7가지 영역으로 범주화하였다. 일부 선행 연구(김경숙, 이상은, 2016; 황은영, 박소연, 2012)에서는 중재목적 발달영역에 따라 분류하기보다 분석대상 논문에서 다루어진 구체적 변인을 기록한 후 범주화하여 분석하는 방식으로 분류하였다.

분석대상 연구에서 도출된 중재변인을 범주화한 김경숙과 이상은(2016)은 중재목적을 사회, 신체, 정서, 언어, 인지, 음악, 기타 영역으로 분류하여 선호도, 인식도, 진단 등이 포함된 기타 영역을 제외하고는 인간의 발달영역과 비슷한 분류기준을 고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노래를 치료적으로 활용한 음악치료 중재가 실질적으로 적용된 연구만이 분석대상이므로 기타영역을 제외하고, 음악치료의 보편적 진단평가(global assessment) 도구의 평가영역(Boxill, 1994)을 참고하여 음악치료 중재의 목적영역을 신체, 언어, 정서, 사회, 인지, 음악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신체영역은 피로수준이나 대·소 운동 협응, 시각·청각·촉각과 같은 감각운동정보로 범주화하였으며, 정서영역은 느낌, 우울, 충동성 등 감정이나 심리·정서적인 내용을 포함한다. 언어영역에서는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기술, 의사소통을 포함하며 사회영역은 타인 인식이나 상호교류 기술과 같이 대인관계 기술을 뜻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음악영역은 음악적 요소를 지각하거나 구별하기, 노래기술 등 음악적 능력을 향상으로 하는

내용으로 정의하여 분류하였다.

(4) 중재 회기구성

중재 회기구성은 세션 형태와 중재 회기 수, 회기 소요시간을 포함한다. 조아람과 김영신(2015)은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한 음악치료 분석연구의 중재 회기 수를 1-10회기, 11-19회기, 20회기 이상을 기준으로 분류하였으며, 회기 소요시간은 40분 미만과 40분 이상으로 구분하고, 회기 수는 11-19회기, 회기 소요시간은 40분 이상의 중재 음악치료 연구가 주를 이룬다고 보고했다. 주은혜와 문지영(2018)은 중독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음악치료 분석연구의 중재 회기 수를 가장 많이 나타난 회기 수인 12회기와 8회기를 기준으로 1-7회기, 8-12회기, 13회기이상으로 분류하였으며, 회기 소요시간은 가장 많이 나타난 소요시간인 50분과 60분을 기준으로 50분 미만, 50분-60분, 60분 초과, 명시되지 않음으로 분류하였다. 박소영과 황은영(2013)은 국내 전통음악의 치료적 효과에 대한 분석연구의 중재 회기 수를 1-10회기, 11-15회기, 16-20회기, 21회기 이상으로 분류하여 음악치료 회기가 많이 이루어지는 범주인 11-19회기를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정아영과 박혜영(2019)은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한 음악치료 연구 분석에서 세션형태를 개별과 그룹으로 분류하여 분석했으며, 그룹 형태의 중재가 많음을 보고했다.

본 연구에서는 음악치료 세션형태와 중재 회기 수, 회기 소요시간에 따라 중재 회기구성을 세부적으로 분류하였다. 세션형태는 음악치료 분석 선행연구에서 그룹 형태의 중재 비중이 높다는 점을 참고하여 그룹 형태를 세부적으로 분류하기 위해 개별, 소그룹(2-5명), 대그룹(6명 이상)으로 분류하였다. 중재 회기 수는 선행연구에서 11-19회기의 음악치료 중재가 가장 비중이 높다는 점과 11-19회기를 세부적으로 분류해야 할 필요에 따라서 1-10회기, 11-15회기, 16-20회기, 21회기 이상으로 분류하였다. 회기 소요시간은 40분 이상의 회기가

주를 이룬다는 선행연구를 참고하고, 40분 이상의 세션을 세부적으로 분류해야 할 필요에 따라서 40분 미만, 40-60분 미만, 60-90분 미만, 90분 이상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5) 노래장르

노래장르에 대한 분류는 각 연구에서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다소 상이하게 분류된다. 음악의 장르는 일반적으로 발라드, 댄스/일렉트로, 힙합/랩, 록, 트로트, 포크, 알앤비/소울로 분류되며, 그 외에도 동요, 클래식, 재즈, CCM, 블루스 등 다양하게 분류된다(신사임 외, 2014). 차지연과 문지영(2015)은 우울 감소를 위한 음악치료 분석연구에서 사용된 음악 장르를 가요, 국악, 클래식, 기타로 분류하였으며, 가요 장르가 대상자에게 많이 활용되고 있음을 보고했다. 이에빛나와 김수지(2016)는 국내·외 노인 대상 음악 활용 분석연구에서 음악 장르를 대중가요, 민요, 클래식, 동요, 뉴에이지(New age), 종교음악 등으로 분류하였으며 민요와 대중가요 음악을 활용한 중재가 많음을 보고했다. 권유진(2019)은 노래심리치료를 위해 대중가요의 주제와 의미를 분석한 연구에서 한국 대중가요를 발라드, 알앤비, 댄스, 록, 포크, 트로트, 힙합, 일렉트로닉 음악, 후크 송(Hook song) 등으로 분류하였다.

대중가요가 음악치료 중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며, 여러 장르로 분류된다는 선행연구(권유진, 2019)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는 대중가요를 발라드, 댄스, 록, 트로트, 힙합 총 5개의 하위영역으로 분류하였다. 그 외 분석연구대상이 영유아기부터 성인후기에 이르는 전연령대 내담자임을 고려하여 장르의 폭을 다양하게 구분할 필요에 따라 동요, 민요, CCM, 그 외 장르로 분류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가사가 있는 노래를 활용한 연구이므로 클래식이나 뉴에이지 장르를 제외하였고, 내담자와 함께 음악을 만드는 경험이 빈번한 음악치료의 특수성을 고려해 창작곡을 분석기준에 추가하여 분류하였다.

(6) 가사주제

대중가요에서 노래의 가사주제는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거나 주로 남녀 간의 애정관계를 다룬 주제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권유진, 2019; 순진이, 2002). 순진이(2002)는 노래심리치료를 위한 한국 대중가요의 내용분석연구에서 가사주제를 남녀 간의 애정관계, 대인관계, 주제가 있는 노래, 묘사적인 노래, 기타로 분류하였으며, 남녀 간의 애정관계는 다시 사랑과 이별로 분류하고, 대인관계는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 형제·자매, 친구·동료, 부부로 분류하였다. 주제가 있는 노래는 향수, 분단·전쟁·애국심, 유랑·나그네, 삶의 경험·인생철학, 신세한탄·탄식, 격려·희망, 젊음·청춘, 유희·도피, 세월, 기념일, 개성, 현실비판·변화요구, 힙합(hip-hop)으로 분류하여 가사주제를 보다 상세히 분석하였다. 권유진(2019)은 대중가요의 주제 및 사회 심리적 의미 분석연구에서 가사주제를 애정관계, 비애정관계, 사회, 기타 주제 등 4개 범주로 나누어 분류하였으며, 애정관계 주제는 다시 애정진행단계와 애정종결단계로 분류하고, 비애정관계 주제는 다시 개인 심리와 대인관계로 분류하였다. 손은주(2017)는 동요 가사의 문학적 특징을 분석한 연구에서 생활 주제를 기준으로 동요 가사를 유치원과 친구, 동식물/자연, 건강/안전, 나와 가족, 생활도구, 환경/생활, 계절 등으로 분류하였으며, 놀이유형별 소재를 기준으로 언어놀이 노래, 동작놀이 노래, 대상놀이 노래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중가요의 가사주제가 애정관계, 비애정관계, 사회, 기타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선행연구(권유진, 2019)를 참고하여 애정관계, 비애정관계, 사회를 분석기준으로 구분하였으며, 동요장르의 가사주제를 분류하기 위해 생활 주제 영역을 추가하였다. 애정관계의 하위범주는 애정진행단계와 애정 종결단계를 구분하였으며, 하위범주의 주제는 권유진(2019)의 연구에서 빈도가 높은 주제를 참고하여 애정진행단계는 사랑, 짝사랑, 유혹, 일상적 에피소드로 분류하고, 애정종결단계는 이별, 슬픔/아픔, 애원, 기다림, 그리

음/추억, 후회/미련으로 구분하였다. 비애정관계도 선행연구의 빈도수를 참고하여 자기표현, 자기애, 위로/지지, 삶의 회상, 꿈/미래, 쾌락/즐거움으로 분류하였으며, 대인관계는 가족, 친구/동료/이웃으로 구분하였다. 사회 범주는 선행연구(권유진, 2019) 결과를 참고하여 격려/희망, 현실/사회 비판으로 구분하였으며, 회상과 관련된 음악치료 중재에서 활용될 수 있는 향수/회상에 관한 주제를 추가하였다. 생활 주제는 손은주(2017)의 연구 결과를 참고하여 계절, 동식물/자연, 건강/안전, 사물, 신체/동작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가요와 동요 외에도 여러 장르가 분석대상 연구에 활용되었으므로 CCM장르의 종교적인 주제를 가진 가사와 창작곡에서 나올 수 있는 다양한 주제의 가사는 그 외 범주로 분류하였다.

(7) 노래활동

노래활동은 음악치료 접근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된다. 대표적으로 Bruscia(1998a)는 활동 방법에 따라 음악치료 노래활동을 수용적 활동, 즉흥 활동, 재창조 활동, 작곡 활동으로 분류하고 각 활동에 포함되는 세부 기법을 설명하였으며, 노래심리치료 접근에서 활용되는 노래활동을 노래 연주하기, 노래 즉흥 연주하기, 유도된 노래 회상하기, 노래 교류하기, 노래 만들기 등으로 분류하였다(Bruscia, 1998b). Austin(2008)은 즉흥 노래 접근을 토닝, 보컬홀딩, 자유 즉흥노래로 분류하였다. 음악치료 분석연구에서는 정아영과 박혜영(2019)이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적용된 음악활동을 노래 중심 활동, 연주, 창작, 감상, 기타 활동으로 분류하였으며, 감상, 노래 중심 활동, 연주 순으로 높은 비중의 중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밝혔다. 이성경과 김지혜(2018)는 학술지에 게재된 국내 여성의 심리정서 지원을 위한 음악치료 논문을 분석한 연구에서 음악활동을 노래 중심 활동, 연주, 감상, 창작 활동으로 분류하였다.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중재활동을 음악활동과 다른 예술매체와 노래를 결합한 활동으로 구분하였으

며, 다른 예술매체와 노래를 결합한 활동도 연구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했다(박소영, 황은영, 2013; 임진석, 2007).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노래활동을 분석기준에 포함하고자 음악치료 중재활동 방법에 따라 분류한 Bruscia(1998a)의 연구를 참고하여 수용적 노래활동, 즉흥 노래활동, 재창조 노래활동, 작곡 활동으로 분류하였다. 즉흥 노래활동을 제외하고, 각 중재방법의 하위범주는 Bruscia(1998a, 1998b)의 기준에 따라 분류하였으며, 즉흥 노래활동은 보다 구체적인 분석을 위해 Austin(2008)의 연구를 참고하여 분류하였다. 또한 다른 예술 매체와 노래를 결합한 활동이 선행연구에서 자주 사용된다는 결과(박소영, 황은영, 2013; 임진석, 2007)에 따라 미술, 음악극, 뮤직비디오 만들기 등을 포함하는 다른 예술 매체와 노래를 결합한 활동 또한 노래활동 범주로 분류하였다.

3) 전문가 내용 타당도 검증

고안된 분석틀 및 분석항목과 분류기준의 내용 적합성을 검증받기 위해 2020년 10월 8일과 9일에 걸쳐 전문가 3인에게 내용 타당도 검증을 위한 설문지 평가를 의뢰하였다. 위촉된 음악치료 전문가는 모두 박사학위 소지자이며, 평균 임상경력 20년 이상의 음악치료사와 음악치료 전공교수로 구성되었다. 설문지는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분석틀이 음악치료에서 노래의 치료적 활용을 살펴보기 위해 적합하게 제작되었는지 확인하고자 분석항목 및 분류기준의 적절성과 분류의 이론적 근거에 초점을 맞추어 평가하도록 구성되었다. 구체적 내용은 각 분석항목별 양적 체크리스트와 분류내용의 질적 평가로 구성되었으며, 양적 체크리스트는 1-5점 Likert척도를 사용하여 1번 매우 부적합, 2번 부적합, 3번 보통, 4번 적합, 5번 매우 적합으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전문가의 평가를 바탕으로 분석항목과 분류기준의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최종 분석틀을 완성했으며, 이를 통해 노래를 치료적으로 활용한

음악치료 석사학위 논문 250편의 분석 작업이 진행되었다. 전문가 내용 타당도 검증과정에서 시행된 분석들의 평가와 수정내용은 <표 III-1>과 같다.

(1) 연구대상

① 연구대상군의 연령

<표 III-1> 연구대상군의 연령 평가

연구대상군의 연령별 분류기준이 적합합니까?		
평가자	양적 평가	질적 평가
전문가 A	4.0	연령별 구분의 기준을 나타내야 함
전문가 B	5.0	적절하게 분류하였음
전문가 C	5.0	노인 범주를 성인후기로 용어를 변경하거나 노인 범주를 성인후기와 노인으로 나누어 세부적인 분류를 고려
수정내용		1. 노인 범주를 성인후기로 용어 변경 2. 연령별 분류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함

연구대상군의 연령별 분류기준의 적절성에 대해 전문가들은 평균 4.6점으로 평가했으며, 질적 평가는 다음과 같다. 전문가 A는 연구대상군의 연령별 구분 기준이 필요하다고 평가하였으며, 전문가 C는 성인기가 성인초기와 성인중기로 명명된 범주의 명칭을 고려할 때 노년기를 성인후기로 지칭하거나 성인후기와 노년기로 범주를 나누어 세부적으로 분류하는 것에 대해 제안하였다. 전문가들의 평가를 바탕으로 노인 범주의 명칭을 성인후기로 수정하여 분류하고 연령별 구분의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였다.

② 연구대상군의 진단적 특성

<표 III-2> 연구대상군의 진단적 특성 평가

연구대상군의 진단 특성별 분류기준이 적합합니까?		
평가자	양적 평가	질적 평가
전문가 A	2.0	장애범주의 범위를 넓힐 것을 제안 환자의 구분이 모호함
전문가 B	3.0	다양한 대상군을 표현할 수 있는 분류를 고려
전문가 C	5.0	연구대상군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할 것을 제안
수정내용		1. 장애 대상군을 세부적으로 분류 2. 연구대상군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

연구대상군의 진단적 특성 기준의 적절성에 대해 전문가들은 평균 3.3점으로 평가했으며, 질적 평가는 다음과 같다. 전문가 A는 장애범주의 범위를 넓힐 것을 제안하였으며, 환자 구분에 대한 조작적 정의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전문가 B는 성인을 포함한 대상군이 있기 때문에 장애등급 판정 기준의 분류를 고려하여 분류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연구대상군의 인지수준에 대한 차이가 노래의 치료적 활용에 있어 차이를 유발하기 때문에 정신장애와 지체장애를 같이 분류하는 것에는 분석의 한계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전문가 C는 연구대상군의 각 범주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적을 것을 제안하였다. 전문가들의 평가를 바탕으로 장애 대상군의 기준인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편람(DSM-5)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021 04. 21. 법률 제17494호)의 분류기준을 구체적인 예시를 표로 제시하였다. 또한 환자군은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으로 정의하였으며 호스피스 환자, 입원 환자, 암환자, 화상환자 등을 환자로 분류하였다.

(2) 연구유형

<표 III-3> 연구유형 평가

연구유형의 분류기준이 적합합니까?		
평가자	양적 평가	질적 평가
전문가 A	3.0	비교집단 없는 사전·사후 실험연구를 분류할 것을 제안
전문가 B	5.0	적절하게 분류하였음
전문가 C	5.0	
수정내용	1. 비교집단 없는 사전·사후 실험연구는 단일집단 실험연구에 포함	

연구유형의 분류기준에 대한 적절성을 묻는 항목에 대해 전문가들은 평균 4.3점으로 평가했으며, 질적 평가는 다음과 같다. 전문가 A는 비교집단 사전·사후 실험연구의 분류가 필요하다고 평가하였으며, 전문가 C는 음악치료에서 사용되는 혼합 연구는 질적 사례연구에 가까운 것들이 많아 혼합 연구로 보기 어려우나 선행연구의 분류를 참고하였으므로 필수적으로 수정해야 할 부분은 아니라는 견해를 밝혔다. 전문가들의 평가를 바탕으로 비교집단 없는 사전·사후 실험연구는 양적 연구의 하위분류인 단일집단 실험연구로 분류하였다.

(3) 중재목적

<표 III-4> 중재목적 평가

중재목적의 분류기준이 적합합니까?		
평가자	양적 평가	질적 평가
전문가 A	4.0	
전문가 B	5.0	적절하게 분류하였음
전문가 C	5.0	의사소통이 사회적 의사소통이라면 사회영역으로 구분되어야 하므로 의사소통에 대한 명확한 설명 필요
수정내용		1. 의사소통을 언어적 의사소통과 사회적 의사소통으로 나누어 각각 언어 영역과 사회영역으로 분류

중재목적의 분류기준에 대한 적절성에 대해 전문가들은 평균 4.6점으로 평가했다. 질적 평가에서 전문가 C는 언어영역에 속해있는 의사소통이 사회적 의사소통이라면 사회영역으로 구분되어야 하므로 의사소통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었다. 전문가들의 평가를 바탕으로 언어 범주로 분류된 의사소통을 언어적 의사소통과 사회적 의사소통으로 분류하여 사회적 의사소통은 사회 범주로 재분류하고 언어적 의사소통은 언어 범주로 분류하였다.

(4) 중재 회기구성

<표 III-5> 중재 회기구성 평가

중재 회기구성의 분류기준이 적합합니까?		
평가자	양적 평가	질적 평가
전문가 A	3.0	전체 회기 수: 치료 접근 방법에(행동접근, 심리접근) 따라 회기 수가 달라지는 것을 고려하여 재분류를 제안
전문가 B	4.0	전체 회기 수: 주당 회기 수를 포함할 것을 제안
전문가 C	4.0	세션 형태: 소그룹과 대그룹의 구분 이외의 중간그룹을 추가하여 상세분류(2-4명, 4-8명, 13명 이상)할 것을 제안
수정내용		1. 주당 회기 수를 포함하여 분류(주1회, 주2회, 주3회 이상, 미기제) 2. 세션형태: 소그룹(2-4명), 중간그룹(5-9명), 대그룹(10명 이상)으로 세분화하여 분류

중재 회기구성의 분류기준에 대한 적절성에 대해 전문가들은 평균 3.6점으로 평가했다. 전체 회기 수에 대한 질적 평가에서 전문가 A는 치료접근 방법에 따라 회기 수가 달라지는 것을 고려하여 전체 회기 수 기준의 재분류를 제안하였으며, 전문가 B는 내담자의 상황에 따라 주당 1회기 이상을 진행하는 세션도 있으므로 이를 반영할 수 있는 분류를 추가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세션 형태에 대한 질적 평가에서 전문가 C는 내담자의 연령에 따라 집단의 규모는 다르게 구분될 수 있으므로 대그룹과 소그룹 이외의 중간 규모의 그룹을 추가하여 보다 상세한 분류를 제안하였다. 전문가들의 평가를 바탕으로 주당 회기 수를 중재 회기구성에 추가하여 주1회, 주2회, 주3회 이상, 미기제로 범주화하였으며, 세션 형태를 소그룹(2-4명), 중간그룹(5-9명), 대그룹(10명 이상)으로 중간그룹을 추가하여 세션 형태를 세부적으로 분류하였다.

(5) 노래장르

<표 III-6> 노래장르 평가

노래장르의 분류기준이 적합합니까?		
평가자	양적 평가	질적 평가
전문가 A	3.0	
전문가 B	4.0	가곡, 클래식, 랩을 추가할 것을 제안
전문가 C	5.0	CCM을 종교음악이라는 명칭으로 수정 창작곡을 치료사/내담자로 하위구분할 것을 제안 팝장르와 인디음악 장르를 추가할 것을 제안
수정내용		1. CCM 범주를 종교음악으로 명칭 수정 2. 창작곡 범주를 창작하는 대상에 따라 치료사, 내담자로 하위분류함 3. 힙합 범주에 랩을 추가하여 랩/힙합으로 수정하고 가곡과 클래식, 팝, 인디음악 범주를 추가하여 분류함

노래장르의 분류기준에 대한 적절성에 대해 전문가들은 평균 4.0점으로 평가했다. 질적 평가에서 전문가 B는 노래장르의 분류에서 가곡, 클래식, 랩을 추가 분류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으며, 전문가 C는 CCM이라는 명칭은 기독교음악을 의미하므로 종교음악으로 변경하는 것과 가요 범주에 인디음악을 세부적으로 분류하고, 팝 장르 추가, 창작곡 범주를 다시 치료사와 내담자로 나누는 하위분류를 제안하였다. 전문가들의 평가를 바탕으로 CCM 범주의 명칭을 종교음악으로 변경하고, 힙합 범주에 랩을 추가하여 힙합/랩으로 명칭을 수정하였다. 창작곡 범주의 경우 창작곡을 누가 창작했는지에 따라 치료사와 내담자로 범주를 하위 구분하여 세부적으로 범주화하고 가곡과 클래식, 팝, 인디음악 범주를 추가적으로 분류하였다.

(6) 가사주제

<표 III-7> 가사주제 평가

가사주제의 분류기준이 적합합니까?		
평가자	양적 평가	질적 평가
전문가 A	3.0	비애정관계의 정의를 수정할 것을 제안
전문가 B	5.0	적절하게 분류하였음
전문가 C	4.0	종교 주제를 개인 심리나 사회범주에 포함할 것을 제안 생활 주제를 세부적으로 분류할 것을 제안
수정내용		1. 비애정관계(non-romantic relationship)의 용어를 정의하여 제시함 2. 종교 주제를 사회범주에 포함 3. 생활 주제에 이야기, 일상생활 주제를 추가하여 분류

가사주제의 분류기준에 대한 적절성에 대해 전문가들은 평균 4.0점으로 평가했다. 질적 평가에서 전문가 A는 비애정관계의 정의를 수정해야한다는 견해를 밝혔으며, 전문가 C는 종교 주제가 노래장르의 분류에서도 따로 구분되어있기 때문에 그 외 범주에 속하기보다는 개인 심리 또는 사회 범주에 포함되거나 독립범주로의 구분과 생활 주제를 세부적으로 분류할 것을 제안하였다. 전문가들의 평가를 바탕으로 비애정관계(non-romantic relationship)의 용어를 정의하여 제시하였으며, 종교 주제를 사회 범주로 분류하고, 생활 주제에 이야기와 일상생활 주제를 추가하여 분류하였다.

(7) 노래활동

<표 III-8> 노래활동 평가

노래활동의 분류기준이 적합합니까?		
평가자	양적 평가	질적 평가
전문가 A	4.0	
전문가 B	5.0	적절하게 분류하였음
전문가 C	5.0	적절하게 분류하였음
수정내용	전문가들의 평가에 따라 수정하지 않음	

노래활동의 분류기준에 대한 적절성에 대해 전문가들은 평균 4.6점으로 평가했다. 질적 평가에서 전문가들은 노래활동의 분류가 대체로 적절하게 분류되었다는 견해를 밝혔다. 전문가들의 평가를 바탕으로 노래활동은 고안된 분석틀을 수정하지 않고 분석하였다.

3. 분석항목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군은 연령과 진단 특성 및 임상적 특성으로 분류하였다. 인간의 발달단계에 따라 영아, 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초기, 성인중기, 성인후기로 범주화하였으며 분류기준은 생물학적 연령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영아는 만0-2세, 유아는 만3-6세, 아동 만7-12세, 청소년 만13-18세, 성인초기 만19-44세, 성인중기 만45-64세, 성인후기 만65세 이상으로 범주화하였으며, 한 편의 연구에서 연구대상의 연령과 진단 특성 및 임상적 특성이 두 가지 이상 도출될 경우 각각의 항목에 포함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자세한 분류기준은 <표 III-9>에 제시되었다.

<표 III-9> 연구대상군의 연령별 분류기준

연구대상군	연령
영아	만 0-2세
유아	만 3-6세
아동	만 7-12세
청소년	만 13-18세
성인초기	만 19-44세
성인중기	만 45-64세
성인후기	만 65세 이상

연구대상군의 진단 특성은 장애 대상군과 비장애 대상군, 환자군으로 분류하였으며, 비장애 대상군은 장애 및 질병에 관해 의학적 진단을 받지 않은 대상자를 의미한다. 장애 대상군은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편람(DSM-V)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021. 04. 21. 법률 제17494호)을 근거로 설정하였다. 환자군은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으로 암환자, 입원환자 등이 여기에 속한다. 연구대상군의 진단 특성 분류기준은 <표 III-10>과 같다.

<표 III-10> 연구대상군의 진단 특성별 분류기준

연구대상군	진단 특성
장애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편람(DSM-V)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기준으로 장애진단을 받은 대상자
비장애	장애 및 질병에 관해 의학적 진단을 받지 않은 대상자
환자	입원환자, 암환자 등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

장애군의 구체적인 분류기준을 위해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편람

(DSM-5)에서 대상군의 진단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신경발달장애, 조현병 스펙트럼 및 기타정신병적 장애, 양극성 및 관련장애, 우울장애, 불안장애, 강박 및 관련장애, 외상 및 스트레스 관련장애, 해리장애, 신체증상 및 관련장애, 급식 및 섭식장애, 배설장애, 수면-각성장애, 성기능부전, 성별 불쾌감, 파괴적·충동조절 및品行장애, 물질관련 및 중독장애, 신경인지장애, 성격장애, 변태성욕장애, 기타 정신질환 등 20가지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2021. 04. 21. 법률 제17494호)에서 구분하는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등 10가지로 장애군을 분류하였다. 장애 대상군의 분류 예시는 <표 III-11>과 같다.

<표 III-11> 장애 대상군의 진단 특성 분류기준

분류	세부분류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편람 (DSM-5)	신경발달장애 · 조현병 스펙트럼 및 기타정신병적 장애 · 양극성 및 관련 장애 · 우울장애 · 불안장애 · 강박 및 관련장애 · 외상 및 스트레스 관련장애 · 해리장애 · 신체증상 및 관련장애 · 급식 및 섭식장애 · 배설장애 · 수면-각성장애 · 성기능부전 · 성별 불쾌감 · 파괴적, 충동조절 및品行장애 · 물질관련 및 중독장애 · 신경인지장애 · 성격장애 · 변태성욕장애 · 기타 정신질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 교육법	시각장애 · 청각장애 · 지적장애 · 지체장애 ·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 · 의사소통장애 · 학습장애 · 건강장애 · 발달지체

2) 연구유형

본 연구에서 연구유형은 양적 연구, 질적 연구, 혼합 연구로 구분하였으며, 양적 연구는 설계방법에 따라 단일대상 실험연구와 집단비교 실험연구로 분류하였다. 현상학적 연구, 질적 사례연구, 질적 내용분석, 근거이론 연구는 질적 연구로 분류하였으며, 양적 자료와 질적 자료를 모두 수집하여

노래의 치료적 활용을 입증한 혼합 사례연구는 혼합 연구로 분류하였다. 연구유형의 분류기준은 <표 III-12>와 같다.

<표 III-12> 연구유형 분류기준

분류	분류기준
양적 연구	집단비교 실험연구, 단일대상 실험연구
질적 연구	현상학적 연구, 질적 사례연구, 질적 내용분석, 근거이론 연구
혼합 연구	양적 자료와 질적 자료를 모두 수집한 혼합 사례연구

3) 중재목적

본 연구에서 중재목적은 신체영역, 인지영역, 정서영역, 언어영역, 사회영역, 음악영역으로 구분하였으며, 전문가들의 내용 타당도 평가를 반영하여 의사소통을 사회적 의사소통과 언어·비언어적 의사소통으로 나누어 각각 사회영역과 언어영역으로 분류하였다. 피로수준, 대·소 운동 협응, 감각운동정보 등은 신체영역으로 구분하였으며 주의력과 범위, 장·단기 기억, 학습기술, 사고과정 등은 인지영역으로 분류하였다. 느낌, 표현, 충동성, 불안, 우울, 자아존중감 등은 정서영역으로 구분하고,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기술, 언어적 의사소통 등은 언어영역으로 분류하였다. 타인 인식, 상호교류 기술, 대인관계기술, 사회적 의사소통 등은 사회영역으로 분류하고 음정, 리듬, 템포, 다이내믹, 선율, 음악적 요소 지각이나 구별, 노래 기술 등은 음악영역으로 구분하였다. 한편의 연구에서 중재목적이 두 가지 이상 도출될 경우 각각의 항목에 포함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중재목적의 분류기준은 <표 III-13>과 같다.

<표 III-13> 중재목적 분류기준

분류영역	세부분류내용
신체	피로수준, 대·소 운동 협응, 감각운동정보 등
인지	주의력과 범위, 장·단기 기억, 학습기술, 사고과정 등
정서	느낌, 표현, 충동성, 불안, 우울, 자아존중감, 자기표현 등
언어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기술, 언어적 의사소통 등
사회	타인 인식, 상호교류 기술, 대인관계 기술, 사회적 의사소통 등
음악	음정, 리듬, 템포, 다이내믹, 선율, 음악적 요소 지각/구별, 노래 기술 등

4) 중재 회기구성

본 연구에서 중재 회기구성은 전문가들의 내용 타당도 평가를 반영하여 세션 형태, 전체 회기 수, 주당 회기 수, 회기시간으로 범주화하였다. 세션 형태는 개별, 소그룹 2-4명, 중간그룹 5-9명, 대그룹 10명이상으로 구분하였으며, 전체 회기 수는 1-10회기, 11-15회기, 16-20회기, 21회기 이상으로 분류하였다. 주당 회기 수는 임혜나(2016)의 연구에서 주1회가 가장 많고, 이어 주2회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결과를 참고하여 주1회, 주2회, 주3회 이상, 미기재로 구분하였으며, 회기시간은 40분 미만, 40-60분 미만, 60-90분 미만, 90분 이상으로 분류하였다. 전체 회기 수와 회기시간을 포함한 중재 회기구성의 구체적인 분류기준은 <표 III-14>와 같다.

<표 III-14> 중재 회기구성 분류기준

분류영역	분류기준				
세션 형태	개별	소그룹(2-4명)	중간그룹(5-9명)	대그룹(10명 이상)	
전체 회기 수	1-10회기	11-15회기	16-20회기	21회기 이상	
주당 회기 수	주1회	주2회	주3회이상	미기재	
회기시간	40분 미만	40분-60분 미만	60-90분 미만	90분 이상으로 분류	

5) 노래장르

본 연구에서 노래장르는 동요, 가요, 민요, 종교음악, 가곡, 클래식, 외국곡, 창작곡, 그 외로 분류하였다. 가요장르는 발라드, 댄스, 록, 트로트, 힙합/랩, 인디음악으로 하위분류하였으며, 창작곡은 노래를 만든 사람에 따라 치료사, 내담자로 하위분류하였다. 한 편의 연구에서 노래장르가 두 가지 이상 도출될 경우 각각의 항목으로 결과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노래장르의 분류기준은 <표 III-15>와 같다.

<표 III-15> 노래장르 분류기준

분류	분류기준	
동요	어린이의 꿈과 의욕이 담긴 가사와 단순한 선율, 넓지 않은 음역이 특징인 노래장르	
발라드	서정적인 선율을 가지고 있으며 느린 템포, 사랑과 이별을 주제로 하는 가사가 특징인 노래장르	
댄스	춤을 추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음악으로 빠른 템포, 강한 비트가 특징인 노래장르	
가요	록	보컬, 기타, 베이스, 드럼의 편성으로 연주되는 밴드음악으로 전자 음향의 음색이 특징인 노래장르
	트로트	4분의 4박자를 기본으로 하는 한국의 전통적인 성인가요로 주로 단조 오음계나 장조 오음계의 사용이 특징인 노래장르
	힙합/랩	비트중심의 드럼과 베이스에 강렬하고 직설적인 가사가 특징인 노래장르
인디음악	독립음악으로 상업적 주류 음악과 달리 소자본 인디레이블에서 제작하여 자체적으로 음반제작을 하는 것이 특징인 노래장르	
민요	작곡가가 있는 신민요나 입에서 입으로 내려오는 작곡가 미상의 전통적인 노래로 민족 고유의 시가적, 선율적 특징이 구현된 노래장르	
종교음악	종교행사나 종교의식에 쓰이는 음악으로 종교적인 내용이 특징인 노래장르	
가곡	전통성악곡 중 하나로 시조의 시에 곡을 붙여 관현악 반주에 맞춰 노래를 부르는 노래장르	
클래식	서양의 전통적 작곡 기법이나 연주법에 의한 음악으로 대중음악과 상대되는 노래장르	
외국곡	한국 외 다른 국가에서 만들어진 모든 노래 장르	
창작곡	치료사	중재목적에 따라 세션에서 치료사가 만든 가사와 선율을 가진 노래장르
	내담자	중재목적에 따라 세션에서 내담자가 만든 가사와 선율을 가진 노래장르
그 외	분류된 노래장르 외의 음악	

6) 가사주제

본 연구에서 권유진(2019), 순진이(2002)의 정의와 분류에 따라 가사주제를 애정관계, 비애정관계, 사회, 생활 주제, 그 외로 분류하였다. 애정관계는 연인 간의 사랑에 관한 범주로 애정진행단계, 애정종결단계로 구분하였으며, 비애정관계는 연인 간의 사랑을 제외한 인간관계에 대한 범주로 자신에 대한 감정을 다룬 개인 심리와 자신과 타인의 관계에 대한 범주인 대인관계로 분류하였다. 생활 주제는 계절, 사물, 동식물/자연, 건강/안전, 신체/동작, 이야기 등 생활에 필요한 말이나 사물, 기관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주제로 구분하였으며, 그 외 주제는 분류된 가사주제 외 다른 주제의 내용을 포함하였다. 내용 타당도 검증에서 얻은 전문가들의 견해를 반영하여 애정관계는 연인 사이에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감정에 대한 주제로, 비애정관계는 연애 감정을 제외하고 자신이나 타인과의 관계에서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감정에 대한 주제로 정의하였다. 한편의 연구에서 가사주제가 두 가지 이상 도출될 경우 각각의 항목에 포함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가사주제의 분류기준은 <표 III-16>과 같다.

<표 III-16> 가사주제 분류기준

범주	하위 범주	주제	분류기준
애정 관계	애정 진행 단계	사랑	연인 사이에서 상대방을 몹시 아끼거나 귀중히 여기는 마음 등의 내용.
		짝사랑	혼자만의 사랑이나 고백하지 못한 마음 등의 내용.
		유혹	연인이 아닌 사이에서 타인을 유혹하기 위한 언어표현이나 행동 등의 내용.
	애정 종결 단계	일상적 에피소드	연인 사이에서 경험하는 일상적인 에피소드 등의 내용.
		이별	애정관계가 끝난 것으로 이별 상황, 이별 통보상황 등의 내용.
		슬픔/아픔	이별에 의한 아픔, 슬픔, 고통, 피로움, 외로움 등의 내용.

비애정 관계	개인 심리	애원	떠나려는 연인에게 떠나지 말라고 애처롭게 호소하는 등의 내용.
		기다림	과거의 연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등의 내용.
		그리움/추억	과거의 연인에 대한 그리움이나 추억을 돌이켜보는 등의 내용.
		후회/미련	이별 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거나 연인을 잊지 못하고 남아있는 마음을 표현하는 등의 내용.
	자기표현	자신을 나타내거나 자신이 말하고 싶은 내면의 생각, 감정, 개성 등의 내용.	
	자기애	자기의 가치를 높이고 싶은 욕망이나 자기에 대한 사랑, 성취나 성공에 대한 욕구 등의 내용.	
	삶의 회상	이전의 경험들이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생각하는 등의 내용.	
	위로/지지	자신을 위로하거나 슬픔을 달래주는 희망적, 긍정적 가사 등의 내용.	
	꿈/미래	자신이 이루고 싶은 꿈이나 희망, 미래에 대한 내용, 꿈을 위해 다짐하는 등의 내용.	
	쾌락/즐거움	즐거운 마음이나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며, 유쾌하게 살자는 등의 내용.	
대인 관계	가족	감사, 사랑, 추억이나 그리운 마음, 은혜 등 가족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친구/동료/ 이웃	친구나 동료 사이의 우정이나 추억, 이웃, 선생님에 대한 고마움 등의 내용.	
	향수/회상	고향이나 과거 특정한 시/공간을 돌이켜 생각하며 그리워하는 등의 내용.	
사회	현실/사회 비판	현실이나 사회 현상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밝히거나 지적, 풍자, 비판 등의 내용.	
	격려/희망	사회나 타인을 대상으로 용기나 의욕이 솟아나도록 북돋아 주거나 앞으로 잘될 수 있다는 등의 내용.	
	종교	영적 존재를 주제로 한 종교적 의미 등의 내용.	
생활 주제	동식물/자연	동물, 식물, 곤충, 자연을 주제로 하는 등의 내용.	
	사물	자동차, 솜사탕, 과일 등 음식이나 사물을 주제로 하는 등의 내용.	
	건강/안전	일상생활에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담당하는 직업군이나 기관을 주제로 하는 등의 내용.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등의 내용.	

	신체/동작	신체 부위나 동작을 주제로 하는 등의 내용.
	일상생활	요구하기, 상태 등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말을 주제로 하는 등의 내용
	이야기	가사를 말하듯이 풀어내 만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주제로 하는 등의 내용
그 외	기타	분류된 가사주제 외 다른 주제의 내용.

7) 노래 활동

본 연구에서 노래 활동은 수용적 노래 활동, 즉흥 노래 활동, 재창조 노래 활동, 작곡 활동, 결합 노래 활동으로 분류하였다. 수용적 노래 활동의 하위 범주는 노래 감상, 노래 토의하기, 노래 대화하기, 노래 회상하기, 유도된 노래 회상으로 구분하였으며, 즉흥 노래 활동의 하위 범주는 토닝, 보컬홀딩, 자유 즉흥노래로 분류하였다. 재창조 노래 활동의 하위 범주는 노래 연주하기, 노래 부르기로 구분하였으며, 작곡 활동의 하위 범주는 노래 개사하기, 노래 만들기, 노래 콜라주로 분류하였다. 다른 예술매체와 노래를 결합한 활동은 결합 노래 활동으로 분류하였으며, 한편의 연구에서 노래 활동이 두 가지 이상 도출될 경우 각각의 항목으로 결과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노래 활동의 분류 기준은 <표 III-17>과 같다.

<표 III-17> 노래활동의 분류기준

범주	하위범주	분류기준
수용적 노래활동	노래 감상 (Song Listening)	노래를 듣는 활동
	노래 토의하기 (Song Discussion)	치료사가 가져온 곡을 감상하고 가사의 의미를 살펴 보며 삶과 연관 짓는 활동
	노래 대화하기 (Song Communication)	내담자가 가져온 곡을 감상하며 내담자의 삶이나 치료 주제에 대해 대화하는 활동
	노래 회상하기 (Song Reminiscence)	노래를 들으며 과거를 회상하거나 통찰하는 시간을 가지는 활동
	유도된 노래 회상 (Induced Song Recall)	특정한 주제나 사건과 관련된 노래를 감상하는 활동
즉흥 노래활동	토닝(Toning)	신체의 균형을 회복시킬 목적으로 목소리를 사용하여 일정한 음을 지속하는 활동
	보컬홀딩 (Vocal holding)	두 개의 화음을 사용하여 치료사와 내담자가 즉흥적으로 노래 부르는 활동
	자유즉흥노래	즉흥적으로 떠오르는 감정이나 심상을 노래로 표현하는 활동
재창조 노래활동	노래 연주하기	치료사나 내담자가 정한 노래를 듣거나 부르며 악기를 연주하는 활동
	노래 부르기	미리 작곡된 노래를 목소리로 재현하는 것으로 독창, 합창과 같은 노래 부르는 활동
작곡 활동	노래 개사하기	선율과 기본 반주에 기존의 노래의 말, 어구 또는 전체 가사를 바꾸는 활동
	노래 만들기	노래의 일부 또는 전체를 작곡하는 활동
	노래 콜라주 (Song collage)	내담자의 자전적 또는 치료 주제에 맞는 소리, 노래, 음악 마디를 선택하거나 배열하여 새로운 노래를 만드는 활동
결합 노래활동	다른 예술매체 결합활동	치료적 뮤직비디오 만들기, 노래 그림 그리기, 음악 신체활동, 음악극 등 다른 예술 매체와 노래를 결합한 활동

3. 자료 처리

본 연구는 연구자가 1999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발표된 노래 중재를 사용한 음악치료 석사학위 논문 250편의 분석을 위해 위촉한 음악치료 전문가 3인에게 연구자가 고안한 분석틀의 적합성을 평가받아 내용 타당도를 검증받았다. 전문가의 견해를 반영하여 완성된 분석틀의 분석항목인 연구대상, 연구유형, 중재목적, 중재 회기구성, 노래장르, 가사주제, 노래활동 등을 분석대상 논문에서 반복하여 정독한 후 분류기준의 조작적 정의에 따라 Microsoft Excel 365 Version 프로그램에 코딩하여 각 항목의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는 방식으로 결과를 도출하였다. 분석대상 논문의 분류기준이 모호하거나 상세 기준에 대한 내용이 없을 경우 지도교수와 논의하여 분류하였다.

IV. 연구결과

1. 음악치료 연구의 전반적 특성

1) 연구대상

노래를 치료적으로 활용한 음악치료 연구대상을 분석한 결과, 총 250편의 연구에서 324개의 연구대상이 도출되었다. 성인초기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73편(22.5%)으로 가장 많았으며, 성인후기를 대상으로 한 연구 65편(20.1%), 성인중기를 대상으로 한 연구 61편(18.8%),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 52편(16.1%),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 48편(14.8%),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 20편(6.2%), 영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 3편(0.9%)의 순으로 나타났다. 노래를 치료적으로 활용한 음악치료 연구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전체 대상의 61.4%이며, 일반적으로 노년기라 불리는 성인후기를 제외해도 41.3%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영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래를 활용한 음악치료 연구의 연구대상은 <표 IV-1>과 같다.

<표 IV-1> 노래를 활용한 음악치료 연구의 연구대상

대상	n(%)	대상	n(%)
영아	3(0.9)	성인초기	73(22.5)
유아	20(6.2)	성인중기	61(18.8)
아동	52(16.1)	성인후기	65(20.1)
청소년	48(14.8)	연령미기재	2(0.6)
총합계		N= 324 (100)	

2) 연구유형

노래를 치료적으로 활용한 음악치료 연구유형을 분석한 결과, 총 250편의 연구에서 250개의 연구유형이 도출되었다. 양적 연구는 127편으로 전체 연구의 51%를 차지하여 노래를 치료적으로 활용한 음악치료는 양적 연구 방식의 수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적 연구 중 단일집단 실험연구는 전체 연구의 8%를 차지하였으나 집단비교 실험연구가 전체 연구의 43%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혼합 연구 107편(43%), 질적 연구 16편(6%) 순으로 나타났다. 노래를 활용한 음악치료 연구의 연구유형은 <표 IV-2>와 같다.

<표 IV-2> 노래를 활용한 음악치료 연구의 연구유형

연구유형	분류기준	N (%)	합계(%)
양적 연구	집단비교 실험연구	108(43)	127(51)
	단일집단 실험연구	19(8)	
혼합 연구		107(43)	107(43)
질적 연구	질적 내용분석	6(2)	16(6)
	현상학적 연구	5(2)	
	질적 사례연구	5(2)	
총합계		N= 250 (100)	

3) 중재목적

노래를 치료적으로 활용한 음악치료 연구의 중재목적은 분석한 결과, 총 250편의 연구에서 280개의 중재목적이 도출되었다. 그 중 정서영역을 목적으로 한 연구가 188편(67%)으로 가장 많았으며, 언어영역 33편(12%), 사회영역 29편(10%), 인지영역 17편(6%), 신체영역 7편(3%), 음악영역 4편(1%), 미기재 2편(1%)의 순으로 나타났다. 노래를 활용한 음악치료 연구의 중재목적은 <표 IV-3>과 같다.

<표 IV-3> 노래를 활용한 음악치료 연구의 중재목적

발달영역	n(%)	중재목적
정서	188(67)	자아존중감, 자기통제, 불안, 공포, 자기표현, 자기지각, 정서지능, 스트레스, 부적정서조절, 충동성, 우울, 주관적 안녕감, 자녀수용, 열등감, 장애수용, 생활만족도, 자기개념, 재활동기, 위축행동, 가족적응유연성, 외모만족도, 삶의 질, 자아탄력성, 진로성숙도, 자아통합감, 공감능력, 무력감, 자기효능감, 낙관성, 정서환기, 공격성
언어	33(12)	조음개선, 언어적 의사소통, 음성개선, 어휘습득, 조음명료도, 말속도, 수용언어, 표현언어, 말 산출 문장구사력, 음성 질, 이 름대기 수행, 억양개선
사회	29(10)	대인관계, 사회적 의사소통, 사회성, 학교적응, 모자관계, 사회적 기술, 친사회적 행동, 또래관계, 사회적 지지, 사회적 안녕감, 자발적 의사소통
인지	17(6)	단어회상, 주의집중력, 창의성, 인지기능, 단기기억력, 인생회고, 집행기능, 자기결정성
신체	7(3)	통증감소, 피로, 건관절 가동범위, 운동수행력
음악	4(1)	가창능력, 운율개선, 음고산출, 정확도
미기재	2(1)	
총합계(%)	280(100)	

4) 중재 회기구성

노래를 치료적으로 활용한 음악치료 연구의 중재 회기구성을 분석한 결과, 세션 형태는 참여 인원이 5-9명인 중간그룹 구성이 72편(29%)으로 가장 많았으며, 개별 세션 67편(27%), 10명 이상인 대그룹 58편(23%), 2-4명인 소그룹 53편(21%)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회기 수는 1-10회기가 106편(42%)으로 가장 많았으며, 11-15회기 104편(42%), 16-20회기 30편(14%), 21회 이상 10편(4%)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당 회기 수는 주2회가 123편(49%)으로 가장 많았으며, 주1회 76편(30%), 주3회 이상 37편(15%), 미기재 14편(6%)의 순으로 나타났다. 회기시간은 40-60분 미만이 138편(55%)으로 가장 많았으며, 60-90분 미만 43편(17%), 40분 미만 42편(17%), 90분 이상 18편(7%), 미기재 9편(4%)의 순으로 나타났다. 노래를 치료적으로 활용한 음악치료 연구의 중재 회기구성은 <표 IV-4>와 같다.

<표 IV-4> 노래를 치료적으로 활용한 음악치료 연구의 중재 회기구성

회기구성	하위범주	N (%)	총합계 (%)
세션 형태	개별	67(27)	250(100)
	소그룹	53(21)	
	중간그룹	72(29)	
	대그룹	58(23)	
전체 회기 수	1-10회기	106(42)	250(100)
	11-15회기	104(42)	
	16-20회기	30(12)	
	21회기 이상	10(4)	
주당 회기 수	주1회	76(30)	250(100)
	주2회	123(49)	
	주3회 이상	37(15)	
	미기재	14(6)	
회기시간	40분 미만	42(17)	250(100)
	40-60분 미만	138(55)	
	60-90분 미만	43(17)	
	90분 이상	18(7)	
	미기재	9(4)	

2. 노래자료의 전반적 특성

1) 노래장르

음악치료 연구에 치료적으로 활용된 노래자료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노래장르를 분석한 결과, 총 250편의 연구에서 4,535개의 노래자료가 도출되었다. 이 가운데 가요가 1,747곡(38.6%)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창작곡 1,549곡(34.2%), 동요 510곡(11.2%), 종교음악 241곡(5.3%), 민요 214곡(4.7%), 외국곡 141곡(3.1%), 가곡 55곡(1.2%), 클래식 13곡(0.3%)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요의 장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트로트(11.5%), 발라드(11.1%), 포크(5.8%), 록(3.7%), 댄스(3.6%), 인디음악(1.6%), 힙합/랩(1.3%)의 순으로 음악치료 연구에서 자주 활용되었으며, 창작곡 범주에서는 치료사의 창작곡(29.3%)이 내담자의 창작곡(4.9%) 보다 훨씬 많이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적으로 활용된 노래장르의 전반적 특성은 <표 IV-5>와 같다.

<표 IV-5> 노래장르의 전반적 특성

노래장르	하위범주	n(%)	합계
	동요	510(11.2)	510(11.2)
가요	발라드	502(11.1)	1,747(38.6)
	댄스	162(3.6)	
	록	166(3.7)	
	포크	263(5.8)	
	트로트	520(11.5)	
	힙합/랩	60(1.3)	
	인디음악	74(1.6)	
	민요	214(4.7)	214(4.7)
	종교음악	241(5.3)	241(5.3)
	가곡	55(1.2)	55(1.2)
	클래식	13(0.3)	13(0.3)
	외국곡	141(3.1)	141(3.1)
창작곡	치료사	1,327(29.3)	1,549(34.2)
	내담자	222(4.9)	
	그 외	65(1.4)	65(1.4)
		총합계(%)	4,535(100)

2) 가사주제

음악치료 연구에 치료적으로 활용된 노래자료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가사주제를 분석한 결과, 총 250편의 연구에서 4,535개의 가사주제가 도출되었다. 가사주제 중 생활 주제가 1,713회(37.8%)로 가장 많이 활용되었으며, 비애정관계 주제 1,560회(34.4%), 애정관계 주제 575회(12.7%), 사회 주제 560회(12.3%), 그 외 주제 127회(2.8%)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활 주제 다음으로 높은 비애정관계 주제에서 개인심리 주제가 28%, 대인관계 주제는 6.4%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치료적으로 활용된 가사주제의 전반적 특성은 <표 IV-6>과 같다.

<표 IV-6> 가사주제의 전반적 특성

가사주제	하위범주	주제	n(%)	중간합계 (%)	합계 (%)
애정관계	애정진행단계	사랑	144(3.2)	262(5.8)	575 (12.7)
		짝사랑	90(2)		
		유혹	8(0.2)		
		일상적 에피소드	20(0.4)		
	애정종결단계	이별	58(1.3)	313(6.9)	
		슬픔/아픔	60(1.3)		
		애원	16(0.3)		
		기다림	55(1.2)		
		그리움/추억	62(1.4)		
		후회/미련	62(1.4)		
비애정관계	개인심리	자기표현	724(16)	1,269 (28)	1,560 (34.4)
		자기애	88(1.9)		
		삶의 회상	48(1.1)		
		꿈/미래	217(4.8)		

	위로/지지	113(2.5)		
	쾌락/즐거움	79(1.7)		
대인관계	가족	144(3.2)	291	
	친구/동료/이웃	147(3.2)	(6.4)	
사회	향수/회상	118(2.6)		
	현실/사회 비판	18(0.4)	560	560
	걱려/희망	183(4)	(12.3)	(12.3)
	종교	241(5.3)		
생활 주제	동식물/자연	225(5)		
	사물	320(7)		
	계절	45(1)		
	신체/동작	159(3.5)	1,713	1,713
	건강/안전	4(0.1)	(37.8)	(37.8)
	일상생활	838(18.5)		
	이야기	122(2.7)		
그 외	기타	127(2.8)	127	127
			(2.8)	(2.8)
총합계			4,535	

3) 노래활동

음악치료 연구에 치료적으로 활용된 노래활동을 분석한 결과, 총 250편의 연구에서 471개의 노래활동이 도출되었다. 이 가운데 선율이나 가사를 만드는 작곡 활동이 171회(37%)로 가장 많이 활용되었으며, 다음으로 수용적 노래활동 132회(28%), 재창조 노래활동 105회(22%), 결합 노래활동 48회(10%), 즉흥 노래활동 15회(3%)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작곡 활동 중에서는 노래 개사하기 활동(26%)이 많이 활용되었다. 치료적으로 활용된 노래활동의 전반적 특성은 <표 IV-7>과 같다.

<표 IV-7> 노래활동의 전반적 특성

노래활동	하위범주	n(%)	합계(%)
수용적 노래활동	노래 감상	19(4)	132(28)
	노래 토의하기	49(10)	
	노래 대화하기	31(7)	
	노래 회상하기	22(5)	
	유도된 노래 회상	11(2)	
즉흥 노래활동	토닝	5(1)	15(3)
	보컬홀딩	3(1)	
	자유즉흥노래	7(1)	
재창조 노래활동	노래 연주하기	35(7)	105(22)
	노래 부르기	70(15)	
작곡 활동	노래 개사하기	121(26)	171(37)
	노래 만들기	47(10)	
	노래 콜라주	3(1)	
결합 노래활동	다른 예술매체 결합활동	48(10)	48(10)
총합계(%)			471(100)

3. 임상적 활용에 따른 노래자료의 전반적 특성

1) 연구대상의 연령에 따른 노래자료의 전반적 특성

(1) 연구대상의 연령에 따른 노래장르의 특성

노래를 치료적으로 활용한 음악치료 연구에서 연구대상의 연령에 따른 노래장르를 분석한 결과, 총 250편의 연구에서 6,773개의 노래장르가 도출되었다. 영아에게 활용한 노래자료는 치료사의 창작곡이 16곡(50%)으로 가장 많았으며, 유아와 아동에게는 동요가 각각 109곡(56.8%), 161곡(30.8%)으로 많이 활용되었다. 청소년에게는 가요 중 발라드(22.5%)가 가장 많이 활용되었으며, 성인초기, 성인중기, 성인후기 대상자에게는 치료사의 창작곡이 각각 876곡(47.3%), 1,089곡(51.1%), 422곡(28.3%)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었다. 성인초기 대상자는 발라드가 265곡(14.3%), 성인중기 대상자는 트로트가 213곡(10%), 성인후기 대상자도 트로트가 418곡(28%)으로 많이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와 유아에게 가요, 종교음악, 외국곡은 활용되지 않았으며, 해당 장르의 활용은 아동 대상자부터 나타났다. 연구대상의 연령에 따른 노래장르의 특성은 <표 IV-8>와 같다.

<표 IV-8> 연령에 따른 노래장르의 특성

노래 장르	하위 범주	연구대상								합계
		영아	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초기	성인 중기	성인 후기	연령 미기재	
가요	동요	14 (43.8)	109 (56.8)	161 (30.8)	39 (7.2)	41 (2.2)	108 (5.1)	153 (10.2)	2 (15.4)	627 (9.3)
	발라드			32 (6.1)	122 (22.5)	265 (14.3)	146 (6.9)	66 (4.4)	5 (38.4)	636 (9.4)
	댄스			17 (3.3)	65 (12)	70 (3.8)	48 (2.3)	7 (0.5)	1 (7.7)	208 (3.1)
	록			18 (3.4)	47 (8.7)	89 (4.8)	60 (2.8)	19 (1.3)	1 (7.7)	234 (3.4)
	포크			19 (3.6)	41 (7.6)	120 (6.5)	146 (6.9)	50 (3.4)	4 (30.8)	380 (5.6)
	트로트			1 (0.2)	2 (0.4)	48 (2.6)	213 (10)	418 (28)		682 (10.1)
	힙합/랩			7 (1.3)	36 (6.6)	22 (1.2)	4 (0.2)			69 (1)
	인디 음악			12 (2.3)	24 (4.4)	41 (2.2)	16 (0.7)	1 (0.1)		94 (1.4)
	민요		1 (0.5)	2 (0.4)	1 (0.2)	20 (1.1)	43 (2)	190 (12.7)		257 (3.8)
	종교음악			25 (4.8)	16 (3)	96 (5.2)	148 (6.9)	80 (5.4)		365 (5.4)
가곡		1 (3.1)			1 (0.2)	9 (0.5)	27 (1.3)	38 (2.5)	76 (1.1)	
클래식		1 (3.1)	1 (0.5)	4 (0.8)	0	4 (0.2)	4 (0.2)	1 (0.1)	15 (0.2)	
외국곡				36 (6.9)	22 (4.1)	53 (2.9)	43 (2)	20 (1.3)	174 (2.6)	
창작곡	치료사	16 (50)	66 (34.4)	112 (21.5)	41 (7.6)	876 (47.3)	1,089 (51.1)	422 (28.3)		2,622 (38.7)

내담자	14 (7.3)	64 (12.3)	79 (14.6)	64 (3.5)	32 (1.5)	11 (0.7)	264 (3.9)		
그 외	1 (0.5)	12 (2.3)	5 (0.9)	32 (1.7)	3 (0.1)	17 (1.1)	70 (1)		
총합계(%)	32 (100)	192 (100)	522 (100)	541 (100)	1,850 (100)	2,130 (100)	1,493 (100)	13 (100)	6,773 (100)

(2) 연구대상의 연령에 따른 가사주제의 특성

노래를 치료적으로 활용한 음악치료 연구에서 연구대상의 연령에 따른 가사주제를 분석한 결과, 총 250편의 연구에서 6,773개의 가사주제가 도출되었다. 영아에게는 신체/동작 주제가 15회(46.9%), 유아에게는 동식물/자연 주제가 39회(20.3%)로 많이 활용되었다. 아동과 청소년에게는 자기표현 주제가 각각 98회(18.8%), 169회(31.2%)로 가장 많이 활용되었으며, 성인초기와 성인중기, 성인후기 대상자에게는 일상생활 주제의 활용이 각각 581회(31.4%), 691회(32.4%), 239회(16%)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애정관계 주제는 영아와 유아에게는 활용되지 않았으며, 아동에게는 전체 가사주제의 1.4%로 낮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청소년에게 애정관계 주제는 전체 가사주제 중 11.5%의 비중을 보여 애정관계는 청소년기부터 본격적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의 연령에 따른 가사주제의 특성은 <표 IV-9>와 같다.

<표 IV-9> 연령에 따른 가사주제의 특성

가사 주제	하위 범주	주제	연구대상						연령 미기재		
			영아	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초기	성인 중기		성인 후기	
애정 관계	애정 진행 단계	사랑			2 (0.4)	19 (3.5)	57 (3.1)	63 (3)	64 (4.3)		
		짝사랑			1 (0.2)	10 (1.9)	31 (1.7)	36 (1.7)	40 (2.7)		
		유혹				1 (0.2)	6 (0.3)	2 (0.1)			
		일상적 에피소드				7 (1.3)	9 (0.5)	8 (0.4)	3 (0.2)		
	애정 관계		이별			1 (0.2)	7 (1.3)	24 (1.3)	30 (1.4)	7 (0.5)	1 (7.7)
			슬픔/ 아픔			2 (0.4)	4 (0.7)	14 (0.8)	22 (1)	35 (2.3)	
	애정 종결 단계		애원				2 (0.4)	8 (0.4)	6 (0.3)	6 (0.4)	1 (7.7)
			기다림			1 (0.2)	2 (0.4)	10 (0.5)	24 (1.1)	40 (2.7)	
			그리움/ 추억				6 (1.1)	22 (1.2)	25 (1.2)	28 (1.9)	
			후회/ 미련				4 (0.7)	22 (1.2)	25 (1.2)	27 (1.8)	
비애정 관계	개인 심리	자기표현	2 (6.3)	21 (10.9)	98 (18.8)	169 (31.2)	234 (12.6)	181 (8.5)	204 (13.6)	2 (15.4)	
		자기애		5 (2.6)	25 (4.8)	34 (6.3)	17 (0.9)	13 (0.6)	12 (0.8)		
		삶의 회상			1 (0.2)	4 (0.7)	10 (0.5)	11 (0.5)	29 (1.9)		
		꿈/미래		2 (1)	30 (5.7)	55 (10.2)	81 (4.4)	48 (2.2)	36 (2.4)	3 (23)	
		위로/ 위로			17	19	63	39	13		

	지지			(3.2)	(3.5)	(3.4)	(1.8)	(0.9)	
	쾌락/ 즐거움			6 (1.1)	8 (1.5)	21 (1.1)	27 (1.3)	42 (2.8)	1 (7.7)
대인 관계	가족	2 (6.3)	10 (5.2)	27 (5.2)	13 (2.4)	48 (2.6)	57 (2.7)	46 (3.1)	1 (7.7)
	친구/동 료/이웃	1 (3.1)	9 (4.7)	27 (5.2)	24 (4.4)	25 (1.4)	36 (1.7)	51 (3.4)	2 (15.4)
사회	향수/ 회상	1 (3.1)		1 (0.2)	1 (0.2)	11 (0.6)	52 (2.4)	91 (6.1)	1 (7.7)
	현실/ 사회 비판			2 (0.4)	5 (0.9)	7 (0.4)	4 (0.2)	6 (0.4)	
	격려/ 희망			25 (4.8)	65 (12)	87 (4.7)	57 (2.7)	12 (0.8)	1 (7.7)
	종교		4 (2.1)	23 (4.4)	13 (2.4)	97 (5.2)	153 (7.2)	80 (5.4)	
생활 주제	동식물/ 자연	6 (18.7)	39 (20.3)	51 (9.7)	12 (2.2)	81 (4.4)	95 (4.5)	85 (5.7)	
	사물	1 (3.1)	23 (12)	24 (4.6)	1 (0.2)	155 (8.4)	265 (12.4)	137 (9.2)	
	계절	1 (3.1)	3 (1.6)	15 (2.9)	3 (0.6)		8 (0.4)	20 (1.3)	
	신체/ 동작	15 (46.9)	29 (15.1)	30 (5.7)	13 (2.4)	57 (3.1)	61 (2.8)	25 (1.7)	
	건강/ 안전					4 (0.2)	4 (0.2)		
	일상 생활		6 (3.1)	75 (14.4)	24 (4.4)	581 (31.4)	691 (32.4)	239 (16)	
	이야기	1 (3.1)	37 (19.3)	26 (5)	6 (1.1)	14 (0.8)	21 (1)	38 (2.5)	
그 외	기타	2 (6.3)	4 (2.1)	12 (2.3)	10 (1.9)	54 (2.9)	66 (3.1)	77 (5.2)	
	합계(%)	32 (100)	192 (100)	522 (100)	541 (100)	1,850 (100)	2,130 (100)	1,493 (100)	13 (100)
총합계						6,773			

(3) 연구대상의 연령에 따른 노래활동의 특성

노래를 치료적으로 활용한 음악치료 연구에서 연구대상의 연령에 따른 노래활동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총 250편의 연구에서 591개의 노래활동이 도출되었다. 유아에게는 노래 부르기 활동이 10회(35.7%)로 가장 많이 활용되었으며, 아동과 청소년에게는 노래 개사하기 활동이 각각 35회(34.7%), 28회(29.2%)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초기와 성인중기 대상자에게는 노래 개사하기 활동이 각각 34회(23.3%), 24회(23.1%)로 가장 많이 활용되었으며, 성인후기 대상자에게는 노래 부르기 활동(22.2%)과 노래 개사하기 활동(21.3%)이 가장 많이 활용되었다. 즉흥 노래활동은 아동에게 활용된 1편(1%)을 제외하면 성인 초기 대상자부터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래 콜라주 활동은 청소년기와 성인기에서만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결합노래활동은 아동 대상에게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청소년기부터는 활용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의 연령에 따른 노래활동의 특성은 <표 IV-10>과 같다.

<표 IV-10> 연령에 따른 노래활동의 특성

노래활동	하위범주	연구대상							연령 미기재
		영아	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초기	성인 중기	성인 후기	
수용적 노래활동	노래 감상	1 (25)	1 (3.6)	0	2 (2.1)	13 (8.9)	4 (3.8)	2 (1.8)	
	노래 토의하기		1 (3.6)	8 (7.9)	15 (15.6)	18 (12.3)	11 (10.6)	8 (7.4)	1 (25)
	노래 대화하기			2 (2)	9 (9.4)	12 (8.2)	7 (6.7)	8 (7.4)	
	노래 회상하기			1 (1)		2 (1.4)	5 (4.8)	19 (17.6)	
	유도된 노래 회상				2 (2.1)	2 (1.4)	6 (5.8)	3 (2.8)	
즉흥 노래활동	토닝					4 (2.7)	2 (1.9)	1 (0.9)	
	보컬홀딩					3 (2.1)			
	자유즉흥 노래			1 (1)		4 (2.7)	1 (1)		1 (25)
재창조 노래활동	노래 연주하기	1 (25)	3 (10.7)	5 (4.9)	8 (8.3)	13 (8.9)	12 (11.5)	10 (9.3)	
	노래 부르기	1 (25)	10 (35.7)	16 (15.8)	9 (9.4)	14 (9.6)	17 (16.3)	24 (22.2)	1 (25)
작곡 활동	노래 개사하기		5 (17.8)	35 (34.7)	28 (29.2)	34 (23.3)	24 (23.1)	23 (21.3)	1 (25)
	노래 만들기		1 (3.6)	13 (12.9)	15 (15.6)	15 (10.3)	8 (7.7)	4 (3.7)	
	노래 콜라주				1 (1)	2 (1.4)	1 (1)		
결합 노래활동	다른 예술매체 결합활동	1 (25)	7 (25)	20 (19.8)	7 (7.3)	10 (6.8)	6 (5.8)	6 (5.6)	
합계(%)		4 (100)	28 (100)	101 (100)	96 (100)	146 (100)	104 (100)	108 (100)	4 (100)
총합계						591			

2) 연구대상의 임상적 특성에 따른 노래자료의 전반적 특성

(1) 연구대상의 임상적 특성에 따른 노래장르 특성

노래를 치료적으로 활용한 음악치료 연구에서 연구대상의 임상적 특성에 따른 노래장르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총 250편의 연구에서 4,555개의 노래장르가 도출되었다. 장애군 대상자에게는 동요가 280곡(24.5%)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었으며, 비장애군 대상자에게는 가요 중 특히 발라드가 348곡(18.7%)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었으며, 환자군 대상자에게는 치료사의 창작곡이 1,090곡(55.6%)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었다. 연구대상의 임상적 특성에 따른 노래장르의 특성은 <표 IV-11>과 같다.

<표 IV-11> 임상적 특성에 따른 노래장르의 특성

노래장르	하위 범주	임상적 특성		
		장애군	비장애군	환자군
등요		280(24.5)	217(11.7)	113(5.8)
가요	발라드	59(8)	348(18.7)	95(4.9)
	댄스	21(2.9)	106(5.7)	35(1.8)
	록	23(3.2)	107(5.7)	36(1.8)
	포크	41(5.6)	127(6.8)	95(4.8)
	트로트	146(19.9)	172(9.2)	203(10.4)
	힙합/랩	1(0.1)	55(2.9)	4(0.2)
	인디 음악	4(0.5)	69(3.7)	1(0.1)
민요		105(14.3)	83(4.5)	44(2.2)
종교음악		6(0.8)	124(6.7)	111(5.7)
가곡		7(1)	20(1.1)	28(1.4)
클래식		4(0.5)	5(0.3)	4(0.2)
외국곡		11(1.5)	98(5.3)	32(1.6)
창작곡	치료사	81(11)	157(8.4)	1,090(55.6)
	내담자	37(5)	154(8.3)	31(1.6)
그 외		9(1.2)	19(1)	37(1.9)
합계(%)		735(100)	1861(100)	1,959(100)
총합계			4,555	

(2) 연구대상의 임상적 특성에 따른 가사주제

노래를 치료적으로 활용한 음악치료 연구에서 연구대상의 임상적 특성에 따른 가사주제를 분석한 결과, 총 250편의 연구에서 4,555개의 가사주제가 도출되었다. 음악치료 연구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대상자에게는 자기표현 주제가 145회(19.8%), 457회(24.6%)로 가장 많이 활용되었으며, 환자군 대상자에게는 일상생활 주제가 724회(37%)로 가장 많이 활용되었다. 연구대상의 임상적 특성에 따른 가사주제의 특성은 <표 IV-12>와 같다.

<표 IV-12> 임상적 특성에 따른 가사주제의 특성

가사 주제	하위 범주	주제	임상적 특성		
			장애인	비장애인	환자군
에정 진행 단계	에정 관계	사랑	25(3.4)	68(3.7)	51(2.6)
		짝사랑	9(1.2)	45(2.4)	36(1.8)
		유혹		6(0.3)	2(0.1)
		일상적 에피소드	1(0.1)	11(0.6)	8(0.4)
	에정 종결 단계	이별	4(0.5)	27(1.5)	27(1.4)
		슬픔/아픔	12(1.6)	26(1.4)	24(1.2)
		애원	1(0.1)	9(0.5)	6(0.3)
비에정 관계	개인 심리	기다림	12(1.6)	21(1.1)	22(1.1)
		그리움/추억	7(1)	30(1.6)	25(1.3)
		후회/미련	9(1.2)	30(1.6)	25(1.3)
		자기표현	145(19.8)	457(24.6)	128(6.5)
		자기애	18(2.4)	57(3.1)	13(0.7)

	삶의 회상	8(1.1)	25(1.3)	15(0.8)
	꿈/미래	32(4.4)	155(8.3)	30(1.5)
	위로/지지	18(2.4)	81(4.4)	14(0.7)
	쾌락/즐거움	24(3.3)	39(2.1)	20(1)
대인 관계	가족	32(4.4)	74(4)	38(1.9)
	친구/동료/이웃	23(3.1)	91(4.9)	34(1.7)
사회	향수/회상	32(4.4)	32(1.7)	54(2.8)
	현실/사회 비판	5(0.7)	9(0.5)	5(0.2)
	격려/희망	26(3.5)	132(7.1)	25(1.3)
	종교	6(0.8)	120(6.4)	115(5.9)
생활 주제	동식물/자연	68(9.3)	54(2.9)	104(5.3)
	사물	50(6.8)	24(1.3)	246(12.6)
	계절	22(3)	12(0.6)	11(0.6)
	신체/동작	45(6.1)	53(2.8)	61(3.1)
	건강/안전			4(0.2)
	일상생활	55(7.5)	59(3.2)	724(37)
	이야기	24(3.3)	71(3.8)	29(1.5)
그 외	기타	22(3)	43(2.3)	63(3.2)
	합계(%)	735(100)	1,861(100)	1,959(100)
	총합계		4,555	

(3) 연구대상의 임상적 특성에 따른 노래활동

노래를 치료적으로 활용한 음악치료 연구에서 연구대상의 임상적 특성에 따른 노래활동을 분석한 결과, 총 250편의 연구에서 474개의 노래활동이 도출되었다. 장애군과 비장애군 대상자에게는 노래 개사하기 활동이 각각 26회(27%), 87회(27.6%)로 가장 많이 활용되었으며, 환자군 대상자에게는 노래 부르기 활동이 20회(31.2%)로 가장 많이 활용되었다. 즉흥 노래활동인 보컬홀딩이나 자유즉흥노래, 노래 콜라주 활동은 환자군 대상자에게 활용되지 않았으며, 장애군 대상자에게도 보컬홀딩이나 노래 콜라주 활동은 활용되지 않았다. 연구대상의 임상적 특성에 따른 노래활동의 특성은 <표 IV-13>과 같다.

<표 IV-13> 임상적 특성에 따른 노래활동의 특성

노래활동	하위범주	임상적 특성		
		장애군	비장애군	환자군
	노래 감상	1(1)	14(4.5)	4(6.2)
	노래 토의하기	9(9.4)	37(11.8)	3(4.7)
수용적 노래활동	노래 대화하기	4(4.2)	22(7)	5(7.8)
	노래 회상하기	9(9.4)	10(3.2)	3(4.7)
	유도된 노래 회상	1(1)	5(1.6)	5(7.8)
즉흥 노래활동	토닝	1(1)	3(1)	1(1.6)
	보컬홀딩		3(1)	
	자유즉흥노래	1(1)	6(1.9)	
재창조 노래활동	노래 연주하기	9(9.4)	21(6.7)	6(9.4)
	노래 부르기	23(24)	27(8.6)	20(31.2)
작곡 활동	노래 개사하기	26(27)	87(27.6)	9(14.1)
	노래 만들기	6(6.3)	35(11.1)	6(9.4)
	노래 콜라주		3(1)	
결합 노래활동	다른 예술매체 결합활동	6(6.3)	41(13)	2(3.1)
	합계(%)	96(100)	314(100)	64(100)
	총합계		474	

3) 중재목적에 따른 노래자료의 전반적 특성

(1) 중재목적에 따른 노래장르의 특성

노래를 치료적으로 활용한 음악치료 연구에서 중재목적에 따른 노래장르를 분석한 결과, 총 250편의 연구에서 4,926개의 노래장르가 도출되었다. 언어영역을 중재목적으로 한 연구에서는 치료사의 창작곡(75.8%)이 주로 활용되었으며, 정서영역에서는 가요 중 발라드(17.8%)와 트로트(16.8%)가 가장 많이 활용되었다. 사회영역에서는 동요(16.7%)와 가요 중 트로트(16.7%) 장르의 활용이 많았으며, 인지영역에서는 치료사의 창작곡(27.3%)과 민요(24.6%)가 주로 활용되었다. 신체영역에서는 가요(63.3%)와 종교음악(18.1%)이, 음악영역에서는 동요(57.9%)가 주로 활용되었다. 중재목적에 따른 노래장르의 특성은 <표 IV-14>와 같다.

<표 IV-14> 중재목적에 따른 노래장르의 특성

노래장르	하위 범주	중재목적영역						
		언어	정서	사회	인지	신체	음악	미기재
가요	동요	174 (11.5)	294 (11.2)	47 (16.7)	53 (17.7)	12 (7.2)	11 (57.9)	4 (18.2)
	발라드	14 (0.9)	468 (17.8)	41 (14.6)	3 (1)	11 (6.6)		5 (22.7)
	댄스	1 (0.1)	131 (5)	12 (4.3)	2 (0.7)	28 (16.9)		
	록	9 (0.6)	137 (5.2)	17 (6.1)		17 (10.2)		
	포크	12 (0.8)	229 (8.7)	27 (9.6)	4 (1.3)	24 (14.5)		
	트로트	69 (4.6)	442 (16.8)	47 (16.7)	64 (21.3)	21 (12.7)		
	힙합/랩	1 (0.1)	56 (2.1)			3 (1.8)		
	인디음악		70 (2.7)	1 (0.4)	3 (1)	1 (0.6)		
	민요	18 (1.2)	143 (5.4)	8 (2.8)	74 (24.6)	2 (1.2)	1 (5.3)	
	종교음악	8 (0.5)	201 (7.6)	5 (1.8)		30 (18.1)		
창작곡	가곡	1 (0.1)	39 (1.5)	2 (0.7)	3 (1)	6 (3.6)		7 (31.8)
	클래식	3 (0.2)	10 (0.4)	2 (0.7)		1 (0.6)		
	외국곡	1 (0.1)	117 (4.4)	14 (5)	5 (1.7)	10 (6)		
	치료사	1,142 (75.8)	85 (3.2)	31 (11)	82 (27.3)		4 (21)	
	내담자	26	175	22	5		3	6

	(1.7)	(6.7)	(7.8)	(1.7)	(15.8)	(27.3)
그 외	27 (1.8)	35 (1.3)	5 (1.8)	2 (0.7)		
합계(%)	1,506 (100)	2,632 (100)	281 (100)	300 (100)	166 (100)	19 (100)
총합계	4,926					

(2) 중재목적에 따른 가사주제의 특성

노래를 치료적으로 활용한 음악치료 연구에서 중재목적에 따른 가사주제를 분석한 결과, 총 250편의 연구에서 4,926개의 가사주제가 도출되었다. 인지영역과 언어영역을 중재목적으로 한 연구에서는 일상생활 주제가 각각 48회(16%), 773회(51.2%)로 많이 활용되었으며, 정서영역과 사회영역에서는 자기표현 주제가 630회(23.9%), 80회(28.5%)로 가장 많이 활용되었다. 신체영역에서는 종교 주제가 33회(19.9%), 음악영역에서는 신체/동작 주제가 6회(31.6%)로 많이 활용되었다. 한편, 음악영역의 변화가 목적일 때 애정관계와 비애정관계, 사회 주제에 대한 노래 가사는 활용되지 않았으며, 생활 주제의 하위 범주인 건강/안전에 대한 주제는 언어영역에서만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재목적에 따른 가사주제의 특성은 <표 IV-15>와 같다.

<표 IV-15> 중재목적에 따른 가사주제의 특성

가사 주제	하위 범주	주제	중재목적영역							
			언어	정서	사회	인지	신체	음악	미기재	
애정 진행 단계	애정 관계	사랑	8 (0.5)	119 (4.5)	10 (3.6)	11 (3.7)	11 (6.6)	1 (4.6)		
		짝사랑	9 (0.6)	73 (2.8)	7 (2.5)	3 (1)	6 (3.6)	1 (4.6)		
		유혹	1 (0.1)	6 (0.2)		1 (0.3)				
		일상적 에피소드	1 (0.1)	15 (0.6)			5 (3)			
	애정 종결 단계	애정 관계	이별	4 (0.3)	49 (1.9)	3 (1.1)	3 (1)	2 (1.2)		
			슬픔/아픔	10 (0.7)	52 (2)	1 (0.3)	3 (1)	3 (1.8)		
		애정 종결 단계	개인 심리	애원	1 (0.1)	11 (0.4)			4 (2.4)	
				기다림	11 (0.7)	45 (1.7)	5 (1.8)	5 (1.7)	2 (1.2)	
				그리움/ 추억	11 (0.7)	51 (1.9)		1 (0.3)	5 (3)	2 (9)
				후회/미련	7 (0.5)	50 (1.9)	1 (0.3)	3 (1)	7 (4.2)	1 (4.6)
비애정 관계	개인 심리	자기표현	41 (2.7)	630 (23.9)	80 (28.5)	31 (10.3)	20 (12.1)	2 (10.5)	7 (31.7)	
		자기애	6 (0.4)	78 (3)	5 (1.8)	2 (0.7)	1 (0.6)			
		삶의 회상	1 (0.1)	42 (1.6)	6 (2.1)	3 (1)	3 (1.8)		1 (4.6)	
		꿈/미래	2 (0.1)	207 (7.9)	12 (4.3)	5 (1.7)	4 (2.4)		1 (4.6)	
		위로/지지	1	107	15	3	3			

		(0.1)	(4)	(5.3)	(1)	(1.8)	
	쾌락/ 즐거움	7 (0.5)	62 (2.4)	8 (2.8)	8 (2.7)	8 (4.8)	
대인 관계	가족	10 (0.7)	123 (4.7)	24 (8.5)	14 (4.7)	2 (1.2)	1 (4.6)
	친구/동료/ 이웃	12 (0.8)	127 (4.8)	20 (7.1)	6 (2)	3 (1.8)	1 (4.6)
사회	향수/회상	12 (0.8)	98 (3.7)	4 (1.4)	20 (6.6)	7 (4.2)	2 (9)
	현실/사회 비판	1 (0.1)	13 (0.5)		2 (0.7)	3 (1.8)	
	격려/희망	2 (0.1)	163 (6.2)	10 (3.6)	5 (1.7)	12 (7.3)	
	종교	8 (0.5)	198 (7.5)	5 (1.8)	4 (1.3)	33 (19.9)	
생활 주제	동식물/ 자연	133 (8.8)	70 (2.7)	12 (4.3)	22 (7.3)	2 (1.2)	4 (21)
	사물	269 (17.8)	24 (0.9)	4 (1.4)	33 (11)		3 (15.8)
	계절	18 (1.2)	17 (0.6)	3 (1.1)	10 (3.3)	1 (0.6)	
	신체/동작	88 (5.8)	53 (2)	19 (6.8)	12 (4)		6 (31.6)
	건강/안전	4 (0.3)					
	일상생활	773 (51.2)	20 (0.8)	4 (1.4)	48 (16)		1 (4.6)
	이야기	10 (0.7)	70 (2.7)	13 (4.6)	36 (12)	5 (3)	3 (15.8)
그 외	기타	45 (3)	59 (2.2)	10 (3.6)	6 (2)	14 (8.5)	1 (5.3) 3 (13.5)
	합계(%)	1,506 (100)	2,632 (100)	281 (100)	300 (100)	166 (100)	19 (100) 22 (100)
총합계					4,926		

(3) 중재목적에 따른 노래활동의 특성

노래를 치료적으로 활용한 음악치료 연구에서 중재목적에 따른 노래활동을 분석한 결과, 총 250편의 연구에서 526개의 노래활동이 도출되었다. 언어영역과 음악영역을 중재목적으로 한 연구에서는 노래 부르기 활동이 각각 30회(76.8%), 4회(100%)로 가장 많이 활용되었으며, 정서영역과 사회영역에서는 노래 개사하기 활동이 110회(28.2%), 22회(38.5%)로 많이 활용되었다. 인지영역에서는 노래 회상하기와 노래 부르기 활동이 각각 7회(26.9%), 신체영역에서는 노래 감상과 노래 연주하기 활동이 각각 3회(37.5%)로 많이 활용되었다. 음악영역을 중재목적으로 한 4편의 연구에서는 노래 부르기 활동이 100%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즉흥 노래활동은 정서영역에서만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재목적에 따른 노래활동의 특성은 <표 IV-16>과 같다.

<표 IV-16> 중재목적에 따른 노래활동의 특성

목적영역	노래활동														합계 (%)
	수용적 노래활동					즉흥 노래활동			재창조 노래활동		작곡 활동		결합 노래활동		
	노래 감상	노래 토의 하기	노래 대화 하기	노래 회상하기	유도된 노래 회상	토닝	보컬 홀딩	자유 즉흥 노래	노래 연주 하기	노래 부르기	노래 개사하기	노래 만들기	노래 콜라주	다른 예술매체 결합활동	
언어		1(2.6)			1(2.6)				1(2.6)	30(76.8)	3(7.7)	2(5.1)		1(2.6)	39 (100)
정서	16(4.1)	48(12.3)	30(7.7)	18(4.6)	11(2.8)	5(1.3)	3(0.8)	7(1.8)	29(7.4)	28(7.2)	110(28.2)	42(10.8)	2(0.5)	41(10.5)	390 (100)
사회	1(1.8)	3(5.3)	1(1.8)	1(1.8)					5(8.8)	8(14)	22(38.5)	8(14)		8(14)	57 (100)
인지			1(3.9)	7(26.9)					2(7.7)	7(26.9)	3(11.5)	1(3.9)	1(3.9)	4(15.3)	26 (100)
신체	3(37.5)								3(37.5)	1(12.5)				1(12.5)	8 (100)
음악										4(100)					4 (100)
미기재										1(50)			1(50)		2 (100)
합계				142			15		119			195		55	526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노래의 치료적 활용을 분석하여 노래가 활용된 연구 및 노래자료의 전반적인 특성을 살펴보고, 노래의 치료적 적용을 학문적, 임상적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999년 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발표된 국내 음악치료 석사학위 논문 중 노래를 치료적으로 활용한 연구 250편을 선정하고,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분석틀을 고안하여 음악치료 전문가의 검증을 통해 내용 타당도를 확보하였다. 분석항목은 연구대상, 연구유형, 중재목적, 회기구성, 노래장르, 가사주제, 노래활동 등 7가지 범주로 구성되었으며, 각 범주와 항목에 따라 수집된 자료의 백분율과 빈도를 구하는 방식으로 결과를 도출하였다.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래를 치료적으로 활용한 음악치료 연구의 연구대상은 성인초기 대상 연구 73편(22.5%), 성인후기 대상 연구 65편(20.1%), 성인중기 대상 연구 61편(18.8%), 아동 대상 연구 52편(16.1%), 청소년 대상 연구 48편(14.8%), 유아 대상 연구 20편(6.2%), 영아 대상 연구 3편(0.9%)의 순으로 나타났다. 노래를 치료적으로 활용한 음악치료는 노년기로 불리는 성인후기를 제외하여도 성인 대상자에게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음악치료 학위논문의 동향을 분석한 송혜나(2018)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며, 성인 대상자가 겪는 문제를 작업하는 매체로서 인지와 정서를 함께 자극하는 노래의 치료적 적합성을 나타내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즉, 발달 단계에 따라 경험하게 되는 사회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해 성인초기와 성인중기의 대상자들에게 노래를 활용한 음악치료가 많이 활용되는 것으로 보이며, 성인후기의 대상자의 경우 스트레스, 불안과 같은 심리적 문제 및 성인후기의 발달과업인 자아통합(Erikson, 1982) 등의 이슈를 다루는 작업에 노

래가 인간의 중요한 삶의 사건들을 연결하는 인생의 사운드트랙 역할을 하기 때문에(Ruud, 1995) 많이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영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적게 나타났는데 이는 음악치료 학위논문의 동향을 분석한 송혜나(2018)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음악치료에서 영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 자체가 적기 때문에 노래를 활용한 연구 역시 적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노래를 치료적으로 활용한 음악치료 연구를 연구유형에 따라 분류한 결과, 양적 연구 127편(51%), 혼합 연구 107편(43%), 질적 연구 16편(6%)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국내 음악치료 연구를 분석하여 실험연구가 가장 높게 활용되고 있음을 밝힌 연구(문수정, 2021; 송혜나, 2018; 황은영, 박소연, 2012)들의 주장을 지지한다. 노래를 치료적으로 활용한 음악치료 연구가 양적 연구 방식으로 가장 많이 수행되는 것은 양적 자료를 이용해 음악치료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의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며, 음악치료가 학제화된지 24주년이 되는 현재에도 과학적으로 음악치료의 효과를 입증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 국내 음악치료계의 현실과 학문적 패러다임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노래를 치료적으로 활용한 음악치료 연구의 중재목적은 정서영역 188편(67%), 언어영역 33편(12%), 사회영역 29편(10%), 인지영역 17편(6%), 신체영역 7편(3%), 음악영역 4편(1%)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래가 인간의 발달영역 전 범위에 걸쳐 폭넓게 활용될 수 있는 매체임을 나타내는 결과이며, 인간의 발달영역 중 특히 심리, 정서 영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심리치료의 과정을 촉진할 수 있다는 Bruscia(2012)의 주장과 그 맥을 같이 한다.

중재 회기구성에서 세션 형태는 중간그룹이 가장 많았으며, 개별, 대그룹, 소그룹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회기 수는 1-10회기가 가장 많았고, 11-15회기, 16-20회기, 21회기 이상 순으로 나타났다. 주당 회기 수는 주2회가 가

장 많았고, 주1회, 주3회 이상 순으로 나타났다. 회기시간은 40-60분 미만이 가장 많았고, 60-90분 미만, 40분 미만, 90분 이상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회기 수에서 15회기 이하의 음악치료를 시행한 연구가 전체 연구의 84%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주당 회기 수는 주2회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정해진 기한 내에 연구를 수행하고 결과를 도출해야하는 석사학위 연구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40-60분 미만의 회기시간이 가장 많은 것은 40-60분 이하의 회기가 가장 많음을 보고한 차지연과 문지영(2015)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며, 아동부터 성인까지의 평균적인 주의집중 시간이 40-50분 정도이기에(교육부, 2021) 치료사들이 이를 고려하여 회기를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건복지부(2021)에서 지원하고 있는 심리상담지원서비스 및 발달재활서비스 등의 치료서비스가 1회기 당 50분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도 기관의 일반적인 프로그램 편성시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음악치료 연구에서 치료적으로 활용된 노래자료의 장르는 가요(38.6%), 창작곡(34.2%), 동요(11.2%), 종교음악(5.3%), 민요(4.7%), 외국곡(3.1%), 가곡(1.2%), 클래식(0.3%)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노래자료의 가사주제는 생활 주제(37.8%), 비애정관계 주제(34.4%), 애정관계 주제(12.7%), 사회 주제(12.3%)의 순으로 자주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음악치료 현장에서 대중가요가 가장 많이 활용되는 노래자료 중 하나이며(박수경, 2015; 진보라, 2018; Cevasco-Trotter, Van Weelden & Bula, 2014; Van Weelden & Cevasco, 2009), 대중음악이 내담자의 개인 정서를 위한 중재도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밝힌 Baird와 Samson(2009)의 주장과 그 맥을 같이 하는 결과이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이 노래를 활용한 음악치료 연구의 대상자는 성인이 가장 많기에 가요가 노래자료로 자주 선정된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삶에서 경험하는 내용이나 이별, 사랑 등의 감정을

담고 있어 여러 사람의 공감을 이끌어내기에 적합한 노래 장르(권유진, 2019)인 대중가요의 임상적 가치를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음악치료 연구에서 치료적으로 활용되는 노래활동은 작곡 활동(37%), 수용적 노래활동(28%), 재창조 노래활동(22%), 결합 노래활동(10%), 즉흥 노래활동(3%)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작곡 활동에서는 노래 개사하기 활동(26%)이 가장 많이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래가 내담자의 기능 수준과 중재목적에 따라 다양한 방식의 활동으로 시행되고 있음을 나타내며, 음악치료사들이 구조가 없는 즉흥연주보다 미리 정해진 구조화된 연주에 더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김혜진(2010)의 연구로 보아 음악치료사들의 개인적인 음악적 역량 및 내담자들이 능동적 음악활동에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전문적 역량과도 관련이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셋째, 연구대상의 연령에 따른 노래자료의 치료적 활용을 살펴보면, 유아와 아동에게는 동요, 청소년에게는 가요, 영아와 성인에게는 치료사의 창작곡이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상자의 연령에 따라 노래자료의 활용에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유아와 아동, 청소년 대상에게는 주로 선호도와 흥미를 반영한 노래장르가 활용되며(임윤영, 2013; 흥한나, 순진이, 2018), 성인 대상자에게 치료사의 창작곡이 높은 빈도를 보인 것은 재활치료적 접근의 경우 대상자의 치료적 목적과 신체 재활부위가 상이하므로 중재목적과 개별적인 임상적 특성에 따라 여러 곡을 창작하여 활용할 필요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성인초기는 발라드, 성인중기부터는 트로트가 많이 활용되었는데 이는 20-30대 성인이 발라드를 가장 많이 선호한다고 언급한 한송이(2015)의 연구와 일치하며, 노인들의 음악선호도를 조사하여 트로트를 가장 많이 선호함을 밝힌 백승은(2011)의 주장과 일치한다. 이를 통해 임상 현장에서 활용되는 노래가 각 연령에 따른 선호장르의 곡을 참고하여 선곡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강경진, 2018; 박이슬,

2021).

가사주제에 있어 애정관계 주제는 영아, 유아에게는 활용되지 않았으며, 청소년부터 본격적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에 대한 관심이 시작되는 시기인 청소년기(Rice & Dolgin, 2008)부터 애정관계 주제가 활용되는 것은 생애 주기에 따라 발달적으로 중요한 과업들이 가사주제에 반영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노래활동의 유형은 아동에서부터 성인중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의 대상자에게 노래 개사하기 활동이 활용되었으며, 성인후기 대상자에게는 노래 부르기, 노래 개사하기 활동이 가장 많이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담자의 선호와 기능 수준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으나, 음악치료사들의 역량과 관련된 결과일 수도 있다. 실제로 김혜진(2010)은 음악치료사들이 구조화된 연주에 더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비구조적인 즉흥 노래활동은 전체 활동 중 가장 낮게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동에게 적용된 1편을 제외하고는 성인 초기 대상자부터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래 개사하기 활동은 심리치료적 접근에서 개인의 무의식적 생각, 자신이나 타인과의 관계, 감정을 투사하는데 효과적이기에(Bailey, 1984; Bruscia, 2012) 음악치료 세션에서 자주 활용되며, 재활치료적 접근에서는 어휘능력(손솔이, 2017)이나 화용적 의사소통(유은혜, 2016)과 같은 표현언어의 향상을 목적으로 활용된다. 다시 말해서, 노래 개사하기 활동은 심리치료적 접근과 재활치료적 접근에서 모두 효과가 입증되었기에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즉흥 노래활동은 선율이 정해져 있지 않고 내담자가 스스로 선율을 만들어야 하는 비구조적인 활동으로 내담자가 구조적인 활동에 비해 부담을 느낄 수 있고(박찬양, 2019), 내담자의 흥미와 기능 수준에 부합하기 어려워 가장 낮게 활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결합 노래활동은 특히 아동에 대한 활용이 두드러졌는데 이는 말로 표현하는 것이 아직 어려운 대상

자가 감정이나 생각을 시각적으로 표면화할 수 있기 때문(양지혜, 2014)인 것으로 보인다.

연구대상의 임상적 특성에 따른 노래자료의 치료적 활용을 살펴보면, 장애인 대상자에게는 동요, 비장애인 대상자는 가요, 환자군 대상자는 치료사 창작곡의 장르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 대상자에게는 자기표현 주제, 환자군 대상자에게는 일상생활 주제의 가사를 가장 많이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래활동에 있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대상자에게는 노래 개사하기 활동이 가장 많이 활용되었으며, 환자군 대상자에게는 노래 부르기 활동이 자주 활용된 반면, 노래 콜라주와 즉흥 노래활동 등 대상자의 능동적인 참여를 요구하는 활동은 오지은(2015)의 연구에서 1회 사용된 것을 제외하고는 활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군 대상자에게 노래 부르기 활동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실어증 환자를 대상으로 음악치료 중재를 할 때 주로 선율억양치료나 음악적 말하기 자극 등의 재활치료적 접근에 있어 일상의 환경적 맥락이 매우 중요하게 강조되므로(Charles & Rober, 1996) 일상생활을 반영한 가사 주제를 활용해 치료사가 직접 창작한 곡을 부르는 활동이 많이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비장애인 대상자는 노래심리치료 접근을 활용한 연구가 많고(이지민, 2019; 임혜주, 2008) 노래심리치료에서는 대상자의 선호와 흥미를 반영하는 경우가 많으므로(임혜주, 2008; 흥한나, 순진이, 2018) 가요의 활용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환자의 신체적 기능수준이나 다인실 입원 등의 환경적 조건에서(전유진, 2013) 자유롭게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노래하며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즉흥 노래활동은 개별적 중재를 시행하기 어렵기에 활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같은 맥락에서 장애인 대상자에게는 노래 장르 중 동요의 활용이 가장 많았으며, 보컬홀딩이나 노래 콜라주 활동은 활용되지 않았

는데 이는 내담자들의 기능수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치료사가 선곡을 하고, 내담자 간 기능 수준의 큰 편차가 있는 등의 치료 환경(오지은, 2016)이 결과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중재목적에 따른 노래자료의 치료적 활용 분석 결과는 언어와 인지영역에서는 치료사의 창작곡, 정서와 사회, 신체영역에서는 가요, 음악영역에서는 동요 장르가 가장 많이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사주제에 있어서 음악영역의 변화가 목적일 때 애정관계와 비애정관계, 사회에 대한 주제는 활용되지 않았으며, 생활 주제의 하위범주인 건강/안전 주제는 언어영역에서만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악영역에서는 노래 부르기 활동만 활용되었으며, 즉흥 노래활동은 정서영역에서만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재목적에 따른 노래자료의 분석결과를 통해 발라드와 트로트가 사랑, 우정, 삶 등을 노래하며, 인간의 희로애락을 투사하는 장르이므로(문금현, 2010) 노래심리치료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정서영역의 변화를 위해 자주 활용됨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비해 언어영역에서는 타 영역에서 활용되지 않은 건강/안전 주제를 포함한 일상생활 주제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재활음악치료 접근인 언어재활을 목적으로 할 때 노래주제가 일상생활 필수단어나 짧은 음절을 많이 선택하고 있다는 조연진(2013)의 연구결과와 그 맥을 같이한다. 이를 통해 재활치료적 접근과 노래심리치료 접근은 노래 활용에 있어 가사주제의 차이를 나타냄을 알 수 있다.

언어영역에서는 노래 부르기 활동이 가장 많이 활용되었는데 이는 신경언어장애의 언어재활을 목적으로 한 음악치료 연구를 분석한 조연진(2013)의 연구와 일치하며, 언어영역의 변화를 위해 주로 적용되는 재활음악치료 접근인 치료적 노래 부르기, 선율억양치료, 음악적 말하기 자극은 노래 부르기 활동에서 파생된 기법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음악영역에서 노래 부르기 활동이 가장 많이 활용된 것은 노래를 부르며 즉각적으로 청각적 피

드백을 받는 과정이(Pfordresher, & Mantell, 2009) 음고 산출 정확도나 음고 범위에 긍정적 변화를 유도하기 때문(김효진, 정현주, 2017)인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음악치료 연구에 나타난 노래의 치료적 활용을 분석하기 위하여 노래가 활용된 연구 및 노래의 전반적인 특성을 다양한 항목별로 살펴보고, 노래의 치료적 적용을 학문적, 임상적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노래가 국내 음악치료 연구에서 폭넓은 치료적 활용 범위를 가지며, 음악치료 현장에서 다양한 대상자들을 위해 활용되고 있음을 밝힘으로써 노래의 임상적 가치를 규명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2. 제언

본 연구의 결과와 결론을 바탕으로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선율에 가사가 있는 음악을 노래자료로 정의하여 분석하였다. 그러나 노래자료의 형식에 제한을 두지 않아 노래의 길이와 형식 등의 구성요소가 일정하지 않았다. 일상생활 주제의 단어나 문장을 가사로 하는 치료사의 창작곡이나 기존 곡을 변형하거나 결합하여 사용하는 노래, 연구 대상자의 기능 재활을 목적으로 제시되는 짧은 노래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노래자료의 구성 요소에 제한을 두고 연구를 수행한다면 치료적 접근에 따라 활용되는 노래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심리치료적 접근과 재활치료적 접근을 따로 구분하여 살펴보지 않아 각 접근에 따른 중재활동이나 회기구성, 시간 등의 차이를 확인하지 못했다. 후속연구에서 분류기준을 좀 더 상세히 구분하여 분석한다면,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음악치료 세션에서 내담자와 치료사가 함께 창작한 노래를 내담자 창작곡으로 분류하였다. 치료사가 세션 전에 치료 목적으로 만든 노래(pre-composed song)와 세션에서 치료사와 내담자가 함께 창작한 노래가 구분된다면 임상 현장에서 치료사의 창작곡 활용에 대한 보다 상세한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경진 (2018). 노래자서전이 노인의 우울 및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노인요양병원 노인들에 대한 사례.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대학원.
- 고난영 (2008). 치료적 노래 만들기 활동을 통한 뇌졸중 성인의 장애수용 변화.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공성현, 박정미 (2017). 음악적 말하기 자극(MUSTIM)을 사용한 음악치료가 비유창성 실어증 환자의 문장 구사력에 미치는 효과, **재활심리연구**, 24(2), 297-316.
- 교육부 (2021). 왜 초중고 수업시간은 40·45·50분일까요?. http://27.101.207.41/happy/bbs/selectHappy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5160&nttId=10180. (2021.06.05.)
- 교육부 (202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시행 2021. 04. 21.] [법률 제17494호, 2020. 10. 20., 일부개정]. <https://www.moe.go.kr/>. (2021.04.30.)
- 국립특수교육원 (2009). **특수교육학 용어사전**. 서울: 하우.
- 권서령 (2013). 민요와 장단을 이용한 음악치료가 치매노인의 인지기능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권유진 (2019). 노래심리치료를 위한 한국 대중가요의 주제 및 사회 심리적 의미 분석. 석사학위논문. 가천대학교 특수치료대학원.
- 김경숙, 이상은 (2016). [한국음악치료학회지] 연구 동향: 성과와 과제. **한국음악치료학회지**, 18(2), 21-56.
- 김계원, 정종진, 권희영, 이운주, 김춘경 (2011). 상담심리학의 최근 연구동향: 상담 및 심리치료학회지 게재논문 분석(2000~2009). **한국심리학회지**, 23(3), 521-542.
- 김미경, 이에스더 (2016). 노인 우울에 대한 예술치료 국내 연구동향 분석. **예술과 인간**, 2(2), 44-59.
- 김민지 (2015). 창작판소리를 활용한 음악자서전 활동에서 뇌졸중노인의 인생회고 및 자기표현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성이 (2016). 한국동요를 사용한 음악치료가 다문화 아동의 불안에 미치는 영향: 1920-1940년대 작품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고신대학교 교회음악대학원.
- 김수지, 곽은미 (2009). 학령전기 비구어 자폐 아동의 언어 발달을 위한 음악치료의

- 실제 사례 분석을 통한 이론적 고찰. **자폐성장애연구**, 9(2), 97-110.
- 김수지, 조성래, 오수진, 곽은미 (2010). 리듬청각자극(RAS)을 사용한 소뇌 별아교 세포종(CA) 환자의 보행훈련 사례 연구. **인간행동과 음악연구**, 7(2), 65-81.
- 김영신, 고명한, 박지은 (2011). 국내 음악치료 사례연구 동향 분석. **한국음악치료학회지**, 13(3), 13-38.
- 김영신, 박지은 (2011). 국내 음악치료 질적연구 동향 분석. **한국음악치료학회지**, 13(2), 1-30.
- 김주희, 김수지 (2018). 치료적 노래 부르기를 통한 두경부암 환자의 말산출 기능 향상 사례. **재활복지**, 22(3), 189-208.
- 김지연 (2015). 랩(Rap)을 활용한 인지행동음악치료가 저소득층 청소년의 우울과 열등감 감소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지원 (2018). 학교 부적응 청소년의 적응유연성 향상을 위한 지지적 노래만들기. **인간행동과 음악연구**, 15(2), 41 - 67.
- 김지현 (2019). 국내 노인 대상 음악중재연구 내 치료 논거 세부 분석. **인간행동과 음악연구**, 16(2), 53-77.
- 김천사 (2010). 관소리 창작 음악치료 프로그램을 통한 독거노인의 자기효능감 증진에 관한 연구: 성음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춘경, 이수연, 이윤주, 정종진, 최웅용 (2016). **상담학 사전**. 서울: 학지사.
- 김태연, 강경선 (2012). 전체성 실어증 환자의 언어재활을 위한 신경학적 음악치료 사례연구. **재활심리연구**, 19(1), 23-41.
- 김혜진 (2010). 음악치료사의 전문역량에 대한 자기평가와 교육요구 분석.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혜진, 김은주 (2017). 선호음악 감상이 경찰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와 피로 감소에 미치는 영향. **인간행동과 음악연구**, 14(1), 41-62.
- 김효선 (2018). 민요중심의 음악치료 프로그램이 장기요양시설 입소노인의 기분상태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대학원.
- 김효진, 정현주 (2017). 음정 모방 중심 노래부르기를 통한 인공와우이식아동의 음고 산출 정확도 향상 사례. **인간행동과 음악연구**, 14(1), 1 - 16.
- 남덕순 (2009). 리듬과 박의 기능적 관계. **이화음악논집**, 13(1), 136-155.
- 노혜선 (1999). 노래 부르기가 정신지체아동의 조음개선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 문. 숙명여자대학교 음악치료대학원.
- 문금현 (2010). 대중가요에 나오는 반의어의 의미 양상. **한국어 의미학**, 33, 67-93.
- 문서란 (2014). 노래활동이 뇌의 주의집중도와 뇌 활성화량 변화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음악치료대학원.
- 문수정 (2021). 아동 대상 국내 음악치료전공 학위논문에 나타난 진단평가 도구의 활용 분석.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 박세미, 문지영 (2019). 노래중심 음악활동이 지적장애 근로자의 자기표현과 긍정적 사고에 미치는 영향. **예술심리치료연구**, 15(2), 77-99.
- 박소영 (2004). 동화를 이용한 비구조적 음악극이 유아의 창의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음악치료대학원.
- 박소영, 황은영 (2013). 한국 전통음악을 활용한 국내 연구의 치료적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한국음악치료학회지**, 15(2), 51-71.
- 박수경 (2015). 음악치료 전공생의 노인 선호음악에 대한 인식 및 활용.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박이슬 (2021). 선호 음악감상 활동과 연계한 휴식이 전공의의 휴식만족도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음악치료대학원.
- 박정희, 이드보라 (2013). 독거노인의 우울과 심리적 안녕감에 트로트와 민요를 이용한 노래회상음악치료의 비교 연구. **노인복지연구**, 61, 319-338.
- 박찬양 (2019). 음악치료 인턴들의 치료적 노래 만들기 경험에 대한 주제분석: 포커스 그룹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 배성진, 김경숙 (2020). 음악극 창작활동이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자아존중감, 자기표현력,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인간행동과 음악연구**, 17(1), 51-70.
- 백승은 (2011). 노인들이 선호하는 노래의 분석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보건복지부 (2021). 2021년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 <http://www.mohw.go.kr>. (2021.06.25.).
- 서동욱 (2009). 노래중심 음악치료 프로그램이 뇌졸중환자의 재활동기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 서아름 (2012). 음악 콜라주 중심의 음악치료가 결손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고신대학교 교회음악대학원.

- 서종현 (2018). 랩 중심 음악치료가 소년원 퇴원생의 자기표현력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 손솔이 (2017). 동요를 활용한 노래 만들기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어휘능력과 언어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손은주 (2017). 동요 노랫말의 문학적 특징에 관한 연구. **어린이교육비평**, 7(2), 5-37.
- 송지애 (2009). 목소리 즉흥을 통한 음대생의 연주불안 감소 연구. **인간행동과 음악연구**, 6(2), 43-70
- 송혜나 (2018). 국내 음악치료전공 학위논문 분석 연구. 석사학위논문. 가천대학교 특수대학원.
- 신진이 (2002). 노래심리치료 (Song Psychotherapy) 를 위한 한국 대중가요의 내용 분석: 사회 심리적 현상을 중심으로. **이화교육논총**, 12, 473-486.
- 신사임, 이종철, 장세진, 김무영, J.Stephen Downie, 최가현, 이진하 (2014). K-Pop 디지털 음원 서비스를 위한 상용화에 최적화된 K-Pop 장르 분류 및 장르 기술자 연구.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6, 42-45.
- 신상헌 (2014). 교회음악 중심 노래심리치료가 중년여성의 우울과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고신대학교 교회음악대학원.
- 양소영, 윤해린, 김나영, 김명숙, 김동영 (2010). **음악미술 개념사전**. 서울: 아울북
- 양지혜 (2014). 노래토론하기와 노래그림그리기가 결손가정 청소년의 우울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고신대학교 교회음악대학원.
- 어진 (2017). 노래를 활용한 집단음악치료가 독거노인의 사회적 지지와 무력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한세대학교 대학원.
- 여명선, 김수지 (2018). 연하장애환자의 후두기능 및 연하관련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치료적 노래 부르기 음악중재사례. **재활복지**, 22(1), 169-194.
- 오선화, 김은영, 정진아, 전정민, 남민 (2016). 노래중심 음악치료활동이 다문화 결혼 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및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에 미치는 효과. **한국음악치료학회**, 18(1), 61-85.
- 오지은 (2015). 구조화된 목소리 활용 프로그램을 통한 호스피스 환자의 심리적 안정감에 관한 사례.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오지은 (2016). 국내 성인지적장애인 음악치료 중재 현황. **인간행동과 음악연구**, 13(2), 17-30.

- 유은혜 (2016). 노래 중심 음악치료가 초등학교 고학년 지적장애아동의 화용적 능력 및 의사소통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유지수, 김수지 (2019). 구조화된 노래부르기 중재가 학령기 자폐범주성장애 아동의 자발적 의사소통 행동에 미치는 효과. **특수아동교육연구**, 21(3), 321-347.
- 유현정 (2018). 노래 감상시 대학생이 인식하는 가사의 비중과 역할.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윤다솔, 순진이 (2016). 치료적 노래 만들기가 고등학교 특수학급 청소년의 자아정체감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예술심리치료연구**, 12(3), 303-324.
- 윤선영, 강경선 (2016). 노래심리치료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Pilot Study. **한국음악치료학회지**, 18(2), 119-138.
- 윤예은 (2018). 노래만들기 중재를 통한 인공와우이식 청소년의 자기표현 능력 향상 사례. **인간행동과 음악연구**, 15(2), 69 - 92.
- 윤주리, 정현주 (2019). 자원지향 노래심리치료를 통한 위기청소년의 심리적 자원형성 과정. **인간행동과 음악연구**, 16(2), 1-25.
- 이난복 (2000). 멜로디억양치료(Melodic Intonation Therapy)가 비유창성 실어증환자의 언어재활에 미치는 효과. **한국음악치료학회지**, 2(1), 55-74.
- 이명선 (2009). 노래 중심의 음악치료가 사할린 귀환동포의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 이미아 (2007). 노래중심음악치료가 음악치료 대학원 신입생의 불안과 적응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 이상은, 김경숙 (2015). 국내 음악치료 전문 학술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의 동향 분석. **한국음악치료학회지**, 17(1), 63-91.
- 이성경, 김지혜 (2018). 국내 여성 대상 심리정서 지원을 위한 음악중재 연구 분석: 여성주의 관점을 중심으로. **인간행동과 음악연구**, 15(1), 69-94.
- 이성천 (1971). **음악통론과 그 실습**. 서울: 음악예술사.
- 이승인 (2018). 국내·외 호흡재활을 위한 음악 중재 연구에서 사용된 음악활동 및 치료 논거 분석.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이연옥 (2012). 민요중심 음악치료가 알츠하이머형 치매노인의 인지기능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고신대학교 교회음악대학원.
- 이영은, 박은선 (2019). 미술치료사 발달에 관한 연구동향과 과제: 국내 학위 논문과 학회지 논문을 중심으로. **미술치료연구**, 26(5), 875-899.

- 이영혜, 박혜영 (2020). 음악극 만들기가 중증 지적장애 청소년의 집행기능에 미치는 영향. **한국예술치료학회지**, 20(1), 143-163.
- 이예빛나, 김수지 (2016). 건강한 노화를 위한 음악 활용: 국내·외 연구 고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4), 335-346.
- 이은정 (2010). 음악자서전 활동이 척수손상 환자의 자가지각 및 자기수용 능력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음악치료대학원.
- 이지민 (2019). 북한이탈청소년의 적응유연성 향상을 위한 지지적 노래심리치료 적용 사례.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지수 (2019). 송골라주기법 중심 음악치료에 참여한 집단 따돌림 피해 청소년의 자기결정성 변화에 관한 사례.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이찬미 (2018). 국내 발달장애 아동의 언어발달을 위한 가창 중재 연구 고찰.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이한나, 양은아 (2015). 회고적 노래 만들기가 시설 노인의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예술심리치료연구**, 11(1), 177-197.
- 이현진 (2015). 치료적 뮤직비디오 중재가 장애아가정 비장애자녀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 임단비 (2017). 국내 전문학술지 게재 노래 활용 음악치료 연구 분석.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임윤영 (2013). 노래 만들기 활동이 저소득층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임진석 (2007). 음악치료 효과에 대한 국내 학위논문의 메타분석. **한국음악치료학회지**, 9(1), 1-22.
- 임해주 (2008). 집단노래심리치료 프로그램이 보육 시설 청소년의 자아개념과 자아 존중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 임혜나 (2016). 심리적 외상 경험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국내 심리치료 메타분석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 장승희 (2007). 치료적 노래 만들기(therapeutic song writing)활동이 청소년의 열등감 감소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장지애 (2013). 인생회고를 위한 집단 음악자서전 활동이 성인 편마비 환자의 생활만족도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음악치료대학원.

- 장휘숙 (2013). **전생애 발달심리학**. 서울: 박영사.
- 전영신 (2004). 음악 감상이 치과치료시 경험하는 불안과 통증감소에 미치는 효과. **한국음악치료학회지**, 6(1), 35-47.
- 전유진 (2013). 국내 병원학교의 음악치료 현황조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음악치료대학원.
- 정아영, 박혜영 (2019).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한 국내 음악 중재연구 분석. **예술심리치료연구**, 15(3), 261-283.
- 정옥란 (1993). 실어증 환자를 위한 멜로디 억양 치료법의 적용. **언어치료연구**, 3, 79-90.
- 정용라 (2015). 노래 가사 토의가 뇌졸중 환자의 우울 및 재활동기에 미치는 효과. **인간행동과 음악연구**, 12(1), 43-64.
- 정우진 (2013). 음악치료 전공생의 목소리 즉흥을 통한 자기역량강화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정은 (2010).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서울: 학지사.
- 정의용, 문지영 (2019). 긍정심리학에 근거한 노래중심 음악치료 프로그램이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의 주관적 안녕감 및 낙관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음악치료학회지**, 21(1), 167-196.
- 정진희 (2004). 입원아동의 주사불안 감소를 위한 음악 감상의 효과 연구. **한국음악치료학회지**, 6(1), 85-105.
- 정혜원 (2014). 국악을 활용한 음악치료 관련 연구 분석. **국악교육연구**, 8(2), 79-105.
- 조아람, 김영신 (2015) 음악치료 프로그램이 치매노인에게 미치는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한국음악치료학회지**, 17(2), 57-79.
- 조연진 (2013). 신경 언어 장애의 언어재활을 위한 국내 음악치료 연구 분석. **한국음악치료학회지**, 15(2), 95-119.
- 조진희 (2009). 선호하는 음악 감상이 치과치료 시 경험하는 불안과 통증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조현아 (2013). 국내 음악치료 전문 학술지 연구 현황 분석. **한국음악치료학회지**, 10(2), 55-77.
- 주은혜, 문지영 (2018). 중독질환자를 위한 국내 음악치료의 효과 메타분석, **한국음악치료학회지**, 20(1), 31-55.

- 진보라 (2018). 대중음악을 활용한 음악치료가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차미림, 강경선. (2017). 노래 중심 집단음악치료가 콜센터 상담원의 감정노동에 미치는 영향. **예술심리치료연구**, 13(4), 55-74.
- 차지연, 문지영 (2015). 우울 감소를 위한 음악치료 연구 메타분석. **한국예술연구**, 11, 193-224.
- 최유란 (2013). 찬송가와 CCM 중심 노래심리치료가 목회자 사모의 스트레스 감소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고신대학교 교회음악대학원.
- 한송이 (2015). 인공와우이식 성인과 건청 성인의 음악 장르별 선호도 및 복잡성 비교.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허고은, 문소영 (2016). 치료적 가창훈련이 뇌졸중 노인 환자의 음성 질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음악치료학회지**, 18(2), 139-163.
- 허혜진 (2010).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또래 관계 기술 증진을 위한 창작 음악극 프로그램 효과 연구. **음악치료교육연구**, 7(1), 37-59.
- 현수경 (1999). Song writing을 사용한 음악치료가 알코올 환자의 자아존중감 및 통제소 인식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음악치료대학원.
- 홍도경 (2005). MIT(Melodic Intonation Therapy) 중심의 음악활동을 이용한 실어증을 가진 뇌졸중 노인의 음절 수 증가에 대한 사례 연구. **인간행동과 음악연구**, 2(2), 57-67.
- 홍한나, 순진이 (2018). 영화음악을 활용한 노래심리치료가 저소득층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예술심리치료연구**, 14(1), 155-175.
- 황선경 (2017). 합창위주의 치료적 음악활동에 참여한 지적장애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기술 변화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세대학교 대학원.
- 황은영 (2016). 청소년 음악생활 및 음악선호도, 그리고 일상 스트레스와 음악사용 전략 조사 연구: Pilot Study. **예술심리치료연구**, 12(4), 95-114.
- 황은영, 김영신 (2009). 놀이적 음악 감상이 유아들의 고전음악 선호, 주제 선율 인식 및 음악적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음악치료학회지**, 11(2), 100-113.
- 황은영, 박소연 (2012). 국내 음악치료 관련 학위논문 동향 분석. **한국음악치료학회지**, 14(1), 1-19.
- Ahmadi, F. (2011). Song lyrics and the alteration of self-image. *Nordic Journal of Music Therapy*, 20(3), 225-241.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5th edition)*. Washington. DC
- Amir, D. (1990). A song is born: Discovering meaning in improvised songs through a phenomenological analysis of two music therapy sessions with a traumatic spinal-cord injured young adult. *Music Therapy, 9*(1), 62-81.
- Anshel, A., & Kipper, D. A. (1988). The influence of group singing on trust and cooperation. *Journal of Music Therapy, 25*(3), 145-155.
- Austin, D. S. (2001). In search of the self: The use of vocal holding techniques with adults traumatized as children. *Music Therapy Perspectives, 19*(1), 22-30.
- Austin, D. S. (2008). *The Theory and Practice of Vocal Psychotherapy: Songs of the Self* Jessica Kingsley Publishers.
- Bailey, L. M. (1984). The use of songs in music therapy with cancer patients and their families. *Music Therapy, 4*(1), 5-17.
- Baird, A. & Samson, S. (2009). Memory of music in Alzheimer's disease: Unforgettable?. *Neuropsychology Review, 19*(1), 85-101.
- Baker, F. A. (2015). What about the music? Music therapists' perspectives on the role of music in the therapeutic songwriting process. *Psychology of Music, 43*(1), 122-139.
- Baker, F. A., & MacDonald, R. A. (2013). Flow, identity, achievement, satisfaction and ownership during therapeutic songwriting experiences with university students and retirees. *Musicae Scientiae, 17*(2), 131-146.
- Baker, F., & Wigram, T. (2005). *Songwriting: Methods, techniques and clinical applications for music therapy clinicians, educators and students*. Jessica Kingsley Publishers.
- Baker, F., Wigram, T., Stott, D., & McFerran, K. (2009). Therapeutic songwriting in music therapy, Part II: Comparing the literature with practice across diverse clinical populations. *Nordic Journal of Music Therapy, 18*(1), 32-56.
- Baker, F. A., & Yeates, S. (2018). Carers' experiences of group therapeutic

- songwriting: An interpretive phenomenological analysis. *British Journal of Music Therapy*, 32(1), 8-17.
- Barnish, J., Atkinson, R. A., Barran, S. M., & Barnish, M. S. (2016). Potential benefit of singing for people with Parkinson's disease: a systematic review. *Journal of Parkinson's disease*, 6(3), 473-484.
- Baxter, H. T. (2007). *The individualized music therapy assessment profile: IMTAP*. Philadelphia, PA: Jessica Kingsley Publishers.
- Boxill, E. H. (1994). *Music therapy for the developmentally disabled*. 김태련 (역). **발달장애인을 위한 음악치료**.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원서출판. 1985).
- Bradt, J., Burns, D. S., & Creswell, J. W. (2013). Mixed methods research in music therapy research. *Journal of Music Therapy*, 50(2), 123-148.
- Bruscia, K. E. (1998a). *Defining music therapy*. New Hampshire: Barcelona Publishers.
- Bruscia, K. E. (1998b). *The Dynamics of music psychotherapy*. New Hampshire: Barcelona Publishers.
- Bruscia, K. E. (2012). *Case examples of the use of songs in psychotherapy*. New Hampshire: Barcelona Publishers.
- Carruth, E. K. (1997). The effects of singing and the spaced retrieval technique on improving face-name recognition in nursing home residents with memory loss. *Journal of Music Therapy*, 34(3), 165-186.
- Cevasco-Trotter, A. M., Vanweelden, K. & Bula, J. A. (2014). Music therapists' perception of top the popular songs by decade (1900s-1960s) for three subpopulations of older adults. *Music Therapy Perspectives*, 32(2), 165-176.
- Charles, V. R., & Robert, L. E. (1996). *Speech Correction: An Introduction to Speech Pathology and Audiology*. Needham Heights: Ally & Bacon.
- Cohen, N. S. (1992). The effect of singing instruction on the speech production of neurologically impaired persons. *Journal of Music therapy*, 29(2), 87-102.
- Cohen, N. S., & Masse, R. (1993). The application of singing and rhythmic

- instruction as a therapeutic intervention for persons with neurogenic communication disorders. *Journal of Music Therapy*, 30(2), 81–99.
- Cooper, H. (1998). *Synthesizing research: A guide for literature reviews (3rd ed.)*. London: Sage Publications.
- Daykin, N., Mansfield, L., Meads, C., Julier, G., Tomlinson, A., Payne, A., et al. (2018). What works for wellbeing? A systematic review of wellbeing outcomes for music and singing in adults. *Perspectives in Public Health*, 138(1), 39–46.
- Davis, W. B., Gfeller, K. E., & Thaut, M. H. (2008). *An introduction to music therapy: Theory and practice (3rd Ed.)*. Silver Spring, MA: American Music Therapy Association, Inc.
- Dieringer, S. T., Poretta, D., & Gumm, E. (2013). Using music therapy principles to enhance physical activity participation in children and adolescents with disabilities. *Palaestra*, 27(3), 42–46.
- Easterbrook, P. J., Gopalan, R., Berlin, J. A., & Matthews, D. R. (1991). Publication bias in clinical research. *The Lancet*, 337(8746), 867–872.
- Ellinger, A., Watkins, K. E., & Marsick, V. J. (2005). Case study research methods. In R. A. Swanson & E. F. Holton, III (Eds.), *Research in organizations: Foundations and methods of inquiry*(pp. 327–350). San Francisco: Berrett-Koehler.
- Erikson, E. H. (1982). *The Life Cycle Completed*.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 Ettenberger, M., & Ardila, Y. M. B. (2018). Music therapy song writing with mothers of preterm babies in the Neonatal Intensive Care Unit (NICU) - A mixed-methods pilot study. *The Arts in Psychotherapy*, 58, 42–52.
- Freed, B. S. (1987). Songwriting with the chemically dependent. *Music Therapy Perspectives*, 4(1), 13–18.
- Goldfarb, R., & Bader, E. (1979). Espousing melodic intonation therapy in aphasia rehabilitation: A case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Rehabilitation Research*, 2(3), 333–342.
- Goodridge, D., Nicol, J. J., Horvey, K. J., & Butcher, S. (2013). Therapeutic singing

- as an adjunct for pulmonary rehabilitation participants with COPD: Outcomes of a feasibility study. *Music and Medicine*, 5(3), 169 - 176.
- Grocke, D., & Wigram, T. (2006). *Receptive methods in music therapy: Techniques and clinical applications for music therapy clinicians, educators and students*. London: Jessica Kingsley Publishers.
- Hatcher, J. (2007). Therapeutic Songwriting and Complex Trauma/Écriture thérapeutique de chanson et traumatisme complexe. *Canadian Journal of Music Therapy*, 13(2), 115-131.
- Keith, R. L., & Aronson, A. E. (1975). Singing as therapy for apraxia of speech and aphasia: report of a case. *Brain and Language*, 2, 483-488.
- Kolar-Borsky, A., & Holck, U. (2014). Situation Songs - Therapeutic Intentions and Use in Music Therapy with Children. *Voices: A World Forum for Music Therapy*, 14(2).
- Kumar, R. (2010). *Research methodology: A step-by-step guide for beginners*. London: Sage Publications.
- Laughlin, S. A., Naeser, M. A., & Gordon, W. P. (1979). Effects of three syllable durations using the melodic intonation therapy technique.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Research*, 22(2), 311-320.
- Lewis, A., Cave, P., Stern, M., Welch, L., Taylor, K., Russell, J., et al. (2016). Singing for Lung Health—a systematic review of the literature and consensus statement. *NPJ primary care respiratory medicine*, 26(1), 1-8.
- Miller, S. B., & Toca, J. M. (1979). Adapted melodic intonation therapy: a case study of an experimental language program for an autistic child. *The Journal of clinical psychiatry*, 40(4), 201-203.
- Montagu, A. (1986). *Touching: the human sign of the skin(3rd ed.)*. New York: Harperand Row.
- Neuman, S. B., & McCormick, S. (1995). *Single-subject experimental research: Applications for literacy*. Newark, DE: International Reading Association.
- O'Callaghan, C. C. (1997). Therapeutic opportunities associated with the music when using song writing in palliative care. *Music therapy perspectives*, 15(1), 32-38.

- Olderog Millard, K. A., & Smith, J. M. (1989). The influence of group singing therapy on the behavior of Alzheimer's disease patients. *Journal of Music Therapy, 26*(2), 58-70.
- Pfordresher, P. Q., & Mantell, J. T. (2009). Singing as a form of vocal imitation: Mechanisms and deficits. In J. Louhivuori, T. Eerola, S. Saarikallio, T. Himberg, & P.-S. Eerola (Eds.) *Proceedings of the 7th Triennial Conference of European Society for the Cognitive Sciences of Music* (pp. 425 - 430). Jyväskylä, Finland: Author.
- Radocy, R. E., & Boyle, J. D. (2012). *Psychological foundations of musical behavior*. Illinois: Charles C Thomas Publisher.
- Rice, F. P., & Dolgin, K. G. (2009). *The adolescent: Development, relationships and culture*. 정영숙, 신민섭, 이승연 (역). **청소년 심리학**. 서울: 시그마프레스. (원서출판. 2008).
- Robb, S. L., & Ebberts, A. G. (2003). Songwriting and digital video production interventions for pediatric patients undergoing bone marrow transplantation, part I: an analysis of depression and anxiety levels according to phase of treatment. *Journal of Pediatric Oncology Nursing, 20*(1), 2-15.
- Ruud, E. (1995). Music in the media: The soundtrack behind the construction of identity. *Young, 3*(2), 34-45.
- Sadie, S., & Tyrrell, J. (2001). *The New Grove dictionary of music and musicians. v. 1-29*. New York: Grove.
- Silverman, M. J. (2011). The effect of songwriting on knowledge of coping skills and working alliance in psychiatric patients: A randomized clinical effectiveness study. *Journal of Music Therapy, 48*(1), 103-122.
- Snow, S., Bernardi, N. F., Sabet-Kassouf, N., Moran, D., & Lehmann, A. (2018). Exploring the experience and effects of vocal toning. *Journal of music therapy, 55*(2), 221-250.
- Sparks, R., Helm, N., & Albert, M. (1974). Aphasia rehabilitation resulting from melodic intonation therapy. *Cortex, 10*(4), 303-316.
- Stegemöller, E. L., Hibbing, P., Radig, H., & Wingate, J. (2017). Therapeutic

- singing as an early intervention for swallowing in persons with Parkinson's disease. *Complementary Therapies in Medicine*, 31, 127-133.
- Stegemöller, E. L., Hurt, T. R., O'Connor, M. C., Camp, R. D., Green, C. W., Pattee, J. C., & Williams, E. K. (2017). Experiences of persons with Parkinson's disease engaged in group therapeutic singing. *Journal of music therapy*, 54(4), 405-431.
- Tamplin, J. (2006). Song collage technique: A new approach to songwriting. *Nordic Journal of Music Therapy*, 15(2), 177-190.
- Ter Bogt, T. F., Vieno, A., Doornwaard, S. M., Pastore, M., & Van den Eijnden, R. J. (2017). "You're not alone": Music as a source of consolation among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Psychology of Music*, 45(2), 155-171.
- Thaut, M. H. (2005). *Rhythm, music, and the brain: Scientific foundations and clinical applications*. New York: Routledge.
- VanWeeden, K., & Cevasco, A. M. (2009). Geriatric clients's preferences for specific popular songs to use during singing activities. *Journal of music therapy*, 46(2), 147-159.
- Wan, C. Y., Rüber, T., Hohmann, A., & Schlaug, G. (2010). The therapeutic effects of singing in neurological disorders. *Music perception*, 27(4), 287-295.
- Wexler, M. M. D. (1989). The use of song in grief therapy with Cibecue White Mountain Apaches. *Music Therapy Perspectives*, 7(1), 63-66.
- Wheeler, B. L. (2016). *Music Therapy Handbook*. 전국음악치료사협회 (역). **음악 치료 핸드북**. 서울: 시그마프레스. (원서출판. 2015).
- Williams, C. (2007). Research methods. *Journal of Business & Economics Research (JBER)*, 5(3), 65-72.
- Wilson, C. V. (1976). The use of rock music as a reward in behavior therapy with children. *Journal of Music Therapy*, 13(1), 39-48.
- Yin, R. K. (2003). *Case study research: Design and methods*. CA: Sage Publications.

ABSTRACT

Analysis of Therapeutic Use of Songs in Music Therapy Research : Focusing on Korean Master's Thesis

Lim, Kyoung Seon
Department of Music Therapy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therapeutic use of songs in music therapy research. For this, 250 studies using song therapeutically were selected from Korean music therapy master's theses published from February 1999 to February 2021. Afterwards, an analysis frame was devised to analyze the overal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utilized song material, and the contents validity of the experts was verified and classified according to each item. The results of this study derived by calculating the percentage and frequency of each item are as follows.

First, the number of subjects who participated in the music therapy research using song were early adulthood, late adulthood, middle adulthood, children, adolescents, early child, and infants, and they

appeared high in the order. The research types used were high in the order of quantitative research, mixed research, and qualitative research, and the purposes of intervention were high in the order of emotion, language/communication, social, cognitive, physical, and music. In music therapy sessions, the most frequent session type was the middle group, the total number of sessions centered among 1-10 sessions, the number of sessions per week was mostly twice a week, and the session duration was frequently less than 40-60 minutes.

Second, the genres of the songs used in music therapy research were frequent in the order of popular song, created song, children's songs, religious music, folk songs, foreign music, Lyric song, and classic, and the themes of lyrics were high in the order of life, non-romantic relationship, romantic relationship, and social issues. Singing activities used in the therapy were highest in the composing activity, followed by a receptive singing activity, a re-creating song activity, a combined singing activity, and an improvisational singing activity.

Third, when looking at the song material used by the age of the subjects, children's songs were frequently used for infants and children, popular songs for adolescents, and songs made by therapists for infants and adults. The lyrics about body/movement topic are more used for infants, animals, plants, and nature for infants, self-expression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and lyrics of daily life topics for adults. In song activities, singing activity was frequently used for infants, songwriting activity for children, adolescents, and the early and middle adulthood, and both singing and songwriting for subjects in late

adulthood.

When the data of song utilized by each clinical characteristic of the participant was investigated, a children's song was most frequently used for the disabled group, popular songs for the non-disabled group, and therapists made songs for the patient group. In terms of the theme of lyrics, self-expression was most prominently used for both disabled and non-disabled groups, while lyrics of daily life were used for the patient group. In the case of song activity, the disabled and non-disabled groups frequently used songwriting activity, and the patient group frequently used singing activity.

When the song material used for each intervention purpose were examined, for language and cognitive domain, an original song written by therapists was used, for emotion, social, and physical, popular song, and in the musical domain, children's songs were frequently used. In the cognitive and language domain, daily life topics were used the most. In the domain of social, self-expression was a popular topic, in the physical domain, religion was, and in the music domain, the lyrics of the subject of body/movement were frequently used. In the case of song activities, singing was frequently used in the language and music domains, songwriting in the emotional and social domains, in the cognitive domains, recalling and singing songs, and in the physical domains, listening to and playing songs.

This study analyzed the therapeutic use of songs in music therapy research, and the overall characteristics of songs and song materials used were investigated in terms of various items and tried to understand

the therapeutic application of songs from a theoretical and clinical perspective. This study revealed the clinical value of songs by proving that songs have a broad scope of therapeutic use and are used in real music therapy practices for various client.

부록1. 연구대상 논문: 노래를 치료적으로 활용한 음악치료 연구

연도	이름	학교명	논문제목
1999	노혜선	숙명여대	노래부르기가 정신지체아동의 조음개선에 미치는 효과
	현수경	숙명여대	songwriting을 사용한 음악치료가 알코올 환자의 자아존중감 및 통제소 인식에 미치는 영향
2000	이난복	숙명여대	멜로디억양치료(Melodic Intonation Therapy)가 비유창성 실어증환자의 언어재활에 미치는 효과
	이병국	이화여대	음악감상을 통한 치과진료의 불안감소에 미치는 영향
2001	황지연	숙명여대	노래부르기를 활용한 언어훈련이 자폐성 아동의 언어능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
	이순화	이화여대	가창교육훈련이 언어장애청년들의 음성개선에 미치는 효과 : 정신지체와 뇌성마비를 중심으로
	이영신	이화여대	다운증후군 아동의 노래를 통한 언어적 상호작용강화에 대한 사례연구 : 모방기법을 중심으로
2002	이하목	숙명여대	가창훈련이 정신지체청소년의 가창능력향상에 미치는 효과
	박수정	이화여대	정서장애 청소년의 자기표현력 향상을 위한 음악치료적 접근 : song psychotherapy를 이용한 질적연구 중심으로
	한희원	이화여대	성악 즉흥기법이 음성증상을 가진 성인 정신 분열증 환자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2003	김미애	숙명여대	노래부르기가 초기 치매환자의 단어 회상에 미치는 효과
	정진희	숙명여대	입원아동의 주사불안 감소를 위한 음악감상의 효과 연구
	강성미	이화여대	정신지체아동의 의사소통 증진을 위한 노래 활동 사례 분석
	오상희	이화여대	성인 화상 환자의 노래만들기(Song Writing)를 통한 자기 지각과 자아존중감 변화
	황정숙	이화여대	자폐아의 사회성 증진을 위한 음악치료적 접근 : 멜로디 치료를 중심으로
2004	박소연	숙명여대	동요활동이 자폐성 아동의 어휘습득에 미치는 효과
	박소영	숙명여대	동화를 이용한 미구조적 음악극이 유아의 창의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
	박지연	숙명여대	전래놀이동요 음악 활동이 유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효과
2005	신보혜	숙명여대	노래부르기와 리듬훈련이 뇌손상 환자의 조음명료도, 말속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
	이수경	숙명여대	음악감상 중재와 리듬연주 중재가 직장인의 스트레스와 불안에 미치는 영향
	길수연	이화여대	자극성-진정성 음악을 이용한 부적 정서 조절의 음악회상기법 (Music Recall Technique) : 신경성 식욕부진증 환자의 사례 연구

	이영미	이화여대	게임 중독 청소년의 충동성과 불안 감소를 위한 노래 만들기(songwriting) 기법
	장지윤	이화여대	노인 뇌졸중 환자의 우울증상에 대한 노래심리치료의 효과
	한성은	이화여대	사회적 상황 중심의 노래활동을 통한 자폐아동의 언어표현 증진에 관한 사례연구
	홍도경	이화여대	실어증을 가진 뇌졸중 노인의 음절 수 변화에 대한 MIT (melodic intonation therapy)에 관한 사례연구
	고지은	숙명여대	음악감상이 신생아 체형시 통증행동반응에 미치는 효과
2006	최소림	숙명여대	노래를 중심으로 한 집단음악치료활동이 장애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향상과 불안감소에 미치는 영향
	송성민	이화여대	자폐성 아동의 노래만들기를 통한 자발적 언어표현 증진 사례연구
	박은진	명지대	노래 심리치료가 시설 아동들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박지원	명지대	마인드맵을 활용한 노래중심의 음악치료가 노숙인의 심리제화에 미치는 영향
	백지선	명지대	대학생의 스트레스에 대한 자유즉흥연주와 투사적 감상의 효과성 비교
	윤남순	명지대	PEC과정 모델을 토대로 한 노래심리치료가 초산모의 산후 우울에 미치는 영향
	이미아	명지대	노래중심 음악치료가 음악치료 대학원 신입생의 불안과 적응에 미치는 영향
	이정진	명지대	노래회상을 통한 치매노인의 인지제활
2007	최세연	명지대	치료적 음악감상이 화상환자의 통증완화에 미치는 영향
	한정혜	명지대	음악극활동이 저소득층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오정원	숙명여대	노래를 사용한 음악치료활동이 피학대 여성의 수치심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
	정예은	숙명여대	모-자가 함께하는 songwriting 음악활동이 부모의 수용 및 아동이 지각한 부모-자녀관계에 미치는 영향
	이지혜	이화여대	가창활동중심의 음악치료가 만성정신분열증 성인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이현주	이화여대	성악심리치료활동을 통한 자기의식 변화에 관한 연구
	장승희	이화여대	치료적 노래 만들기(therapeutic song writing) 활동이 청소년의 열등감 감소에 미치는 효과
	김성연	숙명여대	회상을 활용한 음악활동 프로그램이 치매노인의 인지기능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
2008	박정선	숙명여대	노래하기와 MIT의 혼합적 음악 중재가 브로카 실어증 환자의 이름대기 수행 향상에 미치는 효과
	엄선화	숙명여대	회상을 이용한 음악치료활동이 치매노인의 인지기능에 미치는 효과
	이미정	숙명여대	회상을 유도한 노래 활동이 치매노인의 인지와 우울에 미치는 효과

고난영	이화여대	치료적 노래 만들기를 통한 뇌졸중 성인의 장애수용 변화
구민재	이화여대	그룹 노래심리치료 프로그램이 시설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윤에스터	이화여대	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노래 만들기
이숙영	이화여대	노래 부르기를 통한 경증치매노인의 자기표현 향상에 관한 연구
이정민	이화여대	CCM을 활용한 음악치료와 기독교 청소년의 자기개념 향상에 관한 연구
황은정	한세대	노래중심 음악치료에서 나타나는 호스피스 환자 반응에 대한 연구
권영애	명지대	민요중심의 음악치료 프로그램이 노인우울과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서동옥	명지대	노래 중심 음악치료 프로그램이 뇌졸중환자의 재활동기에 미치는 영향
이명선	명지대	노래 중심의 음악치료가 사할린 귀환동포의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임혜주	명지대	집단노래심리치료 프로그램이 보육 시설 청소년의 자아 개념과 자아 존중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
김유립	성신여대	말기암 환자의 '희로애락' 인생회고를 위한 노래심리치료
이수현	성신여대	기독교 음악 감상이 말기 암 환자의 언어적 표출에 미치는 영향
조진희	성신여대	선호하는 음악감상이 치과치료시 경험하는 불안과 통증에 미치는 영향
남여정	숙명여대	노래만들기를 사용한 음악활동이 알코올 의존자 자녀의 분노표현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2009 안지영	숙명여대	치료적 노래활동이 치매노인의 자기표현과 의사소통능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
김수희	이화여대	저소득층 가정 아동의 위축행동 감소를 위한 가창 프로그램 연구
송지애	이화여대	목소리 즉흥을 통한 음대생의 연주불안 감소 연구
오윤신	이화여대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공격성감소를 위한 분노조절 노래심리치료 사례연구
이미정	이화여대	인터넷 게임중독 청소년의 정서 자아개념을 위한 노래만들기
이승진	이화여대	노래심리치료를 통한 십대 미혼모의 자기수용에 관한 연구
임지혜	이화여대	노래심리치료를 통한 청소년의 시험불안 감소에 관한 연구
임현정	이화여대	노래심리치료가 내재화된 정서 문제를 갖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증진에 미치는 영향
조현진	이화여대	시설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을 위한 음악극 활동 사례연구 : 문제행동을 중심으로
한유미	이화여대	노래 부르기 활동을 통한 뇌졸중 노인의 조음 정확도 증진에 관한 연구

	한상임	고신대	노래심리치료가 알코올 중독 환자의 자기정체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
	김진	명지대	마인드맵을 활용한 노래가사분석(Lyric Analysis) 활동이 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조미나	명지대	장애아동 부부의 의사소통과 상호작용 증진을 위한 노래심리치료 사례연구
	김경희	성신여대	노래자서전 활동을 통한 말기 암환자의 죽음수용에 대한 질적 연구 : 관조와 회망의 노래
	도정은	성신여대	그룹 노래 심리치료가 뇌졸중 환자 가족의 적응에 미치는 효과
	배문주	성신여대	불완전 골 형성증 환자의 자아개념 증진을 위한 노래심리치료의 효과
2010	이은정	숙명여대	음악자서전 활동이 척수손상 환자들의 자기지각 및 자기수용 능력에 미치는 영향
	김천사	이화여대	관소리 창작 음악치료 프로그램을 통한 독거노인의 자기효능감 증진에 관한 연구 : 성음을 중심으로
	손성민	이화여대	뇌병변 장애아동의 자기표현능력을 위한 음악치료 활동의 비교 연구 : 악기연주, 노래 만들기, 음악치료 놀이극을 중심으로
	이다은	이화여대	중도시각장애인의 자기효능감 증진을 위한 치료적 노래 만들기 (therapeutic song writing) 사례연구
	허혜진	이화여대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또래 관계 기술 증진을 위한 창작 음악극 프로그램 효과 연구
	김지선	한세대	노래심리치료가 저소득층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김지현	명지대	민요중심의 음악치료프로그램이 중국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우울 감소에 미치는 효과
	박지혜	명지대	청소년 암환자의 외모만족도 및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음악 만들기과 뮤직비디오 적용 사례연구
	전희운	명지대	음악요소와 노래 부르기를 활용한 호흡 및 구강훈련이 정상노인의 음성에 미치는 영향
	조미라	성신여대	노래 만들기 활동이 시설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2011	임이랑	숙명여대	노래를 사용한 언어훈련이 뇌성마비아동의 말 산출 능력에 미치는 영향
	신상미	이화여대	아카펠라 합창의 청소년 사회성 증진에 대한 효과 연구
	이나경	이화여대	여성 한부모 가족의 의사소통 증진을 위한 치료적 음악만들기 사례연구
	최슬기	이화여대	목회자 자녀의 자기탐색을 위한 노래심리치료의 경험연구
	박진미	평택대	지적장애성인의 자기표현 증진을 위한 노래 부르기 활동
	서아름	고신대	음악 쿨라주 중심의 음악치료가 결손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2012	예재숙	고신대	현대기독교음악 중심의 노래심리치료가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이연옥	고신대	민요중심 음악치료가 알츠하이머형 치매노인의 인지기능에 미치는 효과
	김대웅	성신여대	복식호흡을 통한 발성훈련과 멜로디 억양 치료법의 혼합적 중재가 브로카 실어증 환자의 언어 표현력에 미치는 효과 : 단일대상연구
	김도연	성신여대	회상을 유도한 노래 중심의 음악치료가 치매노인의 인지기능 및 행동심리증상에 미치는 효과
	유미리	이화여대	음악감상과 노래활동이 회전근개질환으로 인한 견관절 가동범위에 미치는 영향
	최슬비나	이화여대	혜의 유학생의 문화적응력 강화를 위한 소집단 노래심리치료
	박희연	인제대	창작음악극을 이용한 음악치료가 시설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서미경	인제대	가족 참여와 노래 부르기, MIT 중심 음악치료가 브로카 실어증 환자의 언어 표현 능력에 미치는 영향
	이혜경	평택대	노래중심의 음악활동이 결혼이주여성의 자기표현 증진에 미치는 효과 : 언어표현 중심으로
	이소정	한세대	노래중심의 그룹음악치료가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김경언	고신대	노래중심음악치료가 다문화가정아동의 어휘력발달과 자음정확도에 미치는 영향
	김선정	고신대	음악치료 놀이극이 유아의 정서지능과 음악정서인식에 미치는 영향
	박정희	고신대	독거노인의 우울과 심리적 안녕감에 트로트와 민요를 이용한 노래회상음악치료의 비교 연구
	우혜경	고신대	음악치료 놀이극이 초임부의 불안과 모-태아 애착형성에 미치는 영향
	최유란	고신대	찬송가와 CCM 중심 노래심리치료가 목회자 사모의 스트레스 감소에 미치는 영향
	한정재	고신대	성경 중심의 음악치료 놀이극이 유아의 신학적 개념과 인성에 미치는 영향
2013	권서령	성신여대	민요와 장단을 이용한 음악치료가 치매노인의 인지기능에 미치는 효과
	이혜경	성신여대	노래중심 음악치료가 방사선치료를 받는 암환자들의 피로와 불안에 미치는 영향
	임윤영	성신여대	노래 만들기 활동이 저소득층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박환영	숙명여대	노래중심 음악치료 활동이 초등학생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장지애	숙명여대	인생회고를 위한 집단 음악자서전 활동이 성인 편마비 환자의 생활만족도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최아람	숙명여대	음악감상에서 가사의 유무가 직장인들의 기분 상태 변화에 미치는 영향
	정우진	이화여대	음악치료 전공생의 목소리 즉흥을 통한 자기역량강화에 관한 연구
	김숙정	인제대	음악극 만들기 경험이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기표현과 자아존중감 향상에 미치는 영향

	김수진	고신대	치료적 노래 만들기가 스마트폰 중독 경향 청소년의 중독성 및 자기 통제력에 미치는 영향
	배현주	고신대	노래중심음악치료가 언어발달지체아동의 언어능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
	신상현	고신대	교회음악 중심 노래심리치료가 중년여성의 우울과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양지혜	고신대	노래토론하기와 노래그림그리기가 결손가정 청소년의 우울에 미치는 효과
	황혜진	고신대	진래동요 중심의 음악치료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이중문화 스트레스 및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강빈나	명지대	밴드 활동이 입양 성인 남성의 자아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 한국에서 프랑스로 입양되었던 사례를 중심으로
	김은영	명지대	치료적 밴드활동이 Williams Syndrome 청소년의 사회 기술과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례 연구
	김주에	명지대	시설보호아동의 자기표현력 향상을 위한 음악극 창작하기 프로그램 사례연구
	배수진	명지대	치료적 뮤직비디오 중재가 정서행동장애 위험아동의 우울과 불안 감소에 미치는 영향 : 인지행동치료 철학을 기반으로
	정용라	명지대	노래 가사 토의가 뇌졸중 환자의 우울 및 재활동기에 미치는 효과
2014	김아리	성신여대	노래중심 음악치료가 학령기 화상환자의 불안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이나라	성신여대	노래심리치료프로그램이 산모의 산후우울과 산후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이미경	성신여대	마인드맵을 활용한 노래중심 음악치료활동이 시설 치매노인의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
	이한나	성신여대	회고적 노래 만들기가 시설 노인의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이현정	성신여대	노래중심의 집단음악치료가 독거노인의 우울감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김여진	숙명여대	긍정심리기반 노래중심 음악치료가 노인의 행복감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이민화	숙명여대	노래중심 집단음악치료 활동이 저소득층 아동의 자기표현, 자아존중감,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공지윤	이화여대	학습부진아의 쌍연합 단어 단기기억력 향상을 위한 리듬과 선율 중재 비교 연구
	신아름	이화여대	노래 만들기를 통한 정서 행동 문제 청소년의 유능감 강화에 관한 연구
	이남원	이화여대	선율 중심 인지재활 프로그램이 경증 알츠하이머 치매노인의 단기기억력에 미치는 효과
	최진희	이화여대	알코올 의존자의 변화동기 강화를 위한 노래심리치료
2015	김상락	가천대	밴드합주가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효과

	김은혜	가천대	단일곡 노래 활동이 말기 암 환자의 통증 및 기분의 변화에 미치는 효과
	김화정	고신대	노래 중심 음악치료가 고등학생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박경숙	고신대	노래 중심 음악치료가 언어발달지체 쌍둥이 유아의 수용·표현 언어에 미치는 영향 : 양순음 /口/을 중심으로
	손정향	고신대	노래 중심 음악치료가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양예슬	명지대	즉흥연주 중심 창작음악극 활동이 교육복지특별지원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이경미	명지대	밴드활동이 중장기척터 남자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우울증세에 미치는 효과
	이현진	명지대	치료적 뮤직비디오 중재가 장애아가정 비장애자녀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공성현	성신여대	음악적 말하기 자극(MUSTIM) 중심의 음악치료 프로그램이 비유창성 실어증 환자의 문장 구사력에 미치는 효과
	김민지	성신여대	창작관소리를 활용한 음악자서전 활동에서 뇌졸중 노인의 인생회고 및 자기표현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김지연	성신여대	랩(Rap)을 활용한 인지행동음악치료가 저소득층 청소년의 우울과 열등감 감소에 미치는 효과
	양서진	성신여대	합창중심 음악치료가 은퇴한 남성 노인의 삶의 질과 자아존중감 향상에 미치는 영향
	최진영	성신여대	노래중심 음악치료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수용·표현언어 발달에 미치는 영향
	송아영	수원대	유아의 공격성 감소를 위한 노래심리치료 프로그램 연구
	최나리	숙명여대	긍정심리기반 치료적 노래중심 활동이 정신장애인의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오지은	이화여대	구조화된 목소리 활용 프로그램을 통한 호스피스 환자의 심리적 안정감에 관한 사례
	지경미	이화여대	지적장애 청소년의 집행 기능 향상을 위한 태블릿 PC 기반 음악 만들기 활동 사례
	최재은	이화여대	음악극 연주를 통한 지적장애 성인의 신체적 자기개념 증진에 관한 사례
	한은영	이화여대	구조화된 노래활동을 통한 파킨슨병 내담자의 음성의 질 향상과 우울 감소에 관한 사례
	박이랑	인제대	음악치료 놀이극이 지적장애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백성은	가천대	집단 노래심리치료 활동이 독거노인의 사회적 지지와 우울에 미치는 효과
2016	김성이	고신대	한국동요를 사용한 음악치료가 다문화 아동의 불안에 미치는 영향 : 1920~1940년대 작품 중심으로
	성보경	고신대	노래심리치료가 시설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윤영미	고신대	노래자서전 중심의 음악치료가 노인의 자아통합 증진에 미치는 영향
이은혜	고신대	노래 중심 음악치료가 저소득층 아동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박지영	명지대	노래 중심 음악치료가 저소득층 청소년의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효과
허고은	명지대	치료적 가창 훈련이 뇌졸중 노인 환자의 음성 질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
김지은	성신여대	창작 음악극을 이용한 음악치료가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자기조절 및 자기표현에 미치는 영향
노인규	성신여대	노인 여성들의 합창음악치료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방은미	성신여대	노래중심 음악치료가 저소득층 아동의 자아탄력성과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유은혜	성신여대	노래중심 음악치료가 초등학교 고학년 지적장애아동의 화용적 능력 및 의사소통에 미치는 효과
윤다솔	성신여대	치료적 노래 만들기가 고등학교 특수학급 청소년의 자아정체감과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윤선영	성신여대	노래심리치료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권정옥	숙명여대	노래 부르기가 인공와우 이식아동의 운율 개선에 미치는 영향
성한나	숙명여대	음악극 창작 활동이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기표현력 및 사회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
윤지영	숙명여대	음악 감상이 소방공무원의 피로와 불안에 미치는 영향
김지원	이화여대	학교 부적응 청소년의 적응유연성 향상을 위한 지지적 노래 만들기
김효진	이화여대	음정모방 중심 노래부르기를 통한 인공와우이식 아동의 음고산출 향상 사례
박나현	이화여대	Ellis의 ABCD모형 기반 노래 만들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의 시험 불안 감소 사례
정다운	인제대	치료적 노래 만들기 활동이 지적장애 청소년의 자기표현에 미치는 영향
박하나	한세대	Songwriting 중심의 음악치료가 학대피해노인의 우울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황선경	한세대	합창위주의 치료적 음악활동에 참여한 지적장애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기술 변화 연구
인지은	가천대	유아의 공감능력 증진을 위한 치료적 노래 만들기 활동의 효과
임수란	고신대	노래회상기법을 활용한 음악치료가 호스피스 환자의 불안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윤미지	명지대	마인드맵을 이용한 노래심리치료가 대학생의 자아정체감과 진로정체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
이서은	명지대	노래활용음악치료가 시설보호영아의 사회·정서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구윤경	성신여대	치료적 노래 만들기가 소아암 생존 아동의 삶의 질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김어민	성신여대	노래심리치료가 사회복지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능력에 미치는 영향
문자람	성신여대	치료적 노래 만들기를 이용한 음악치료가 유방암 생존자의 삶의 질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례연구
손솔이	성신여대	동요를 활용한 노래 만들기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어휘능력과 언어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이지연	성신여대	긍정심리기반 노래심리치료가 탈성매매여성의 자아존중감 향상과 우울 감소에 미치는 영향
차미림	성신여대	노래 중심 집단음악치료가 콜센터 상담원의 감정노동과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홍한나	성신여대	치료적 노래 만들기가 저소득층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 사회기술에 미치는 영향
고윤정	숙명여대	긍정적 메시지를 담은 대중가요가 지하철 기관사의 직무스트레스와 기분상태에 미치는 영향
박세미	숙명여대	노래중심 음악활동이 지적장애 근로자의 자기표현과 긍정적 사고에 미치는 영향
장유진	숙명여대	노래중심 음악활동이 군 장병의 감성지능,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김현지	이화여대	전자 드럼 연주 시 노래 부르기 유무에 따른 만성 뇌졸중 환자의 피로도 및 운동 수행력 비교
송승희	이화여대	구조화된 가창 프로그램을 통한 내재화 문제를 가진 아동의 자기표현행동 변화 사례
정유미	이화여대	합창 중재 프로그램이 파킨슨병 환자의 음성개선 및 음성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어진	한세대	노래를 활용한 집단음악치료가 독거노인의 사회적 지지와 무력감에 미치는 영향
김소리	명지대	창작음악극 중심의 음악치료가 제3국 출생 탈북아동의 학교생활적응력에 미치는 효과
김효선	명지대	민요중심의 음악치료 프로그램이 장기요양시설 입소노인의 기분상태에 미치는 영향
서종현	명지대	랩 중심 음악치료가 소년원 퇴원생의 자기표현력에 미치는 영향
박윤지	성신여대	마인드맵을 활용한 치료적 노래 만들기가 특성화 고등학교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일상적 스트레스, 학교적응유연성에 미치는 효과
이주영	성신여대	칸트를 이용한 음악치료가 외상성 뇌손상 환자의 최대발성시간, 조음정확도, 말속도 능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례연구
진보라	성신여대	대중음악을 활용한 음악치료가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최준호	성신여대	합창중심 음악치료가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정서지능과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황윤경	성신여대	노래중심 음악치료가 한부모 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박동화	숙명여대	노래 감상이 치매노인의 어휘산출과 자기표현에 미치는 영향
	정의용	숙명여대	긍정심리학에 근거한 노래중심 음악치료 프로그램이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의 주관적 안녕감 및 낙관성에 미치는 영향
	김예진	이화여대	치료적 노래 만들기를 통한 위기청소년의 자기인식 변화
	김유정	이화여대	초고령 재가여성노인의 우울감 완화를 위한 노래 부르기 사례
	김주희	이화여대	치료적 노래 부르기를 통한 두경부암 환자의 말 명료도 향상 사례
	백유신	이화여대	인생 회고를 통한 음악자서전 활동이 초고령 노인의 우울감 개선에 미치는 영향
	윤예은	이화여대	노래 만들기 중재를 통한 인공와우이식 청소년의 자기표현 능력 향상 사례
	정유선	이화여대	중환자 보호자의 불안감소를 위한 단회기 노래중심 음악치료 적용사례
	박종임	평택대	노래 중심 음악치료 활동이 탈북청소년의 한국어 말하기에 미치는 영향
	배성진	한세대	음악극 창작활동이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사회성, 자기표현력,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이에림	가천대	노래심리치료 활동이 만성 조현병 환자의 정서표현 및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
	이영혜	고신대	음악극 만들기가 지적장애 청소년의 집행기능에 미치는 영향
	이지영	고신대	치료적 노래 만들기 활동이 탈북배경청소년의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조미영	고신대	노래심리치료가 갱년기여성의 우울과 상실감에 미치는 영향
	강경진	동아대	노래자서전이 노인의 우울 및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박금이	명지대	치료적 노래 만들기가 인공와우이식 아동의 자기표현력과 학교생활적응력에 미치는 영향
2019	윤경섭	명지대	노래심리치료가 노인의 삶의 의미와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
	박연주	성신여대	치료적 노래 만들기를 활용한 음악치료가 주간 보호시설 노인의 우울과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박정환	성신여대	노래중심 음악치료 활동이 만성정신질환자의 회복탄력성,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이나경	성신여대	가창 중심의 음악치료가 저소득층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표현 향상 및 공격성 감소에 미치는 영향 :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중심으로
	임예신	성신여대	노래심리치료가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기개념과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 베트남 결혼이민자가정 청소년을 중심으로
	손찬양	숙명여대	긍정적 가사 중심의 음악감상이 취업준비생의 취업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이에습	숙명여대	노래 중심의 음악활동이 노인의 지역공동체 의식과 사회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고예주	이화여대	긍정 정서 증진을 위한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노래 회상 활동 사례 연구 : 미래 자원 규명을 중심으로
	김성경	이화여대	자가음성 모니터링을 응용한 가창 프로그램이 인공와우이식 아동의 억양과 음고 변화에 미치는 영향
	김은지	이화여대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자아탄력성 향상을 위한 단기 노래심리치료 프로그램 적용사례
	문정현	이화여대	구조화된 음악 내 반복적 악구 적용을 통한 자폐범주성장애 아동의 어절 사용 촉진 사례
	박소리	이화여대	파킨슨병 환자의 그룹 가창 활동 참여 경험
	유지수	이화여대	구조화된 노래 부르기가 학령기 자폐범주성장애 아동의 자발적 의사소통 행동에 미치는 효과
	이지민	이화여대	북한이탈청소년의 적응유연성 향상을 위한 지지적 노래심리치료 적용 사례
	이지수	이화여대	송골라주기법 중심 음악치료에 참여한 집단 따돌림 피해 청소년의 자기결정성 변화에 관한 사례
	최지은	이화여대	암 생존 청소년의 자기표현력 증진을 위한 랩 만들기 사례
	박찬양	전주대	음악치료 인턴들의 치료적 노래 만들기 경험에 대한 주제분석 : 포커스 그룹을 중심으로
	김은주	한세대	모-아 음악극 활동과 공연이 발달장애 아동과 양육자의 심리 및 행동 반응에 미치는 영향
	권윤희	동아대	노래심리치료가 조현병 환자의 정서표현과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효과
	김가경	동아대	멜로디 억양 치료가 브로카 실어증 환자의 표현 언어 및 반응 개시 시간에 미치는 영향
	권용주	성신여대	청소년을 위한 랩(Rap) 음악치료 가사 분석 연구 : 열등감과 자기효능감을 중심으로
2020	김혜영	성신여대	치료적 음악극이 다문화 아동의 자기표현과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노윤기	성신여대	감정노동 종사자들을 위한 치료적 노래 만들기 랩 가사 내용분석 연구 : 청년 헤어 미용 종사자를 중심으로
	박하은	이화여대	북한이탈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 증진을 위한 구조화된 아카펠라 증창 활동 사례
	이영은	이화여대	노래심리치료를 통한 말기 암 환자의 심리적 안녕감 증진 사례
	김혜미	한세대	밴드합주 활동이 비행청소년의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효과
	이승은	성신여대	소방공무원의 노래중심음악심리치료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2021	홍심근	성신여대	장애인의 비장애 형제자매를 위한 치료적 노래 만들기 가사내용 분석 연구
	박이슬	숙명여대	선호 음악감상 활동과 연계한 휴식이 진공의 휴식만족도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이화림	한세대	노래중심 음악치료가 낮병원 정신질환자의 기분상태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